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학석사학위논문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활동

-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와 청년 활동가의 실천 연구 -

2014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류 연 미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활동

-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와 청년 활동가의 실천 연구 -

지도교수 김 홍 중

이 논문을 사회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류 연 미

류연미의 사회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6월

위 원 장 정 근 식 (인)

부 위 원 장 전 상 진 (인)

위 원 김 홍 중 (인)

국문초록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활동
: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와 청년 활동가의 실천 연구

본 연구는 최근 등장한 ‘활동’하는 청년들을 주목함으로써 한국 청년세대의 삶을 둘러싼 실존적 긴장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90년대 이후 항상 타자화-배제의 대상이거나 주체화-호명의 대상이었던 청년들에게서 현재 발견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의 활동이 어떻게 담론적·제도적·실천적 차원에서 구성되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청년이 표상되어온 방식과 활동 개념의 관련성, 청년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이하 청년허브)의 특수성, 청년 당사자가 지니는 실천적 지향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담론적 차원에서 활동은 정치적 운동 주체로서의 청년상이 몰락하고 문제적 노동인구로서의 청년상이 대두되면서 청년세대가 처하게 된 이중적 위기를 토대로 등장했다. 청년이라는 기표는 단순한 연령코호트가 아니라 진보, 혁신, 창조와 같은 상징들을 수반해 왔다. 4·19혁명과 80년대 민주화투쟁이라는 한국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공고화되었던 청년의 원형적 상징은, 2000년대 후반 이후 ‘88만원세대론’을 위시하여 청년의 열악한 경제적 조건을 다루는 담론의 폭발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청년 활동은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간주되면서도 경제적 생존이 가능한 삶의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고, 변혁적인 정치-운동의 주체로서도, 정상적인 경제-노동의 주체로서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청년은 사회-활동의 의미론을 통해 이중적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로 재등장하였다.

활동이라는 대안적 삶의 방식은 서울시의 경우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시장 당선 이후 변화된 청년대책과 청년관리장치로서의 청년허브의 작동에 의해 구체화·확산되었다. 2012년 이후 서울시는 창조적 노동력으로서의 청년 예비기업가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신, 청년 참여적 시정개혁을 기반으로 하여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청년대책을 지향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2013년 설립된 청년허브는 공식적으로는 청년일자리 시책을 담당하

기 위한 민간위탁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일자리 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사회적 활동과 자발적 공동체를 지원하고 청년 개개인을 적극적 시민이자 혁신적 활동가로 양성하는 공간으로 작동한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청년의 주체화 기획은 공공적이고 자발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활동이라는 이상적인 삶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가능했다.

청년허브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은 활동의 당사자들은 담론적 재현과 제도적 주체화의 논리를 일부 투영하면서도, 이로는 해소될 수 없는 현장에서의 긴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이질적인 계기와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시스템 변혁의 불가능성을 인지하고 문화적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실천적 지향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일부 면담자들은 활동을 일자리에 근접한 형태로 구현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규범적 성인기 이행을 거부하고 생애설계를 재조직하려는 실험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그 대가로 사회적 인정투쟁에서의 열위와 경제적 조건의 불안을 감당하고 있으나, 삶의 진정한 의미를 획득하고자 하는 성찰적 투쟁 속에서 활동을 지속한다. 이들에게 활동은 객관적으로 불안한 조건 위에서도 지속가능한 삶과 집합적 미래를 주관적으로 꿈꾸게 허락하는 유일한 생존 전략으로서 선택된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시대적 연구대상을 다루는 데에서 발생하는 난점과 질적 연구가 수반하는 필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청년이라는 집단을 일반화하려는 사회적 기획들을 넘어 특정한 시공간에서 만들어지는 특정한 유형의 청년들을 주시하고자 하였다. 개념적으로 활동은 경제적 노동도 정치적 운동도 아니지만, 노동의 영역에서 상실된 의미와 운동의 영역에서 상실된 지속가능성을 함께 복권하려는 혼종적 실천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는 주체화-시키기로서의 통치성 기획과 주체-되기로서의 성찰성 기획이 맞물리며 긴장을 빚어내는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활동하는 청년들의 삶을 지배하는 이 딜레마는 어떻게 해소될 수 있으며, 그 전망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논의가 가능한 공간을 열어내고자 하였다.

주요어: 청년, 활동, 담론,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통치성, 성찰성
학 번: 2012-20082

목 차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선행연구 검토 ····· 4
1) 청년담론과 이행기 청년 ····· 4
2) ‘위기의 청년’과 청년에 대한 통치 ····· 7
3. 이론적 자원 ····· 9
1) 담론과 정체성 ····· 9
2) 성찰성과 통치성 ····· 11
4.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 14
1) 연구 대상 ····· 14
2) 연구 방법 및 분석틀 ····· 16

Ⅱ. 청년 표상의 의미변동 ····· 19
1. 운동 주체로서의 청년 ····· 19
1) 4·19, 80년대와 원형적 상징의 위기 ····· 19
2) 탈정치화 담론의 등장과 반복 ····· 22
2. 문제적 노동인구로서의 청년 ····· 24
1) 청년백수와 니트(NEET)족 ····· 25
2) ‘88만원세대’와 위기의 청년 ····· 27
3.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청년의 발견 ····· 30
1) 청년과 사회적경제 ····· 30
2) 청년활동가의 영웅화: 반란 없는 혁신 ····· 33

Ⅲ. 청년 활동의 제도적 조건 ····· 37
1. 청년실업대책의 흐름(1998~2013) ····· 37
1) IMF 이후의 청년실업대책(1998~2007) ····· 37
2) 창업·창직 정책과 사회적경제(2008~2013) ····· 40

2. 서울시의 청년대책과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 45
1) 청년 참여적 시정개혁과 청년고용대책의 재의미화 ····· 45
2) 청년관리장치의 형성: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 49
(1) 청년허브의 고안 ····· 49
(2) 청년허브의 작동 ····· 52
(3) 세부 사업 분석: ‘청년참’과 ‘청년혁신활동’ ····· 56
3. 청년허브의 역할과 ‘활동’의 의미론 ····· 63
1) 청년 참여와 시민운동의 제도화 ····· 63
2) ‘활동’의 의미론 ····· 67

Ⅳ. 청년 활동가의 실천과 서사 ····· 73
1. 활동가의 문제의식과 실천적 지향 ····· 73
1) 활동의 계기: 창업에의 열정 또는 자본주의 비판 ····· 73
2) 시스템 변혁의 불가능성과 문화적 변화의 가능성 ····· 81
2. 활동을 통한 노동의 재구성 ····· 86
1) 규범적 성인기 이행의 거부 ····· 86
2) 자율적 노동의 명암 ····· 94
3. 활동가의 대응 전략과 자아정체성 ····· 97
1) 자기성찰적 주체들의 진정성 추구 ····· 97
2) 생존 전략으로서의 활동 ····· 102

Ⅴ. 결론: 활동하는 삶의 지속가능성 ····· 106

참고문헌 ····· 111

Abstract ····· 121

표 목차

[표 1-1] 면접대상자 특성 ····· 16
[표 3-1] 청년실업대책의 주요 추진경과(2003~2007) ····· 38
[표 3-2] 청년실업대책의 주요 추진경과(2008~2012) ····· 40
[표 3-3] ‘창조적 청년기업 10,000개 육성’ 사업 2013년도 정책과제 중 ····· 44
[표 3-4] 서울시 청년대책의 주요 추진경과(2011~2013 희망시정) ····· 45
[표 3-5] ‘청년일자리허브 조성’ 정책추진과정 비망록 ····· 51
[표 3-6] 청년허브 주요 사업 개요(2013) ····· 54
[표 3-7] 청년허브 주요 사업 유형화 ····· 55
[표 3-8] 청년허브 설치·운영계획 운영 체계 중 청년 일자리 관련 단체 ····· 67

그림 목차

[그림 1-1] 청년 활동의 의미론과 구성 기제 ····· 18
[그림 2-1] 1997년 이후 대통령선거 청년층·전체 투표율 추이 ····· 24
[그림 3-1] 청년층 실업률 추이(1996~2013) ····· 39
[그림 3-2] 청년층 고용률 추이(1996~2013) ····· 39
[그림 3-3] ‘청년참’이 개인(또는 커뮤니티)에 미친 영향 ····· 59

Ⅰ. 서론

1. 문제제기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청년’은 한국사회의 가장 논쟁적인 집단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2007년 출간된 『88만원세대』와 2008년의 대규모 촛불집회를 촉매제로 하여 정치적으로 무기력한 청년세대에 대한 질타와 이들의 불안정한 경제적 조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동시에 분출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의 홍보가 일종의 의무가 되었으며 출판계에서는 ‘청춘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이들을 주 독자층으로 상정하는 자기계발서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일베’를 위시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는 집단도,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하고 획일적인 스펙 쌓기의 쳇바퀴를 도는 집단도 청년으로 지목되었다. 요컨대 ‘위기의 청년’(youth-at-risk)은 전사회적으로 공유되는 불안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청년은 항상 타자화-배제의 대상이거나 주체화-호명의 대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문제적 집단으로서 청년의 부각 자체는 그리 특수한 현상이 아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과 빈곤, 성인기 이행의 유예 등의 동일한 문제를 일찍이 경험한 국가들에서는 90년대부터 이미 청년사회학(sociology of youth) 분과가 확립되는 등 활발한 학술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Wyn · White, 1996; Furlong · Cartmel, 1997; Arnett, 2000 등). 그럼에도 당대에 부각되는 청년의 문제화가 특수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세대라는 범주가 ‘존재’하기보다는 ‘사용’되며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는 타자에 의해 호명되는 측면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자본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박탈되어 있는 청년세대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범람하는 ‘위기의 청년’ 담론에 대해 정작 청년세대 당사자들이 무관심하거나 거부감을 표출하는 현상 역시 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청년이라는 집단을 20~30대를 지칭하는 단일한 생물학적 연령코호트이거나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한 생애단계로만 이해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들로 환원되지만은 않는 층위에서 사회적 기표와 상징

으로서 작동하는 청년의 의미론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세대는 코호트와 차별화되지 않는 분석범주이거나 계급에 의해 무화되는 담론적 허구라는 비판(신광영, 2009)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즉 청년에 대한 연구에서 검토되는 지점은 해당 연령집단의 개별적 특성의 분석을 넘어, 특정한 시공간 내에서 청년이라는 대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프레임화하는 사회적 기획들의 배치와 이에 대한 행위자의 대응 전략까지로 확장되어야 한다. 아리에스가 근대의 가족과 교육제도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호되고 훈육되어야 하는 존재로서의 '아동'이 탄생했는지 그렸듯이(아리에스, 2003) 개인의 생애단계가 가지는 의미는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사회적으로 공고화된다. 청년의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단순히 그 용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상황에서 '청년'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밝혀"(이기훈, 2005: 11)내는 것이다. 한 시기에 청년을 지배적으로 표상하는 의미론은 무엇인가? 누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러한 의미론을 생산하고 유포하는가? 이는 행위자의 의식과 실천에 어떻게 파고드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국 당대의 청년의 삶이 어떠해야 하며 또 어떠할 수 있는지 구획 짓는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변혁을 위해 분투하는 운동 주체로서의 청년, 신자유주의적 승자독식경쟁을 돌파하는 자기계발 주체로서의 청년, '잉여'이자 실업자로서의 청년, 일탈하는 청년, 도전하는 청년, 냉소하는 청년, 꿈꾸는 청년, 이들에 대한 범람하는 표상은 자신의 삶을 직접 기획해나갈 것을 요구받는 후기근대사회의 청년들이 조회하게 되는 의미망을 형성한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청년세대의 삶을 둘러싼 실존적 긴장이 가장 첨예하게 발견되는 장으로서의 '활동'하는 청년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활동이란 무엇인가? 정치적 청년의 몰락과 경제적 청년의 잠식이라는 큰 흐름을 거치고 난 후 사그라진 것처럼 보이던 청년담론의 열풍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운 전환기를 겪고 있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88만원세대론'과 '20대 포기론', '삼포세대론'의 디스토피아적 진단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그 틈새에서는 정치적 청년/탈정치적 청년, 경제적 생존 경쟁에서 성공한 청년/실패한 청년의 이분법을 초월하는 '제3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움직임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청년 사회적기업가, 소셜이노베이터, 소셜디자이너, 마을활동가

등 이미 대중적으로 익숙해진 청년 집단들은 이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혹은 발명된 주체들이다. 노동과 운동이 공존하는 행위, 환언하면 먹고 살 수 있으면서도 사회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행위, 그리고 때로는 노동이나 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없지만 소규모 공동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의미를 추구하는 행위들이 모두 느슨하게 활동 내지 사회적 활동이라 불리고 있다. 활동이란 배제하기보다는 포섭하는 범주이다. 물론 이는 비단 청년세대에게만 해당되는 행위 유형은 아니나, 청년을 그 주체로 재현하고 호명하는 담론은 최근 몇 년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전까지의 청년 문제의 핵심이 운동하는 주체로서의 청년 호명 실패이자 노동하는 인구로서의 청년 관리 실패를 지시하고 있었다면, 청년 활동가들은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거나 마을공동체를 재건하고,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나 대안적 생산양식을 개발하는 등의 길을 통해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존재로 의미화되었다. 청년세대의 좌절과 절망적인 미래에 대한 진단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자기계발과 힐링만이 유일한 선택지로 보이게 했던 기존의 상황에서, 이러한 실천적 활동들의 등장은 국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 나아가 시민사회의 실패에 대한 청년 주체의 해결책으로 급부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한국사회에서 청년에 대한 사회적 기획이 변동해온 흐름 속에 위치시키고, 그 제도적 조건과 실천적 행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주시되는 것은 2011년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서울시장 당선 이후 변화된 청년대책과, 이를 실현하고 당사자를 지원하는 기관인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이하 청년허브)이다. 2013년도 설립된 청년허브에서 진행해 온 일련의 사업들은 이곳이 지방정부의 청년 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단순히 기존의 청년고용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시각과 배치된다. 청년허브는 활동이라는 삶의 방식을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그 확산을 장려하는 장치로 기능하며,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분투하고 있던 활동하는 청년들의 역량을 집약시키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제도는 항상 특정한 주체성을 성공적으로 생산해내지는 못하며, 따라서 행위자에게는 실천적 가능성의 공간이 주어진다. 제도의 수신자이자 실천의 당사자인 활동하는 청년들은 각자의 생애사와의 연관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성찰하고 해석한다. 이들은 제도적 관리에 평면적으로 조응하는 대신 보다 넓은 생활세계적 대응 전략 속에 자신의 행위를 위치시키는

과정을 통해 활동의 의미를 전유한다. 청년허브가 청년 당사자에게 국가적 실업문제를 책임화하려는 통치 전략이거나 혹은 대안적 시민운동의 제도화된 형태일지라도, 행위자들에게는 이로써 설명되지 않는 여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본 연구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부각된 청년 활동을 둘러싼 담론, 제도, 실천이 교차하는 하나의 '역설적 시공간'(전상진·정주훈, 2006: 263)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단면을 구성하는 긴장을 통해 오늘날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세대가 삶을 재구성해나갈 때 마주하는 딜레마를 압축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활동이 어떻게 지금 이곳의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꿈꾸어지고 있는지 포착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을 명료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존의 청년 연구 지형과의 관계 속에서 위치 짓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년에 대한 연구관심이 비교적 최근에 촉발된 국내와는 달리, 해외 학계에서 '청년사회학(sociology of youth)'은 하나의 정립된 분야로 인식되어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의 작업들이 축적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1) 사회학적 청년 연구로 분류될 수 있는 소수의 국내 연구들과 2) 해외의 청년사회(과)학 연구 중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들의 시사점을 검토하도록 한다.

1) 청년담론과 이행기 청년

국내의 사회학적 청년 연구 중 첫 번째 흐름은 90년대에 시작된 한국의 세대사회학적 논의 가운데 청년 문제에 집중한 연구들이다. 세대사회학의 도입은 9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걸쳐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었던 '신세대' 논쟁이 학계에 미친 영향과 무관하지 않으며, 당시 청년은 기성세대와는 차별화되는 의식과 하위문화를 지닌 새로운 집단으로 탐구되거나(박재흥, 1995) 사고방식·행위양식에 있어 기성세대와 갈등을 일으킬 여지

가 다분한 집단으로 우려되는 방식으로 등장했다(박재흥, 1992). 이후에도 세대사회학은 한국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이슈화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대표적으로 2000년대 후반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와 '88만원 세대' 논쟁과 연관된 연구들(박재흥, 2009; 전상진, 2009; 전상진, 2010)이 있다.

이 가운데 박재흥(2009)과 전상진(2010)의 최근 연구는 이전까지 주로 다루어졌던 연령적으로 구분된 청년세대 구성원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호칭과 담론의 의미영역[1]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청년 연구의 새로운 전환을 보여준다. 박재흥은 세대담론이 자신이 속한 세대나 다른 세대에 대한 인식, 감정, 행동성향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세대담론이란 궁극적으로 그 의미들의 형성과 변화, 그 정치·경제·문화적 배경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대명칭이라는 기표가 다중적 의미를 담게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2009: 13-14). 담론의 측면에 시선을 돌리면 어떤 세대론이 해당 세대를 제대로 재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둘러싼 논쟁의 함정에 빠지는 대신 "누가 왜 세대를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호명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2] 한편 전상진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다 깊게 파고들어가, 독일의 대표적인 세대담론의 의미론적 구조를 분석하여 한국의 '88만원 세대론'과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담론의 구조는 담론에서 재현되는 대상과 이를 재현하는 화자의 관계, 위기로 진단되는 현상과 그 원인, 갈등의 양태, 추동 세력으로 호명되는 집단, 주된 적으로 상정되는 대상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88만원세대론'은 일종의 세대경쟁 환원론으로서, "위로부터의 세대갈등"을 "연출"하여 정치투쟁을 위해 세대를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독일의 세대투쟁론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2010: 144).

두 번째 흐름은 청년 당사자들의 경험과 서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

1) 표상과 담론으로서의 청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국문학과 역사학에서 이루어져왔다. 소영현(2005; 2012), 이기훈(2005), 김지영(2011), 최성민(2012) 등 참조.

2) 박재흥은 세대명칭을 생산하는 3대 주체를 대중매체, 기업과 광고기획사, 정치권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끊임없이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일차적 목적은 대중매체의 경우 시대 풍속과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편, 기업과 광고기획사의 경우 마케팅 대상의 층화를 통한 판매 확대와 이윤 증식, 정치권의 경우 유권자의 분할 포섭이라는 선거 공학적 계산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한다(2009: 14).

질적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청년을 둘러싼 세대론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온 청년 집단을 조명하거나(정수남 외, 2012), 노동시장에 국한된 논의를 넘어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생애를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접근하는 등(김영·황정미, 2013) 이전까지 학문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했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수남 외(2012)의 연구는 '88만원세대' 논의를 시작으로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는 이른바 '청춘론'들이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빈곤계층 청년들을 주목함으로써 세대의 담론적 영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청춘'을 위한 소위 '성공한' 혹은 '유명한' 기성세대들의 각종 이벤트들, '위로', '열정', '도전', '비판', '희망과 공감' 등의 키워드를 내세워 청년들과 '소통'하려는 시도들(2012: 36)에서 거론되는 대상자들은 제한된 범주의 청년이다. 즉 이러한 기획들에서 묘사되는 청년들, 구조적 모순들의 압력 하에서 사회의 독립된 주체로의 성장이 유예되고 자아정체성 구축이 불안정해진 청년들이란, 선진산업국가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이 급변하면서 새롭게 '발견'되고 '생산된' 주체들이다(2012: 38). 그러나 이른 나이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해야만 하는 빈곤계층 청년들에게 이러한 '청춘의 유예'란 애초에 개념적으로 성립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담론상의 위안과 독려가 아니라 이들의 생애 전반을 파악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경험을 다루고 있는 김영·황정미(2013)는 정수남 외(2012)의 연구가 면접 대상을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청년층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청년들의 진로 설정과 생애계획의 수립, 새로운 일대기(biography)의 형성 여부와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2013: 218). 그 결과로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라는 두 현상이 발견 및 제시되는데, '요요 이행'이란 이들이 이행기에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횡적으로 다양화되기보다는 단선화된 경로 안에서 앞뒤로 오가는 굴곡진 궤적을 보임을 의미하며, 'DIY 일

대기’란 이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개인적 선택이 사실상 부족한 자원, 사회적 제도간의 모순에 직면해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임을 의미한다(2013: 254). 그럼에도 이들이 만난 청년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관찰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청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단지 취업 가능성이나 고용 구조에만 편중된 상황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주관적 서사, 문화적 욕구, 일상의 구성과 관계망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한다(2013: 255).

2) ‘위기의 청년’과 청년에 대한 통치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담론 분석의 대상이 된 ‘88만원세대론’, 정수남 등(2012)이 묘사하는 각종 ‘청춘론’의 범람, 김영·황정미(2013)가 지적하는 이행기 청년의 위기는 모두 한국의 변화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청년’이라는 집단 자체가 문제화(problematization)되는 현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후기근대사회”(김영·황정미, 2013: 216) 내지 “후기근대자본주의사회”(정수남 외, 2012: 38)로 진단되는 일련의 시대적 흐름은 그러한 시간성을 경험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노동시장 진입, 정체성 형성, 생애 설계 등 삶을 구성하는 제 측면에 있어서 시작 단계에 놓인 청년들에게 더욱 민감하게 수용된다. 청년실업, 정체성 유예, 이행 불안정과 같은 청년의 각종 문제적 상황은 선진산업국가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위기의 청년(youth-at-risk)’이라는 개념 하에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현상이며, 청년 연구가 양적으로 폭발하는 계기가 된 바 있다(Wyn·White, 1996; Arnett, 2007; France, 2000; France, 2007; Furlong·Cartmel, 2006; Furlong ed., 2009; Kelly, 2001; 2006 등).

한편 이러한 ‘위기의 청년’은 사회과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앞서 이들을 사회의 취약계층이자 위험집단으로서 인지하고 관리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국가정책적 시선에 먼저 포착되었다. 영국과 호주 등 청년정책의 역사가 오랜 국가들에서는 변화하는 청년관리방식을 통치성(governmentality) 논의의 시각에서 비판하는 연구들이 주기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

로 베상트(Bessant, 2003: 2004)는 이미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에서 정책적 클리셰(policy cliché)가 된 '청년 참여(youth participation)'를 촉진하는 정책들이 사실상 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를 증대시키는 시민권의 테크놀로지이며, 국가가 처리하고자 하는 문제를 유발하는 집단을 사회에 재연결시켜 이들을 통치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Bessant, 2003: 88). 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용되고 수행되는 이유는 청년 참여가 제3의 길 정치(Third way politics), 즉 신자유주의 경제에 기반한 재정 정책과 공동체주의적·개혁주의적으로 수용가능한 사회 정책의 혼합 속에서 참여, 사회적 연대, 시민권, 사회자본, 마을만들기, 공동체 구축 등의 언어를 통해 표현되었기 때문이다(Bessant, 2003: 90).

브랙(Bragg, 2007)의 연구는 더 나아가, 청년 당사자들의 참여와 발화를 장려함으로써 해방적 기획의 일환이 될 것이라 여겨졌던 제도적 장치들의 작동이 본질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기업가적 주체화 과정이라고 지적한다. 성찰적으로 행위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그에 책임을 지는 주체로 청년들을 호명하는 과정은 지속적인 자기반성과 자기관리를 통해 신경제 시대의 이상적인 인간상에 적합한 개인들을 길러낸다(Bragg, 2007: 352). 이는 이미 연령, 젠더, 계급, 인종 등을 통해 계층화되어있는 청년들 사이에 새로운 위계를 설정하여 주체화 과정에 동참하지 않는/못하는 집단을 배제하는 효과를 낳으며, 동참하는 개인들에게는 이후의 실패 역시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규범을 학습시킨다(Bragg, 2007: 356).

지금까지 검토한 연구들은 거칠게 분류하자면 각각 청년의 담론, 생애 및 정체성, 통치라는 영역에 관한 작업들이며, 곧 청년에 대해 말해지는 것, 청년이 경험 및 성찰하는 것, 청년을 관리하는 제도를 다루는 연구들이다. 이들은 각 영역에서의 청년과 그 사회적 조건을 성공적으로 연결시킨다. 동시에 각 영역이 유의미하게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백이 된다. 청년 담론은 청년들의 경험 중 무엇을 재현하고 무엇을 재현하지 않는가? 국가의 변화된 통치 방식은 청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수용되는가? 청년 담론과 청년 제도는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청년'을 둘러싼 특정한 의미론적 배열

을 다양한 기제들이 작동하는 하나의 사회적 공간으로서 잘라내어 중심에 놓는 분석틀의 재조직화가 요청된다. 요컨대 본 연구가 유의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의 '청년'은 그 내용(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청년[3])뿐 아니라 형식(담론·제도·실천이 교차하는 공간으로서의 청년)에서도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을 가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3. 이론적 자원

1) 담론과 정체성

사회학에서의 세대 개념이 연령코호트와의 동의어가 아니라 사회적·역사적으로 만들어지는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이란 20~30대에 속한 개별 구성원들이 지니는 특성의 총합이 아니라 특정한 의미론이 투영되는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된다. 사회이론의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 이후 언어는 단순한 재현과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의미를 구성하는 실천으로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사실로서 간주되었다. 담론 이론은 이러한 인식 전환의 확장 속에서 발전했다.

페어클럽은 담론을 사회적 실천의 한 형태[4]로서의 언어 사용으로 보며, 여기서 텍스트는 세계에 대한 인식과 표상,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사회 과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회적 공간이다(Fairclough, 1995). 담론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

---

3) 사회적 활동이란 아직 학문적으로 충분히 개념화되지 않은 것으로서, 이러한 영역에 속하는 청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사회적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논해져왔다. 일터로서의 사회적기업을 다루는 사회학/사회복지학 학위논문(박주연, 2010; 최승훈, 2011; 김현민, 2012)과, 청년진로개발/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을 다루는 교육학적 연구(정연순, 2011),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을 다루는 경영학적 연구(이신모, 2009; 박해긍, 2011) 등이 존재한다.

4) 하비는 사회적 과정을 담론/언어, 권력, 사회관계, 물질적 실천, 제도/의례, 신념/가치/욕망이라는 여섯 가지 계기의 변증법적 작용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Harvey, 1996), 페어클럽 등은 이 논의를 받아들여 담론을 물질적 행위, 사회적 관계와 과정, 정신적 현상과 같은 여타의 계기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실천으로 자리 매기고 있다(Chouliaraki·Fairclough, 1999: 61).

라 실재 세계와는 다른 가능성의 세계를 표상하는 투사이자 상상이기도 하며, 이는 특정한 방향으로의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획들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Fairclough, 2003: 124). 하나의 특정한 담론은 무엇이 존재하는지, 무엇이 실제의 경우인지,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실제의 경우가 될 것인지 등에 대한 가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담론적 헤게모니의 추구는 곧 특정한 의미를 보편화하는 작업을 추구하는 것이다(페어클럽, 2012: 142). 공적으로 형성되고 유통, 순환되는 담론들은 이들 담론을 지지하거나 채택하는 이에게 특정 주제나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틀 내지 필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물이나 사건을 보는 입장과 시각이 만들어지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담론화된 진실'과 현실이 형성될 수 있다(Bennett, 1998; 이기형, 2006: 119에서 재인용).

곧 청년에 대한 담론은 '청년적인 것'의 의미를 형성하고 이를 실제의 행위자에게 투사함으로써, 특정한 연령대의 재현을 넘어 청년에 대한 신념, 기대, 소망, 우려가 뒤섞인 하나의 사회적 상상으로 기능한다. 이는 나아가 청년 당사자에게는 유동적인 세계(바우만) 속에서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구성해나가는 어려움들에 있어 전거로 삼는 하나의 의미론적 자원으로 작동한다.

현대의 정체성 이론[5]에서 정체성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개인에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과정이다(Jenkins, 2008[1996]: 5).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인가의 문제는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인 구성물(바커・갈라신스키, 2009: 46)이며 담론적으로 수행되는 것(Butler, 1999)이다. 대표적으로 홀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주체와 담론적 실천 사이의 관계를 명료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한다(Hall, 1996: 2). 정체성은 구체적인 담론구성체 및 실천의 구체적인

5) 브루베이커와 쿠퍼(Brubaker・Cooper, 2000: 6-8)는 학계에서 사용되는 정체성 개념의 용법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1) 사회적・정치적 행위의 토대로서 이해관계(interest)와 대비되는 개념. 2) 집합적인 현상으로서, 한 집단이나 범주의 구성원들 사이의 근본적이고 필연적인 동일성. 3) 개인적이거나 집합적인 자아의 핵심적 측면이자 사회적 존재의 근본적 조건. 4) 사회적・정치적 행위의 생산물로서, 집단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집합적인 자기이해와 연대의 과정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발전. 5) 서로 경쟁하는 다양한 담론들의 생산물로서, 현대적 자아의 불안정하며 유동적이고 분절된 특성을 지시. 본 연구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정체성 개념은 청년담론으로서의 2)와 당사자의 성찰로서의 5)이다.

역사적·제도적 장소 속에서, 구체적인 언명의 전략을 통해 생산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4). 홀에게 있어서 정체성이란 우리를 특정한 담론의 사회적 주체로서 불러들임으로써 '호명'(interpellation)을 시도하는 담론적 실천과, 우리를 '말해질 수 있는' 주체로 구성하는 주체성 생산 과정 사이의 접합 지점이다(5-6).

요컨대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범주로서의 청년에 대해 발화되는 언설들과 당사자가 청년으로서 이해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청년세대의 구성원들이 담보하는 자명성에 근거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기에 따른 청년 표상의 의미 변동을 본다는 것은 청년의 실제적인 변화가 반영된 표상뿐 아니라 청년에 투사되는 상징, 청년을 호명하는 전략, 청년을 구성해내는 사회적 기획의 변화를 보는 것이 된다.

2) 성찰성과 통치성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청년 활동가의 행위와 이들을 외부에서 관리하는 제도의 교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체-되기로서의 성찰성 기획과 주체화-시키기로서의 통치성 기획의 접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든스(1997)가 진단하는 탈전통사회 내지 후기근대사회의 맥락에서 자아는 행위자가 스스로 노력을 들여 만들어나가야 하는 성찰적 기획(reflexive project)이 된다. 개인적 삶의 전환에 요구되는 자아의 재조직화가 통과의례의 형태로 의례화되어 있었던 전통적 사회와는 달리, 후기근대적 인간에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137)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이에 응답하는 것이 삶의 핵심적인 문제로 설정된다. 성찰적 인식을 전제하는 자아란 단순히 개인의 행위체계의 연속성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찰적 활동 속에서 창조되고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109). 안정적인 자아정체감, 곧 '나'를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특정한 서사를 계속 진행시킬 수 있는 능력"(112)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기적 서사(biographical narrative)를 써나가기 위해 개인은 외부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아를 둘러싼 이야기 속으로 해석해 넣는다. 성찰을

통해 구축된 전기적 서사가 스스로에게, 또한 타인에게 이해가능한 담론과 행위로 제시될 때, 개인은 '진정한' 자신을 아는 사람이 된다.

자신에게 몰입하는 주체는 현대사회의 자아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견지하는 이론가들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세넷(Sennett, 2002[1977])은 '공적 인간의 몰락'을 논하며 현대의 '나르시시즘'적 에토스를 비판한다. 나르시시즘은 자아 내의 영역과 외부 세계의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몰두의 태도로서, 매 순간 "이 사람이, 이 사건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문제에 집착하게 한다(8).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실현가능한 탐색이 아니라 자기도취적 몰입의 표현이기 때문에 좌절될 수밖에 없는 시도가 된다. 세넷의 논의를 참조하며 '나르시시즘의 문화'(Lasch, 1979)를 논한 바 있는 래쉬는 이후의 저작(Lasch, 1984)에서 이를 '생존주의의 문화'로 정정한다. 현대사회의 생존주의적 멘탈리티, 즉 선택적인 무관심, 타인과의 감정적 유리, 과거와 미래의 포기, 하루하루씩 살아가겠다는 결심 등 감정적으로 자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테크닉(58)은 결국 자기애 또는 자기도취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외부세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적으로 분리하는 '최소 자아(minimal self)'에 불과하다.

기든스는 이와 같은 문화 진단이 인간 행위자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역설한다. 여기서 개인은 압도적인 사회적 힘 앞에서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그러나 기든스가 보기에 인간 행위자는 행위의 외적 조건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들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며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조건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주체이다(284). 이는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집합적 차원에도 해당하며, 현대의 조건에서는 사회생활의 성찰성이 심화됨에 따라 집합적 전유의 영역들이 다수 존재한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통제하려는 성찰성의 욕구는 개인을 사회적 맥락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끔 한다. 후기근대사회는 개인의 행위를 불모화시키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전유할 수 있게 하기도 하며, 기회와 위험이 혼합된 세계를 창출하지만 결코 침투할 수 없는 환경을 이루어내지는 않는다.[6)]

---

6) 이는 벡과 벡-게른스하임의 개인화 테제 및 일대기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벡,

기든스에게 있어서 해방, 혹은 최소한 자기실현의 한 형식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이 현상이 푸코에게는 규율권력이 행사되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간주된다(Buckingham, 2008: 9-10). 주체로서의 내가 객체로서의 나를 응시하고 성찰하며 표현하는 행위는 서양의 역사에서 인간의 자발적인 예속화를 초래한 작업, 곧 인간을 '주체-신민(subject)'으로 설정하는 '고백'의 근대적 형식이다. "누구나 현재의 모습, 행한 것, 기억하는 것, 잊어버린 것, 숨기는 것, 감춰진 것, 생각하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푸코, 2010[1990]: 68)까지 말해야 한다는 고백의 의무는 진실을 생산하기 위한 권력의 장치이다.

푸코는 197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일련의 작업(푸코, 2011, 2012; Foucault, 1982, 1986, 1988, 1991 등)에서 자유주의 권력에 대한 통치성(governmentality) 분석을 행하는데, 『안전, 영토, 인구』 강의에서 정의된 통치란 지도적 권위가 "개인들의 일생 전반에 걸쳐 그들을 인도하려는 활동"(푸코, 2011: 485)을 의미한다. 통치성이란 특정한 지식 혹은 사고양식을 통해 행사되는 권력이자 푸코의 보다 간결한 규정에 따르면 '품행의 통솔(conduct of conduct)'이다. 통치성 분석의 핵심은 "통치 대상을 구성하고 거기에 권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지식과 진리의 체제가 작동하는가"(김주환, 2012: 214) 하는 지식과 권력의 관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자신을 권력에 예속된 주체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변형하는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주체로서 살아가도록 이끄는 힘"(서동진, 2011: 77)인 주체화의 윤리이다.

요컨대 푸코가 보기에 주체의 계보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배의 테크놀로지와 자기의 테크놀로지 사이의 상호작용"(Foucault, 1993: 203)을 주시해야 한다. 통치성 개념으로 신자유주의를 분석한 이후의 논의들은, 신자유주의적 통치 형태가 개인들을 책임지지 않으면서도 이들을 제어하는

2006; Beck · Beck-Gernsheim, 2002; 벡, 2013 등). 한편 래쉬는 "오늘날의 정보사회, 즉 계급 양극화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계급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사회"에는 기든스와 벡이 제시하는 성찰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성찰성의 승자들'과 더불어 다수의 '성찰성의 패자들'이 존재하고 있"(기든스 · 벡 · 래쉬, 1998: 177)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컨대 도시 빈민가에 사는 미혼모가 어떻게 '성찰적'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한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자유가 계급적으로 차등화된다는 이러한 지적은 굉장히 중요하며, '성찰적 주체'로서의 청년을 양성함으로써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통치 전략에 대한 핵심적인 비판이 될 수 있다.

간접적 테크닉을 발전시킨다는 점을 지적한다. 개인을 ‘책임 있는’ 주체로 만들어내는 전략은 질병, 실업, 빈곤과 같은 사회적 리스크와 사회적 삶 자체를 이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영역으로, ‘자기-배려(self-care)’의 문제로 전환시킨다(Lemke, 2001: 201). 통치의 대상이었던 인간은 능동적으로 자신을 통치하는 개인으로 상상되며(Rose, 1996: 87), 자유란 자기충족, 자율, 선택, 자기주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으로 제한된다(Gane, 2004: 175).

기든스가 묘사하는 자기성찰성은 통치성 논의에서 자기검열이자 자기감시가 되며, 자아의 기획은 개인들이 스스로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문제로 재구성된다. 개인의 성찰적 활동을 통해 창조된다고 믿어지는 주체는 사실상 특정한 주체성과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형성해내는 통치 전략에 의해 생산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본 연구는 행위자의 성찰과 구조의 통치의 교차 지점에 주목하여, 능동적 주체로서의 청년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딜레마를 포착하고자 한다.

4.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청년의 사회적 활동이 담론, 제도, 실천의 교차 공간 속에서 구성되는 과정을 그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분석되는 자료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텍스트들이다.

첫째는 청년을 표상하는 대중적 발화, 구체적으로는 신문기사와 단행본 자료들이다. 언론은 청년에 대한 표상을 생산해내는 가장 대표적인 매체이며, 그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에서 최초의 본격적 세대담론인 ‘신세대론’이 특별기획으로 등장한 1990년대 초반부터의 신문기사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KINDS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의 검색엔진을 통해 수집했다.[7] 또한 2007년 『88만원세대』의 출간 이래로 출판계를 위시하여 전례

7) ‘청년’은 굉장히 다양한 맥락과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검색어로는 부적합했으며, 본 연구의 논지에 따라 다른 단어들과 결합하여, 또는 그 시기의

없는 청년담론 유행이 불었다는 점에 유의하여, 이후 출간된 학술서, 자기계발서, 에세이, 자기서사, 문학을 포함하여 청년세대를 주제로 한 단행본들을 검토하였다.[8)]

둘째는 청년을 관리하는 공적인 제도, 구체적으로는 청년층 대상 정책(고용노동부 및 서울시), 정책보고서,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이하 청년허브)의 시행사업과 발간물, 서울시장 연설문 등의 자료들이다. 고용노동부 정책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마당-대상자별정책-청년 항목에서 각 정책의 시행지침·운영지침·모집공고 등의 문건을, 서울시 정책의 경우는 서울시의 모든 결재문서 및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서 확보한 사업종합계획·정책추진 비망록·정책자료집·보도자료 등의 문건을 검토하였다. 2013년 설립된 청년허브는 서울시 청년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청년허브 홈페이지(youthhub.kr)에 공개된 지원사업 공고와 진행상황, 각 사업 종료 후 발간된 자료집을 활용하였다.

셋째는 청년 당사자의 실천과 서사로, 사회적 활동의 명목으로 청년허브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7개 청년단체 구성원 중 총 17명의 활동가와 면담을 진행하고 전사한 녹취록이 주 자료가 되며 연구자가 청년허브 및 각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에 직접 참여하여 확보한 자료들 역시 참고되었다. 면접대상자들은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분포된 여성 10명과 남성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세대명칭으로 검색되어 분류되었다(청년-사회적 활동, 청년-사회적기업, 청년-사회적경제, 청년-탈정치, 청년-백수, 신세대, 88만원세대 등).

8) 같은 시기에 청년은 공중파 방송의 다큐멘터리와 토론회,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했으나 본 연구에서 직접적인 분석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표 1-1] 면접대상자 특성

이름[9]	성별	연령대	학력	직업	소속단체 (시작년도)	청년허브 지원사업[10]
민해	여	20대 중	고졸	<가>단체 활동	<가>단체(2013)	혁신일자리모델 '워킹그룹'
세철	남	20대 중	대졸	<가>단체 활동		
원주	남	30대 초	대졸	<나>단체 활동	<나>단체(2012)	공간지원 '미닫이사무실'
하진	여	30대 초	대졸	<나>단체 활동		
미연	여	20대 후	대졸	<나>단체 활동		
주형	남	30대 초	대졸	<다>단체 대표	<다>단체(2013)	청년활동활성화 '청년활'
은지	여	20대 중	대졸	<다>단체 직원		
서윤	여	20대 중	대졸	<다>단체 직원		
성재	남	20대 중	대재	<다>단체 인턴		
태호	남	20대 후	대재	학생	<라>단체(2012)	청년커뮤니티지원 '청년참'
민수	남	20대 중	대재	학생	<마>단체(2014)	
세희	여	20대 중	대재	학생		
소영	여	20대 초	대재	학생	<바>단체(2013)	
정은	여	20대 초	대재	학생		
희경	여	20대 초	대재	학생		
재원	남	20대 후	대재	학생		
은영	여	20대 후	대졸	사회적기업 직원	<사>단체(2013)	

2) 연구 방법 및 분석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방법은 크게 문헌분석과 심층면접[11]이다.

문헌분석은 공적으로 발화된 언설들이 만들어내는 청년의 의미론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Ⅱ장에서 청년 표상의 의미 변화를, Ⅲ장에서 청년 관리 제도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주요 언론의 보도자료와 단행본을 자료로 한 전자에서는 시기별 내지 사건별로 변동하는 청년의 의미론적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담론과 여타 사회적 실천들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주요 청년정책 관련 문서와 기관 발간물 등을 자료로 한 후자에서는 제도의 구체적 진행과정을 정리하는 동시에 '텍스트, 담론, 이데올로기로서의 정책'(Gale, 1999: 394)의 측면을 주시하고자 하였다. 문헌

9) 면접대상자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되었다.
10) 사업별 소개는 [표 3-7]에 정리되어 있다.
11)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 연구로(승인번호: IRB No.1402/001-015), 모든 면담은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면담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은 후 이루어졌다.

분석이 단순한 기록의 수집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담론분석의 통찰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적 담론분석의 '방법'은 그 지향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방법론'으로서의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박해광, 2007: 91),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논자들이 제시하듯이 텍스트가 어떻게 사회문화적 실천 속에서 작동하는가(Fairclough, 1995)에 초점을 맞춘다는 공통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모든 담론은 역사적으로 생산되고 해석되며 특정한 시공간 속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Wodak, 2002: 3), 그 생산과 해석의 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주목할 여지를 지닌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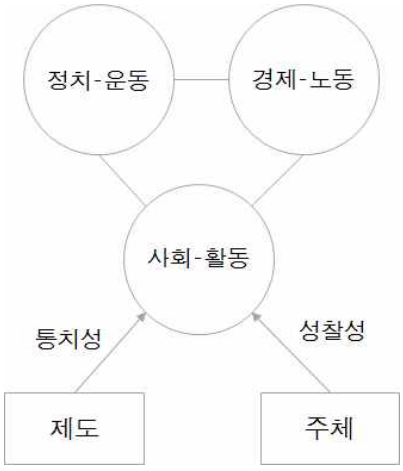
심층면접은 Ⅳ장에서 청년 당사자의 실천과 주관적 서사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심층면접을 포함한 질적 연구방법은 대상을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연구하여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의 관점에서 현상을 해석하고자 하는 방법으로서(Denzin · Lincoln, 2005: 3), 위의 문헌분석 및 담론분석은 이러한 질적 방법과 연계되어 사용될 때 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청년허브의 홈페이지와 발간물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한 청년단체들 중에서 지원사업과 활동분야에 따라 선정된 총 15개 단체에 면담을 요청하였으며, 연구 참여를 승낙한 7개 단체의 구성원 17명과 실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2014년 2월에서 3월에 걸쳐 대상자가 원하는 일시에 원하는 장소(대상자가 속한 단체의 자체 공간, 청년허브, 카페 등)에서 1시간~2시간 30분가량 실시되었다. 각 면담자가 하고 있는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자신의 활동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 이전까지 거쳐 온 생애 경로, 미래에 대한 기대, 삶의 가치관 등을 포함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되, 연구자의 질문이 면담자의 서술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면담을 진행하였다. 녹취된 구술텍스트를 연구자료로 활용하는 많은 경우 "텍스트의 부분을 인용, (재)배치하는 것에 머무른다는 비판"(이희영, 2011: 105)에서 자유롭기란 어려운 일인데, 연구자의 선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취록의 일방적인 이용이 아니라 면담자들의 구술 자체에서 드러나는 의

12) 현재의 담론분석 방법론이 주로 언어학적 요소에 대한 텍스트중심적 분석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담론분석 작업이라고 할 수 없다. 언어학적 분석은 아주 소수의 텍스트를 자료로 삼거나 질적 소프트웨어(NVivo, Atlas.ti 등)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미망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금까지 본 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분석틀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의 윗부분은 한국사회에서 청년을 표상해 온 의미론의 유형을 지칭하며, Ⅱ장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아랫부분은 그러한 의미론 중 사회적 활동의 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통치와 주체적 성찰 사이의 긴장을 나타내며, 구체적인 논의는 Ⅲ~Ⅳ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림 1-1] 청년 활동의 의미론과 구성 기제



Ⅱ. 청년 표상의 의미변동

본 장에서는 90년대 이후 생산되어 온 청년 담론을 통해 각 시기의 지배적 청년 표상의 변동을 검토한다. 한 세대를 표상하는 방식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조건에 따라 등장하고 쇠퇴한다. 그러나 새로운 의미론이 기존의 의미론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청년 표상은 서로와 대립하면서 담론적 투쟁의 장을 형성하거나 서로를 보완하며 발전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청년이란 탈맥락적으로 등장할 수 없었으며, 정치적 운동 주체로서의 청년상과 경제적 노동 인구로서의 청년상과의 의미연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 운동 주체로서의 청년

1) 4·19, 80년대와 원형적 상징의 위기

사회사가들에 따르면 '청년'이라는 범주는 근대의 발명품이다(Gillis, 1974; Mitterauer, 1992 등). 서구의 경우 이는 의무교육의 수료 후부터 임금노동으로 진입하기 전까지의 이행기가 확장되면서 발생한 현상을 지칭한다(Buckingham, 2008: 4). 한국의 경우 역시 청년은 근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식민지시기를 거친 한국의 근대는 청년의 등장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였다. 1920년대의 사회정치공간 속에서 청년이라는 세대적 주체는 "조선민족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상징하였고 나아가 민족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주체로서"(이기훈, 2005: 215) 도입되었다. 즉 청년을 노동의 공백기로서 발견했던 서구와는 달리, 청년이 국민국가 건설의 요체이자 부모세대로부터 독립한 자립적인 계몽 주체로 개념화된 것은 한국의 근대가 낳은 특수한 역사적 사실이다(김지영, 2011: 146). 구습적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창조적 파괴 열정의 표상으로 호출된 (신)청년이란 곧 "미래를 담지하는 상징적 주체"(소영현, 2005: 42)의 이름이었다.

청년이 그 이름에 부응할 수 있는 조건을 박탈당하고 전쟁과 이념 대결의 도구로 '활용'되었던 해방과 전쟁의 '암흑기'(최성민, 2012: 234)를 지나, 이들은 1960년 4·19혁명을 계기로 하여 다시금 사회의 새로운 세대로 부각된다. "지성과 양심의 엄숙한 명령으로 하여 사악과 잔학의 현상을 규탄광정하려는 주체적 판단과 사명감"으로 "상아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대학생, "진정한 민주역사 창조의 역군"으로서의 "청년학도",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하는"[13] 책무를 지닌 주체로 선언되었던 이들은, 비록 4·19를 이끈 학생집단이 청년의 한 분파, 특히 엘리트 대학생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현대 한국 청년의 원형적 상징으로 구축되었다.

"불의와 독재에 저항하고, 진리와 자유에 헌신하며, 민족과 역사를 앞장서 이끌어나가는"(주은우, 2004: 87) 당시의 청년상은 군부 독재 하에서 이루어진 산업화 시기의 저항적 주체로서, 이후 80년 광주와 87년 민주화 투쟁이라는 상징적인 사건들을 통해 더욱더 공고화된 사회적 기억으로서 공유된다. '80년대'는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고(김원, 2011: 10), 80년대에 청년기를 보낸 소위 '386세대'는 권위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인습적 고정관념들을 점검하는 문화를 정착시킨 탈인습적인 세대(한상진, 2007: 14)로 평가되었다. '386세대'로 호명된 집단 역시 '4·19세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세대의 특정한 분파였음에도, 이들의 집합체험은 "한 세대의 경험 지평을 넘어서 그 시대의 전형적인 태도, 가치, 규범을 형상화할 만큼 강력한 파급력"(김홍중, 2009b: 30)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다시금 정치적 진보, 사회적 저항, 도덕적 이상과 같은 속성들을 청년에 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14]

1990년대 초반은 청년 담론의 역사에 있어서 두 가지 차원의 중대한 전환이 일어난 시기이다. 첫째는 학생운동 위기 담론의 등장이다. 1991년 소

13) 순서대로 <4·19 제1선언문/서울대학교 학생회>, <4·19 선언문/고려대학교 학생회>, <4·19 선언문/연세대학교 학생회>에서 발췌(김삼웅, 2001).

14) 한편 운동세대담론은 운동세력이 지배 엘리트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재)생산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기제이며(김정한, 2006: 97), '386세대'라는 용어 역시 1996년 총선과 1997년 대선을 전후로 회자되기 시작하여 시민운동의 정치개혁론, 정치사회의 젊은 피 수혈론, 언론과 자본의 상업적 마케팅 등이 결합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된 것이라는 지적(박길성, 2002: 19-20)은 담론이 표상하는 '세대'를 넘어 세대를 표상하는 '담론'의 역사를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련 연방의 붕괴, 학생운동이 정상 정치 영역으로 흡수되는 계기였다고 평가되는 '1991년 5월 강경대 열사 치사 규탄 투쟁'(91년 5월 투쟁), 학생운동의 전면적인 참여와 패배로 귀결된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로 대표되는 일련의 흐름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학생운동의 위기라는 새로운 담론이 사회화되었다(김원, 2011: 68, 168).

둘째는 이른바 '신세대' 논의의 출현이다. 91년 5월의 분신정국으로 인한 학생운동의 쇠퇴는 바로 다음해인 92년 1월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과 미묘하게 맞물리게 되었고, 그 해 언론에서는 향락적 소비주의의 핵심 기표인 '압구정 오렌지족'이 처음으로 보도된다.[15] 이 시기에 청년세대의 정체성은 "정치적 변혁주체에서 소비지향적 감성주체"(이동연, 2004: 143)로 이동하고, 이는 이후 수년에 걸쳐 언론과 학계에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16] 박재흥은 많은 평론가와 학자들이 '신세대' 현상에 주목하고 담론생산에 참여한 이유가 이들이 그 이전 세대들과의 연속성보다는 깊은 단절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데(박재흥, 2009: 18), 여기서 이전 세대란 무엇보다 직접적인 비교집단으로서의 '386세대'인 동시에 사회 변혁을 이끌어나가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원형적 청년 상징을 지시한다. '신세대'에게 부착된 개인주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의 중시, 소비주의적인 삶의 형태, 규범으로부터의 일탈 등의 특성들은 이들을 과거 민주화 투쟁이 주는 무게감과 역사적 부채감으로부터 의도적/비의도적으로 자유로운 주체로 의미화했다(이기형, 2010: 145).

이러한 담론적 전환기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학생운동의 궤멸을 가져왔다고 평가되는 1996년 8월 한총련의 연세대 점거사태의 파급효과는 사회의

---

15) "이들은 70, 80년대 경제성장의 혜택으로 강남지역에 뿌리내린 부유층 2세와, 부를 바탕으로 해외여행이나 유학경험이 있는 유학생파가 중심을 이룬다. 이 오렌지족에게는 외제 일색의 옷차림과 풍부한 돈, 고급승용차를 소유하는 것은 필수이며, 남녀 간의 대담한 몸짓, 하룻밤에 끝내는 인스턴트 사랑은 당연한 일로 치부된다."(《한겨레》, 1992.11.7.)

16) 한국일보사 사회부에서 펴낸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1990)를 시작으로 《한겨레》의 〈집중취재 신세대〉(1993), 《경향신문》의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1993), 《동아일보》의 〈신세대〉(1993), 《경향신문》의 〈비틀거리는 신세대〉(1994)를 포함하여 다수의 기획기사들이 연재되었다. 일탈 집단으로서의 신세대론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등장한 논의로는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송재희 외, 1993),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현실문화연구, 1994), 『압구정동: 유토피아 디스토피아』(강내희 외, 199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대항체로서 ‘청년’이 지니고 있던 성격을 급격히 상실시키게 되었다(소영현, 2012: 394). 1999년 서울대에서, 2001년 고려대와 한양대 등 ‘학생운동의 메카’로 불리던 대학들에서 학생회 역사상 첫 ‘비운동권’ 학생회가 출범하면서 대학사회 내의 탈정치화 담론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2) 탈정치화 담론의 등장과 반복

‘경제의 탈정치화’, ‘군의 탈정치화’, ‘공무원의 탈정치화’ 등, 각 전문분야가 자신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동아일보》, 1999.2.8.)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주장되고는 했던 탈정치화 논의는, 대학사회의 풍토 변화와 전국·지방선거 청년층 투표율 하락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탈정치화된 청년’이라는 문제적 의미론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문제의 진단은 상실된 상징적 청년의 재-호명을 동반한다.

2000년의 한 칼럼(《한국일보》, 2000.11.13.)은 “진지한 학술토론회 개최보다는 고막이 찢어질 듯한 음악소리와 춤파티로 끝나는 대학축제”로 점철된 “대학문화를 접하면 늘 마음이 우울해진다”는 문제제기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대다수는 탈정치화했고, 소수는 관념적 급진주의에 빠져 있다”는 진단으로, 그럼에도 “청년들의 건강한 요구가 반영되는 사회만이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열어주어야 하고, 사회는 청년들의 발언을 경청해야 한다”는 제언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호명은 이회창-노무현 두 후보의 대결구도로 압축되었던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고조되는데, 당시의 한 칼럼(《한겨레》, 2002.12.10.)은 “젊은 세대의 투표참여는 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탈정치 세대”에게 “저항”할 것을, “탈정치화의 오명을 벗고 선거혁명의 주인공”이 될 것을 요구한다. “부모세대는 좀 더 보수적인 후보를 찍으라고 자식세대를 종용”하며 “젊은 세대는 역으로 좀 더 진보적인 후보를 찍으라고 부모세대를 설득하고 있다”는 전제는 청년에게 필연적 진보성을 귀속시킨다.

2002년은 한일 월드컵 거리응원과 미군장갑차 희생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라는 두 가지 폭발적 사건으로 인해 청년의 재-호명에 대한 기대치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던 해이기도 했다. 언론은 사회운동의 경험이 없는 참가자들이 투쟁의 형식이 아니라 촛불추모제라는 비폭력·평화적 방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 일제히 주목했고, "애초 '사회에 무관심한 탈정치적·이기적 세대'로 간주됐던 10~20대 등 신세대들이 촛불시위에 적극 참가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이 "기성세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월드컵 '붉은 악마'의 경험, 곧 '4강 신화'로 한껏 고양된 민족적 자부심과 '광장·거리·참여'의 기억이 젊은이들을 거리로 이끌었다"(《연합뉴스》, 2003.6.10.)는 논리는 두 사건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킴으로써 '다시 광장으로 나온 청년'이라는 표상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고, 이어진 16대 대선에서 인터넷의 젊은 지지층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 역전 신화를 만들어냈다는 분석은 이러한 표상을 공고화하게 되었다.[17]

그러나 청년의 재-신화화는 선거 국면의 종료와 함께 그 힘을 잃는다. 2003년의 한 칼럼은 현재의 20대를 "정치적 식물세대"로 표현하며 과거에 대한 향수를 나타낸다.

> 이제 20대는 진정 정치적 '식물세대'인가. 최근의 전국선거였던 지난해 12월 대선 때 20대 투표율은 56.5%에 불과했다. … 과거를 돌이켜보면 20대는 한국현대사의 '변화의 축'이었다. 일제하 광주학생운동, 4·19혁명, 80년 서울의 봄, 그리고 87항쟁까지 20대는 민족해방과 민주화를 위해 다른 세대보다 앞장선 열정을 보여줬다. 그러나 오늘날의 20대는 더 이상 '정치적인' 목표가 없거나, 있어도 공허해 보인다. 사회적 대의에는 무관심한 층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화일보》, 2003.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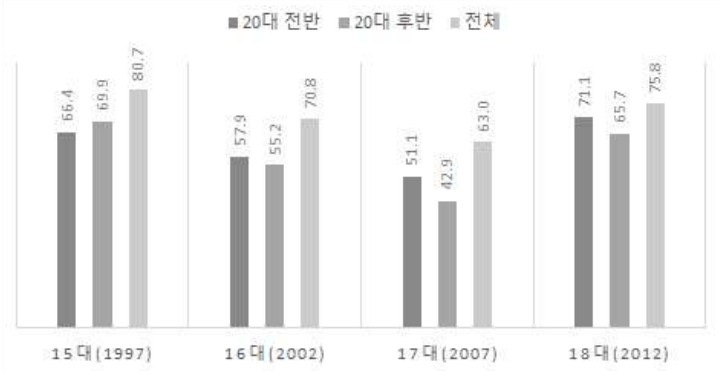
이 시기의 탈정치화 담론에서 흥미로운 것은, 20대가 탈정치화되었다는 진단이 전국선거 투표율 저하라는 제도정치 내부적 현상에 근거를 두는 반

---

17) 대선 당시 대학생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자발적 청년단체에 대한 보도들 역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려는 W세대의 특징"(《오마이뉴스》, 2002.12.13.)과 접목되어 대학생의 탈정치화 문제를 극복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면 그 반대항으로 자리 잡은 '정치적인 것'은 여전히 한국현대사에서 제도 외부에 존재했던 혁명적 청년상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운동 주체로서의 청년 의미론은 상징과 지표 사이에서 진동하고, 한편으로는 제도화된 운동과 해방적 운동 사이의 긴장을 봉합하려는 시도들을 드러낸다. 이는 이후 선거 국면에 들어설 때마다 탈정치적 청년의 위기가 다시 진단되고 정치적 주체로서의 청년이 다시 호출되는 담론적 현상으로 반복된다.

[그림 2-1] 1997년 이후 대통령선거 청년층·전체 투표율 추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재구성

2004년~2006년 사이의 탈정치화 논의가 대학 총학생회의 비운동권 당선 사례 증가, 투표율 미달로 인한 선거 무산, 서울대 총학생회의 한총련 탈퇴와 정치활동 중단선언 등[18]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한정되어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다면, 2007년 17대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능동적·저항적 정치 주체로서의 청년 표상은 다시 등장한다. 이 시기에 복기되는 기억에는 청년의 원형적 상징과 80년대뿐 아니라 2002년 대선과 촛불시위의 승리의 주역으로 평가되었던 젊은 세대에 대한 기억이 추가된다.

'2030'이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는 2002년 대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월드컵 거리 응원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촛불시

18) 《국민일보》, 〈脫정치 대학가 현실주의 강풍〉, 2005.12.2.; 《경향신문》, 〈대학가 '탈(脫)정치'의 빛과 그림자〉, 2006.5.11.; 《문화일보》, 〈서울대 한총련 탈퇴 논란 확산〉, 2006.5.26. 등.

위는 젊은 세대의 정치적 관심과 정치 참여의 질을 높이는 계기였다. 더구나 인터넷에 익숙했던 젊은 세대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의사 교환과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확산시켰다. 정치적 무관심과 탈정치적 성향의 젊은 세대가 2002년 대선에서 능동적이고 저항적 참여의 주역이 되었다면, 과연 2007년 대선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설 것인가? (《한겨레》, 2007.3.27.)

이 기사에서 "젊은 층들은 '적극적인 참여'(Participation), '열정'(Passion), '잠재적 힘'(Potential Power)을 바탕으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shift)를 주도하려는 세대적 특징"이 강하다고 표현되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들로 인해 "권위와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 기대된다. 2007년 8월 출간된 『88만원세대』(우석훈・박권일)는 청년에 대한 이러한 기대가 투사된 가장 직접적이고 도발적인 호명이자, 결과적으로는 최후의 운동 주체 호명이 되었다. 이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서 청년층의 저조한 참여[19]에 대한 실망은 2009년 일어난 '20대 포기론' 논쟁을 거치며 심화되었고, 2012년 대선 정국에서 다시 무대로 불려나오기 전까지 청년의 표상은 다음 절에서 살펴볼 또 다른 의미론에 의해 지배된다.

2. 문제적 노동인구로서의 청년

1) 청년백수와 니트(NEET)족

1997년 IMF 사태 이후 한국사회에서 실업은 구조적인 문제로 경험되기 시작하며, 언론은 구조조정과 신규채용 급감 하에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 졸업생들과 청년백수층의 형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된다. 2000년, 《한

19) 2008년 촛불시위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이갑윤, 2010: 103)에 따르면 연령별 참여율은 19-29세 13.7%, 30-39세 14.8%, 40-49세 12.8%, 50-59세 6.5%로, 20대의 참여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담론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실제 참여율의 수치가 아니라 20대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와 관찰되는 현상 사이의 격차임을 알 수 있다.

국일보》는 특별기획 <청장년 실업이 문제다>의 연재를 통해 "불운한 20대"의 초상을 그렸다. 이 기획에서는 "지난 어떤 세대보다 취업 준비에 열심이었던 이들은 굳게 닫혀버린 취업문 앞에서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을 뿐"이며, "조만간 '멀쩡한 청년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판"(2000.12.26.)이라는 우려가 표시된다. 《매일경제》는 2001년 특별기획 <실업을 극복한다>에서 대졸 미취업자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대학졸업자 10명 중 7명이 직업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년 실업자 양산"이 "사회 전체를 어둡게 하고 있다"(2001.2.22.)고 지적한다. 각종 사설에서도 청년층의 실업은 여타 연령대의 실업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우려된다.

> 청년층 실업은 이들이 실업급여나 퇴직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시급한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 현재 청년들의 인적자본 손상을 가져와 미래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면에서도 더욱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일보》, 2001.4.22.)

> 수많은 청년들이 직업이 없는 상태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은 귀중한 국가 인력의 손실이고 사회 불안 요인이다. 직업이 없는 젊은 남녀들은 결국 건전하지 못한 돈벌이의 유혹에 빠져들거나 범죄의 구렁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기 쉽다. (《동아일보》, 2001.4.22.)

청년실업은 청년 당사자의 문제이기에 앞서 "미래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귀중한 국가 인력의 손실"이자, 도덕적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회 불안 요인"으로 의미화된다. 이는 일하지 않는 청년들, 즉 청년백수에 대한 불안과 배제로 이어진다. 청년층 중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포함한 유휴인력이 133만 명으로 집계되었다는 기사는 "청년층 4명 중 1명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놀고 있는' 것"(《문화일보》, 2002.12.18.)으로 표현되며, 일자리가 불안정한 청년은 "폭력, 한탕주의, 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문제로 직결"(《동아일보》, 2003.4.10.)된다고 단정된다.

2005년을 전후하여 언론은 일본의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과 프리터(free arbeiter) 담론을 참고하며 청년 무업자의 문

제화를 심화시킨다. “나라 전체가 가난하던 시절에는 먹고살기 위해 무언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반해, 일하지 않는 청년 니트의 등장은 “일종의 풍요병”(《동아일보》, 2005.3.23.)으로 표현된다. “무위도식자”의 대량 양산은 “신빈곤층 형성과 함께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고 사회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공공연하게 우려되고, “구직을 포기한 채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청년 니트의 “안일한 정신자세”가 지적된다(《서울신문》, 2006.2.3.).

동시에 이 시기는 청년백수의 의미를 둘러싼 담론적 투쟁이 가능했던 시기였다. 노동하지 않는 청년을 개인적 일탈과 사회적 불안의 원인으로 문제화하는 주류 담론에 대항하여 다양한 의미론적 전복 시도들이 이루어졌다.[20] 대표적인 당사자운동으로는 1998년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되고 2006년 비영리민간단체(NPO)로 등록된 ‘전국백수연대’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권 침해에 맞서 실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해온 바 있다(주덕한, 2009 참조). 수적으로는 다수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척도에서 배제된 소수자이자 주변인인 백수는 2000년대 소설의 주요한 테마였고,[21] 이들의 냉소적인 표상 속에서 주류 사회의 논리에 대한 균열-내기를 시도하는 젊은 작가들의 문학적 성찰이 두드러지기도 했다.

2) ‘88만원세대’와 위기의 청년

2007년 출간된 『88만원세대』는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실상 386세대를 비판함으로써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무기력한 청년세대를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려는 일종의 ‘프로파간다’였으나, 호명은

20) 서동진(2004: 101)은 백수를 향해 동원되고 있는 혐오감, 분노, 적대감이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적인 주체인 ‘노동하는 주체’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산하는, 우리 시대의 무능력자에 대한 배제 환상을 조직하는 신경증적 욕망이라고 지적한다.

21)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묘사를 참고할 수 있다. “여러 차례 낙방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또다시 평일 시립도서관의 자리를 메우는 사람들, 언제든 취직하기를 기다리며 각종 ‘알바’를 전전하는 이들, 어쩌다 회사에 들어갔더라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인턴사원이거나 구조조정 되어 퇴직당한 자들, 결혼시장에 내다 팔리기만을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는 신부 후보감들, 이들이 모두 2000년대 소설을 평정하고 있는 백수들이다. 도시에서 어렵사리 살아가는 이들은 모든 것이 자본의 논리에 철두철미 포섭되는 막막한 현실에 둘러싸여 있어 애초에 무언가를 꿈꾸려 하지도 않으며 속물 근성도 마다하지 않는다.”(정혜경, 2005: 174)

표면적으로 실패[22]한 반면에 실질적인 파급력은 다른 영역에서 발생했다. “지금의 20대 중 상위 5% 정도만이 5급 사무원 이상의 단단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평균 임금 88만 원 정도를 받는 비정규직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묵시론적 진단은 청년에 대한 시선을 이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경제적 조건으로 순식간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불러왔다.

2007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9천여 건의 신문기사에서 ‘88만원세대’가 언급되며, 위기에 처한 청년을 다루는 각종 매체의 기획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일례로 《시사인》은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20대의 경제적 좌절을 다루는 특집을 세 차례에 걸쳐 기획하는데, 여기서 다루어지는 청년은 다음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무기력해지는 청년이자 조금이라도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청년, 취직을 포기하는 청년이자 치솟는 등록금에 시달리는 청년이다.

> 60여 군데에 원서를 넣어봤지만 “이젠 취업 사이트만 보면 오바이트가 쏠린다”는 김씨는 현재 심각한 패배감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이제 ‘뭘 하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은 접었어요. 제발 아무 일이나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편입되고 싶어요.” 김씨 같은 20대들이 당장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다. 비정규직 등 임금이 낮고 미래가 불투명한 일이라도 시작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 준비 등 다시 몇 년 더 ‘취업 공부’를 연장하는 것이다. (《시사인》, 2007.10.1.)

> ‘청년 실업’이라는 우울한 유령이 한국 사회 주변을 맴돌고 있다. 실업(失業·unemployment)은 분명 직업을 잃은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회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치료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 2009년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슴에 성적표·자격증·인턴 경력표·봉사활동 카드·헌혈 증서를 치렁치렁 달고도 대학이란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 슬픈 일이다. (《시사인》, 2009.1.12.)

2009년부터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조성주, 2009), 『위기의 청년세대-출구를 찾다』(송호근 외, 2010)와 같이 청년의 위기를

22) 저자 중 한 명인 우석훈은 『88만원세대』를 처음 쓰면서 자신이 원했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청춘들이 움직이지 않을 이유로 삼게 된 책”이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2012년에 이 책의 절판을 선언했다(《경향신문》, 2012.3.26.).

분석하는 책들과 『혼돈의 20대, 자신을 말하다』(김애순, 2010), 『요새 젊은 것들—88만원세대 자력갱생 프로젝트』(단편선 외, 2010),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청춘이다』(정상근, 2011), 『현시창—대한민국은 청춘을 위로할 자격이 없다』(임지선, 2012) 등을 포함하여 청년 당사자의 인터뷰나 자기서사를 다루는 책들이 연이어 출간되었다. '청년의 좌절과 고통'이라는 테마가 출판계에서 주목받게 되면서, 2010년부터는 베스트셀러 『아프니까 청춘이다』(김난도, 2010)를 선두로 하여 기존의 자기계발서의 변형으로써 청년 독자를 치유하고 위로하기 위한 '힐링' 담론이 유행하게 된다. 이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청춘콘서트 류의 각종 행사의 성황을 수반했으며, 청년의 위기 담론은 몇 년 사이에 가장 잘 팔리는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청년의 암울한 상황에 대한 진단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 세대를 일컫는 명칭인 '삼포(三抛)세대'의 등장으로 더욱 강화된다. 2011년 경향신문의 한 기획에서 제시된 이 용어는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상환, 기약 없는 취업준비, 치솟은 집값 등 과도한 삶의 비용"(《경향신문》, 2011.5.11.)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미루고 있는 청년층을 일컫는다. 이는 미디어와 사이버스페이스를 거치며 사회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88만원세대' 이후 가장 대표적인 청년의 명칭이 되었고, 포기되는 요소들의 목록이 확장되면서 '사포세대', '오포세대' 등으로 변주되기도 했다. 노동과 주거의 불안정성에 시달리며 가족구성을 포기하는 청년의 표상은 전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위기가 되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청년백수의 의미를 "보다 자유로운, 보다 여유로운, 보다 자기중심적인 생활의 패턴을 가진 이들"(김성훈, 2005: 78) 등으로 전유하려는 시도들이 가능했다면, 2000년대 후반의 위기 진단 속에서 이는 비이성적이며 불가능한 기획이 되었다. 『88만원세대』를 위시하여 바로 그 경제적 악조건을 근거로 정치적 주체를 형성하려는 시도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청년들은 위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수동적인 자기계발에 몰두하거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 하는 '정상적인 경로'로부터 이탈하는 문제적 노동층으로 그려졌다.

3.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청년의 발견

1) 청년과 사회적경제

9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대중적 담론이 청년을 다루어 온 의미의 변동을 위와 같이 개관할 수 있다고 할 때,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청년 표상은 이전의 의미론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대한 전환점이자 청년세대의 대안으로서 등장한다. 여기서 사회적 활동이란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활동, 공동체 복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간주되면서도 경제적 생존이 가능한 일을 통해 국가와 자본의 실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변혁적인 정치-운동의 주체로서도, 정상적인 경제-노동의 주체로서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청년은 사회-활동의 의미론을 통해 이중적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로 재등장한다.

사회적경제 담론이 아직 일부 시민사회 영역의 논의로 머물러 있던 시점에 사회적 활동가로서의 청년 표상은 대학 동아리의 형태로 처음 발견되기 시작한다.[23] 2006년 11월 출범한 ‘넥스터스(Nexters)’는 국내 최초의 사회적기업 연구 대학생 연합동아리로서, 언론의 주목[24]과 단행본 출간을 계기로 하여 이후 급증하는 “소셜 벤처 동아리 열풍”(《한국일보》, 2009.1.28.)의 전범이 되었다. ‘넥스터스’가 ‘함께일하는재단(당시 실업극복국민재단)’의 ‘세계희망경제 프로젝트’ 프로그램 지원으로 출간한 『아름다운 거짓말: 대한민국 20대, 세계의 사회적 기업을 만나다』(2008)는 넥스터스 회원들의 인도·방글라데시 사회적기업 탐방기,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참여한 좌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청년에게/청년에 대해 발언하는 추천의 글을 통해 청년과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다층적인 담

---

23) 초기에 이러한 동아리를 결성하는 개인들의 동기는 많은 경우 ‘우연히 읽은 한 권의 책’이다. 가령 ‘넥스터스’와 ‘WISH’(서울대학교 최초의 사회적기업 연구 동아리)의 설립자는 공통으로 『세상을 바꾸는 대안기업가 80인』(다르니·르 루, 2006)의 발견을 그 계기로 들고 있다(넥스터스, 2008: 6; 송화준·한솔, 2014: 60).

24) “6명으로 이루어진 젊은이들의 인도 사회적 기업 탐방 이야기는 적지 않은 관심을 모았다. 우선 언론에 집중 보도되었다. 이들에게 넥스터스의 움직임은 ‘88만원 세대’로 상징되는 청년 실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았다.”(넥스터스, 2008: 198)

론의 장을 예시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세 명의 청년 활동가와 세 명의 기성 시민운동가가 진행한 좌담 “대한민국 20대, 다시 희망을 ‘희망’하라 -20대의 사회적 기업 실험 이야기”(넥스터스, 2008: 198-221)는 기존의 청년 표상이 어떻게 사회적경제와의 연관 속에서 프레임화되는지 보여준다. 다음은 이 좌담에서 발췌한 기성 시민운동가의 발화들이다.

> 1)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20대가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20대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현실과 쉽게 타협하고 취직에 절대적인 관심을 두는데, 정작 그 어떤 세대보다 청년실업 문제를 겪고 있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199).

> 2) 지금의 20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20대의 개인적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 IMF 같은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도 중요했겠죠. 분명한 건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떠나서, 20대 개개인이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201).

> 3)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죠. 저는 광범위한 청년실업과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과거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와 변신, 창조를 감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202).

위의 두 발화가 각각 청년의 위기를 지적하고 그 원인을 구조적으로 진단했다면, 마지막 발화는 위기상황을 “변화”와 “창조”를 위한 “기회”로 재의미화함으로써 그 대안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을 제시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위기의 청년은 “불행한 세대”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전과 기회의 세대”(201)가 된다.[25] “어떻게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하나”,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사회적 문제의식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라는 한 청년활동가의 이중적인 고민(200)은, ‘기업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 운동과 기업 경영에 별다른 차이가 없”(206)으며 “사회적 기업은 몸은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머리는 고결한 영혼

25) 이 발화가 중요한 이유는 발화자가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드러나는 청년의 일자리문제에 대한 입장은 서울시장 당선 이후의 행보와 직결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실업자가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실업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에 앉은 20대 분들이 ‘실업 제로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212)

을 담고 있다”(211)는 해결책으로 응답된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경제적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은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213)로써 청년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는 일이 된다.

‘넥스터스’가 “개인의 행복, 기업의 이윤, 공동체의 복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한겨레》, 2007.9.27.)으로 표현한 바 있는 이 세 가지의 일견 모순되는 목적의 병행가능성은 이후 청년과 사회적경제를 연결 짓는 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론으로 작동한다. 앞 절에서 보았던 정치적으로 무기력하고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청년, 대기업 취업을 갈구하며 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청년의 두 가지 부정적 이미지는,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이라는 현실적 형태를 통해 동시에 극복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기존에 개념적으로 존재하던 사회적경제의 의미는 한국사회의 청년 표상과 결부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2009년을 전후하여 언론이 본격적으로 청년의 사회적경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한국 최초의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인 ‘노리단’의 단장은 2008년 한 칼럼에서 대학 입시와 취업 입시의 긴 터널을 거치며 “사회 공공의 경험이 협소해진 청년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자기 고용의 프로젝트를 사회적 기업의 장을 통해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청년실업의 대안으로 주목 받는”다고 지적한다(《머니투데이》, 2008.6.25.). 《한국일보》는 2009년 1월 기획특집 <소셜 벤처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을 연재하며 대학의 소셜 벤처 동아리, 청년층 사회적기업 현황, 해외의 사회적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같은 해 2월 《경향신문》은 기획특집 <사회적기업이 희망이다>에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 청년들을 조명한다.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대학생 사장님들”은 “더 좁아진 취업의 관문을 뚫기 위해 도서관에서 이를 악물고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젊은이들”(《경향신문》, 2009.2.8.)로 의미화된다. 청년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기대는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경험 중인 이들은 지금껏 과거 어떤 젊은 세대보다 보수적이라고 불리는 세대들이다. 이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은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

하면서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실천적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 노하우도 없는 청년들이, 그것도 '공익'과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사회적 기업은 청년 실업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나 민간기업이 커버할 수 없는 틈새를 메워주며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2009.1.28.)

2009년 한·일 청년 사회적 기업가 포럼이 개최되고[26] 희망제작소와 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각종 기관에서 사회적기업가 경연대회가 실시되는 가운데 청년은 진보와 보수, 기업과 운동진영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호출되었다. 탈정치화된 청년의 실천적 기획을 기대하는 시민운동가의 입장,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청년실업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안하는 정책전문가의 입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논하는 대기업의 입장을 마찰 없이 공존시킬 수 있는 영역이 청년의 사회적기업이었다. 이러한 호출에서 청년 사회적기업가는 이전까지의 창업하는 청년들과 같이 단순한 '대학생 사장님'만은 아니었으며, "사회의 책임의식과 나눔의 경험"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실천적 행위"의 담지자, 곧 운동 주체를 지시하는 활동가에 더 가까운 존재로 표상되었다.

2) 청년 활동가의 영웅화: 반란 없는 혁신

사회적경제의 주체로서의 청년 호명과 병행된 것은 '공신닷컴', '프리메드', '레인보우브릿지'와 같은 초기 청년 사회적기업 성공 사례들의 부각이었다. 의료분야 사회적기업인 '프리메드'를 창업한 대학생은 한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자신들을 "학업과 사회적기업을 병행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 소외층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청년들로 표현한다(《경향신문》, 2009.11.5.). 사회적 가치를 추

26) 이 포럼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사뭇 선언적인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이날 한·일 청년들이 포럼에서 찾은 결론은 명료했다. '청년들이여,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하자. 지금 자신이 감동하거나 분노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자. 자기 주도적인 삶과 사회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우리 청춘의 끓는 피가 함께 나서자.'"(《경향신문》, 2009.4.20.)

구하기 위해 분투하는 이들은 2000년대 이래 꾸준하게 청년의 탈신화화·탈영웅화를 겪어 온 한국사회의 새로운 영웅으로 등장한다.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등장은 쳇바퀴를 돌던 청년들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꿈꾸게 하는 신호”로, 이들은 “청년들에게 인생의 호흡과 공부의 의미를 바꾸는 파랑새”가 될 수 있는 존재로 표현되었다. “다양한 삶의 길을 보며 인생의 창업자와 경영자가 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가 “백 명만 있어도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이다(《경향신문》, 2010.11.10.).

이 영역은 정부와 대기업의 주목 하에 더욱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청년 사회적기업에 2012년부터 현대차그룹과 정몽구재단은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청년 사회적기업가 발굴 오디션인 ‘H-온드림 오디션’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창업자금과 경영 멘토링 등 창업지원을 제공받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선발하는 자리인 이 오디션에 참여하는 수백 개의 청년 팀들은 1차 서류심사, 2차 업종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2012년 2차 예선 심사를 맡았던 한겨레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한 칼럼에서 청년 소셜벤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여러 청년 소셜벤처팀의 발표는 아직은 서툴고 거칠었지만, 사회적 약자를 돕거나 사회문제를 풀어보려는 진지함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협력과 상생의 꿈을 대담하게 펼쳐가는 그들이 자랑스러웠다. … 가수 서태지가 90년대 새로운 문화코드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면, 소셜벤처 창업에 뛰어든 청년들은 ‘1%의 대한민국’을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주인공들이다. 혁신적인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한겨레》, 2012.8.17.)

이렇듯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주인공”들의 사회 혁신 사례는 끊임없이 발굴되고 스토리화된다. 이는 언론을 넘어 출판계로 확장되는데, 일례로 『청춘, 착한 기업 시작했습니다』(이회수, 2013)는 그간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육성해 온 소셜벤처와 청년 사회적기업 중에서 “소셜미션이 명확하고 성장 전망이 있는 우수 기업” 12곳을 선발하여 이들의 창업기를 스토리화한 책이다. 대안적 경제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기업 희망재단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엮은이는 이를 “열악한 창업 환경 속에서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춘을 불사르며 고군분투하는 젊은 사회적기업가들의 꿈과 희망, 도전과 시련의 이야기”(이회수, 2013: 6)로 표현한다.

> 새로운 프로젝트를 창조하는 선구자는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편이 되어 줄 것이고, 결국 선구자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등장할 것이다. … 소셜벤처 창업 환경은 아직도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용기와 열정으로 부딪치는 청년들의 도전 정신이 결국은 생태계 자체도 혁신할 것이라고 믿는다(이회수, 2013: 8).

이러한 우수기업들은 청소년들에게 진로를 컨설팅해 주는 기업과 친환경 옷으로 윤리적 패션을 추구하는 기업, 커피 찌꺼기를 퇴비로 만들어 버섯 재배를 하는 기업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등 각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수익모델로 만들어 낸 사례이다. 다양한 서사 속에서 이들은 고독하고 외롭지만 결국 승리하게 될 ‘선구자’로 등장한다. 청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고난을 딛고 ‘용기’와 ‘열정’으로 부딪쳐 성공하는 스토리는 기존의 수많은 성공 신화들과 동일한 서사구조를 공유하지만, 그 성공이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성공일 때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혁신’이 된다.

『청춘, 착한 기업 시작했습니다』가 사회적기업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우라면, 2014년 출간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토가 있다』(송화준・한솔, 2014)는 “대안의 영토를 찾아가는 한국의 사회 혁신가들”이라는 부제 하에 이전보다 광범위하고 느슨하게 의미화된 사회 혁신적 영역을 당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활동’의 용법을 경험적으로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셜 벤처와 공유 경제를 포함하여 개념적으로 정의내릴 수 없는, 혹은 정의내려지기를 거부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책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파괴된 사회와 공동체를 치유하기 위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청춘들”이라는 의미망으로 묶인다.

> 어떤 이들은 사회적 문제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기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소유 중심으로 재편된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공동체, 협력, 그리고 관계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 ‘공유 경제(그리고

공유 기업)' 라는 영토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둘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아직 사회에서 이름을 짓지도 못한 영역을 새로 창출해 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송화준・한솔, 2014: 6)

이 책의 시각에서 기존의 한국 청년들은 사회에서 주어진 길을 따라가는 '경주마' 로 비유된다. 청년 사회 혁신가 내지 활동가들은 그들과는 달리 "레일을 뛰쳐나와 광활한 대지를 뛰어다니며 자신만의 영토를 개척" (5) 하는 '야생마' 로 표현된다. 야생마와 경주마의 길이 다른 것과 같이, "남이 그어놓은 길이 아닌, 자신이 정한 길을 걸어가는" (27) 것이야말로 이들이 '스펙' 경쟁에 몰두하는 다른 청년들과 다른 '스토리' 를 만들어나가는 방식이다.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가 이들에게는 오히려 사회에 '선한 영향력' 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15). 이들은 "전혀 뿌리내릴 수 없을 것 같은 땅" 에 살고 있는 고독한 나무이자, "각자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일궈온" (18) 개척자이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토가 있다』에서 청년 활동가들은 자신이 생존하기 위한 이기적인 삶이나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숭고한 삶을 택하는 대신 스스로 살아남으면서도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길을 창조해 밟아나가는 사람들로 묘사된다. 이들에게는 비영리와 영리, 개인의 이익과 거대한 사명감의 구분이 없으며 이는 기존의 이분법적 마인드를 극복하여 새로운 세대를 열어갈 가능성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행위로서의 청년 활동은 기존의 국가 권력이나 자본주의 구조를 타격하고 개혁함으로써가 아니라, 청년의 열정과 창의성으로 개척해내는 '대안의 영토' 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새롭게 영웅화된 청년들은 기존의 상징적 학생운동가들과 같이 사회구조적 문제를 직접 타격하고자 하거나 제도에 저항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어진 공간 내에서 발언권을 확보하려는 지난한 분투 대신 아직 오염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내기를 꿈꾼다. 그 길에서 중시되는 자본은 주체들의 선하고 윤리적인 의지이며, 이를 바탕으로 가치를 창조하고 사회를 혁신하는 존재로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삶은 한국사회의 청년세대가 추구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되었다.

Ⅲ. 청년 활동의 제도적 조건

앞 장에서 살펴본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청년 주체에 대한 급격한 주목은 고착화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흐름과도 큰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1년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서울시장 당선 이후 시민운동의 이론적 자원이 제도적 기반을 얻게 되면서 서울시 청년대책을 둘러싸고 발생한 흥미로운 변화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대책의 흐름을 개괄하고 그 위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대책이 가지는 특수성을 진단하며, 이를 집약하는 대표적인 청년관리장치로서의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가 작동하는 방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청년실업대책의 흐름(1998~2013)

1) IMF 이후의 청년실업대책(1998~2007)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실업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실업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다. 1998년 3월 '실업문제종합대책' 수립을 계기로 1998년 4월 국무총리 소속하에 '실업대책추진위원회'가 설치·가동되었으며, 2000년 종합실업대책의 특성별 대책으로 '청소년 인력개발 및 고용촉진대책'이 수립되고 2001년 '청소년 실업 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08.12.). 이 당시 청년층의 실업은 전반적인 실업 문제의 일환으로, 특별히 심각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12%를 초과했던 청년층 실업률이 2000년 이후 6~7%대로 고착화되자 정부는 청년실업을 그 자체로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2003년 9월, 외환위기 이후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첫 청년실업 관련 종합대책인 '청년 실업 현황과 대

[표 3-1] 청년실업대책의 주요 추진경과(2003~2007)

일시	주요 대책
2003.9.22.	‘청년 실업 현황과 대책’ 발표
2004.3.5.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2004.12.10.	제1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개최
2004.12.22.	제2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개최
2005.1.28.	제3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개최 ‘청년고용촉진대책’ 발표
2006.4.20.	‘고졸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 발표
2007.4.27.	제4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개최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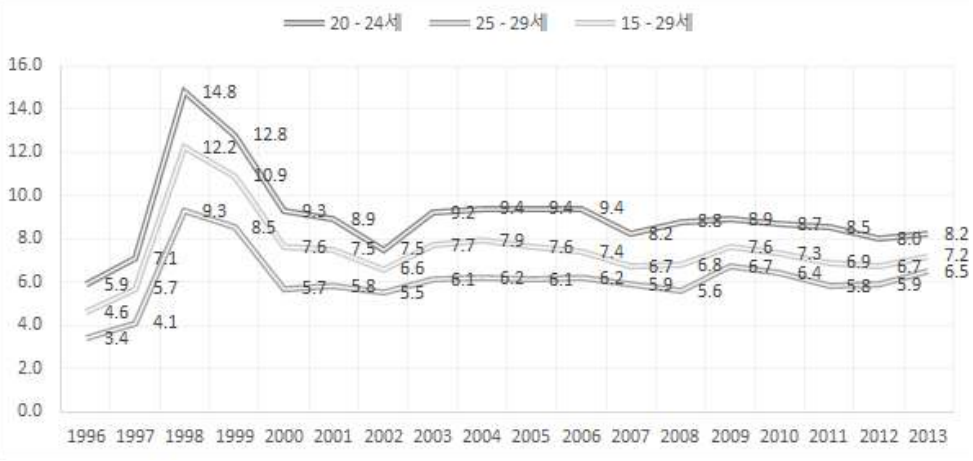
국회도서관, 『청년실업 한눈에 보기』(2013) 재구성

책’을 발표한다. 이 종합대책에서는 일자리 제공(공공부문 주도 일자리, 국내·해외 인턴, 중소기업 채용 등),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포함하는 단기 대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성장동력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산학협력 강화,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대책이 함께 제시되었다. 같은 시기에 국회는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004년 3월 「청년실업해소특별법」[27]이 제정되었다. 2004년부터 통계청은 기존에 실시하던 경제활동인구조사 시 ‘청년층 부가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별도의 현황 파악을 시작했다.

종합대책 시행과 법령 제정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정부는 기존의 실업대책을 점검하여 2005년 1월 ‘청년고용촉진대책’을 발표한다. 이는 일시적인 실업률 감소를 위한 단기 대책보다 학교-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중심으로 청년층 고용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고용대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5년을 기점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소폭 하락하는 동시에 고용률 역시 하락세를 지속하는데, 당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을 실업자만이 아닌 실질적인 실업자로 분류가 가능한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까지 산입할 경우 대졸 이상의 체감실업률은 통계로 잡히는 실업률의 두 배 이상으로 급등함을 지적하고 있다(정인수·김기민, 200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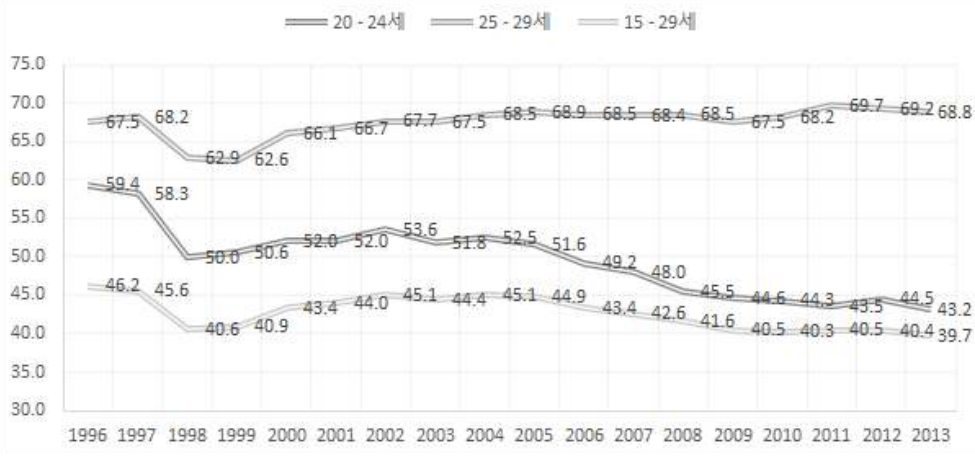
27) 이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포함하며, 2009년 10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이후의 청년고용대책의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림 3-1] 청년층 실업률 추이(1996~2013)



원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2] 청년층 고용률 추이(1996~2013)



원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역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6년 발간된 연구보고서에서는 한국형 '청년무업자(니트)'에 대한 최초의 분석과 위기 진단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르면 실업자를 제외한 니트인 비구직 니트의 규모는 2004년 80만 명에 이르러 실업자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으며, 청년들의 학력이 높을수록 니트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남재량, 2006: 154). 통계청은

2006년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시험준비유무 및 준비분야’ 항목을 추가하기 시작하며, 고학력 니트는 이후의 청년대책에서 중대한 청년취약계층으로 취급된다. 2007년 4월 발표된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서 정부의 실업대책은 근본적인 청년실업 해소에 적합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인력수급 불일치,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아직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8년부터 청년실업대책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포함하기 시작한다.

2) 창업・창직 정책과 사회적경제(2008~2013)

1990년대 말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IT 산업을 중심으로 불었던 벤처 붐은 2001~2002년 버블 붕괴 후 사그라졌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재도약한다. KDI의 한 연구보고서는 ‘제2의 벤처 붐’을 기대하는 일각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는 벤처생태계의 활성화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정책적 지원대상의 벤처 인증 사례 급증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는데(김기완, 2012: 7), 이 시기는 청년실업문제의 대안으로 창업 장려 대책이 활발하게 실시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표 3-2] 청년실업대책의 주요 추진경과(2008~2012)

일시	주요 대책
2008.4.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계획’ 발표
2008.8.29.	‘청년고용촉진대책’ 발표
2009.3.19.	‘청년고용추가대책’ 발표
2009.10.9.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정
2009.12.24.	‘청년·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대책’ 발표
2010.4.9.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2010.10.14.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 발표
2011.5.19.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발표
2011.9.2.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 발표
2011.10.12.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2012.7.13.	‘열린 고용 정착 방안’ 발표
2012.9.21.	제3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국회도서관, 『청년실업 한눈에 보기』(2013) 재구성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촉진대책’은 크게 청년 친화적 일자리 지원, 직업체험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미스매치 완화를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는 이전까지의 고용대책과 유사한 인턴 채용 확대, 중소기업 채용 확대, 취업애로청년 지원서비스 등이 포함되는 한편, 청년 기업가 육성(청년 창업 지원, 공예·디자인 등 틈새시장 창업지원,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등)과 미래산업 청년 리더 10만 명 양성과 같은, 창조적 기업가 내지 글로벌 리더로서의 청년 주체를 강조하는 새로운 사업 방향이 추가된다.

2009년 7월부터 서울시는 “참신한 창업 아이템과 열정을 가진 20·30대 예비창업자 1000명을 선발해”(《경향신문》, 2009.5.11.) 청년 CEO로 육성하는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청년창업 1000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강남과 강북에 각각 청년창업센터를 설립하고 예비청년기업가 1000명에게 창업 공간, 창업활동비, 창업교육, 홍보·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이 사업을 통해 2011년까지 약 190억 원의 소요예산으로 3,023개의 청년 창업팀이 육성되었다. 2011년도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2011년 9월 기준으로 이 중 1,389개의 팀이 실제로 사업자 등록에 성공하며 총 9,344명의 일자리 창출에 성공했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운영된 청년 대상 창업 지원사업으로, 2010년 3월 국가고용대책회의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시책으로 발표되어 당해 7월부터 15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30여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된다.[28]

고용노동부는 기업체 취업을 전제로 한 기존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로는 “젊은층의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업가 정신을 살려 창업을 장려하는 쪽으로”(《동아일보》, 2010.2.2.) 방향을 바꿔 2010년부터 ‘청년 창직·창업 인턴제’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한다. 2010년 운영지침에서 “창직”이란 “문화콘텐츠 등의 산업 분야에서 스스로 독립 직업인 형태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29]으로 정의된다. 인턴 참여자

28) 대표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중소기업청의 청년창업사관학교(180억 원), 부산의 청년창업활성화 사업(21억 원), 대전의 대학창업300 프로젝트(20억 원), 경기의 G프로젝트 외(37억 원) 등이 있다. 이상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문건 ‘청년창업1000 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2011.10.12.) 발췌.

29) 2013년 운영지침에서는 “개인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스스로 직업을 개발 또는 발굴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

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30]의 창직·창업 희망자로, 기존의 청년 인턴제와는 달리 창직인턴의 경우 창직분야 학교 전공자·교육훈련 이수자·자격증 소지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창업인턴의 경우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창업관련 교육훈련 이수자, 창업동아리 경력자 등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선발된 인턴은 창업 후 7년 이내인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벤처기업, 명인·명장 등 국가인증자를 포함하여 창직·창업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 6개월 동안 월 100만 원 선의 임금으로 근무하게 된다. 인턴 참여자가 인턴기간 또는 만료 후 창직·창업에 성공한 경우 정부는 1인당 200만원의 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같은 해 10월, 정부는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4,000명, 창조캠퍼스·창조마을 지원, 신성장 동력분야 창업기업 3,600명 등 '청년의 창조적 도전 지원'에 초점을 둔 사업들이다. 2011년 5월 발표된 '청년 내 일 만들기 제2차 프로젝트'에서는 청년 벤처창업과 벤처 공동채용 확대라는 목표 하에 창업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등을 통한 전국적인 청년 창업 분위기 조성, 스마트 창조기업 활성화 등이 추진과제로 등장했다.

취업에서 창업·창직[31]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청년이 스스로 창출하는 일자리로 변화된 정책적 프레임은 이후에도 지속·확산된다.

출하는 것"으로 정의가 구체화된다.

30) 2011년 6월 30일 자로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참여자격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으로 확장되었다.

31) 2011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우리들의 직업 만들기: 청년층 창직가이드』는 "청년층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존에 없던 '청년 창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창조적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개인의 지식, 기술, 능력뿐 아니라 자신의 흥미, 적성 등에 적합하며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해당 분야에서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창직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창직의 경우로는 사회적기업, 친환경 녹색분야, 소셜네트워크, 예술, 여가와 취미 등을 주제로 한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 2014년 새롭게 발간된 이 책자는 "감성, 상상력, 창의성이 강조되는 창조경제시대로의 진전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가 직업으로 발전화는 환경에서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역량을 집중한" 창직활동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 과정에서 개인은 성취감과 자아존중감, 직업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자 가치 창출의 발판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한다.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첫 번째 창직가이드와는 달리, 두 번째 책자는 예비 창직자의 고충, 창직자의 극복사례, 창직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며 청년 창직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청년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와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2011년도 운영지침) ‘창조캠퍼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2011년 10개 대학, 2012년 23개 대학이 선정되어 월 1백만 원 이내의 운영비, 2천만 원 이내의 창직공간 조성비, 창직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선정된 프로젝트 팀당 600만 원 한도의 지원비를 제공받았다. 이 사업은 20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조적 역량 인재양성사업’으로 변경되어, 기업·사업주 단체가 주도하고 대학 및 고등학교가 협력하는 형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편 2007년 1월 제정되었던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10년 6월 개정되면서 사회적기업의 정의가 기존의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까지를 포괄하게 된다. 이에 청년층 창업·창직의 블루마켓으로서 사회적기업이, 그리고 아직 태동기에 있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이끌어나갈 주체로서의 청년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2010년 10월 고용노동부 주최로 민·관·학 공동 참여의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되고, 2010년 12월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1년부터 “청년층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창업에 필요한 공간, 자금, 멘토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2011년도 모집공고)하는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구성원의 50% 이상이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인 청년층으로 이루어질 것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청년의 창업·창직 정책에 사회적경제를 본격적으로 접목시키는 사례는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에서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를 ‘창조적 청년기업 10,000개 육성’ 정책으로 확대 운영하는데, 기존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던 2012년과 달리 2013년부터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기조로 하는 신규 정책과제가 도입되기 시작한다.

[표 3-3] ‘창조적 청년기업 10,000개 육성’ 사업 2013년도 정책과제 중(2013.3.)

과제 3. 행복한 일자리 창출 위한 사회적 경제 등 지원	
정책 목표	•‘사회적 경제’의 지원을 통해 행복한 일자리 창출 •공유기업, 사회적기업 등 창업활성화 통해 서울의 사회적 가치 실현 •협동조합 등 새로운 창업모델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마련
현황과 실태	•삶의 질 향상 위한 사회적 경제의 가치는 중요, 강력한 지원책 마련 시급 •창업초기 기업역량은 기초단계, 단발성 협력보다 강한 결속 필요
정책 방향	•우수 솜씨 보유한 시민을 창업가로 변신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유경제 등 사회적 경제를 통한 ‘행복한 일자리’ 발굴 지원 •협동조합 창업을 통해 새로운 창업모델 만들기

첫 번째 정책방향은 재능으로 창업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우수 솜씨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재능 있는 시민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성공사례를 창출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기업가정신을 보유한 대학생의 창업유도로 ‘젊은 창업’을 실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공유경제,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활성화로 ‘행복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으로, 기존의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의 선발인원 중 일부를 ‘사회경제형’분야 창업에 별도 정원으로 우선 배정하고 사회적기업 등 인증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며, ‘사회경제형’ 예비창업자에게 멘토링·컨설팅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강의 및 코칭을 신설하여 이미 입주해 있는 일반 창업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유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세 번째 정책방향은 입주기업의 협동조합 설립을 법률 전문가 전담 매칭 등을 통해 지원하고, 협동조합과 관련한 강의와 컨설팅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의 정책과제에서 드러나는 사회적경제 영역은 중앙정부대책의 시각과 같이 단순히 창조적이고 활력 있는 노동력으로서의 청년 예비기업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점이 되는 것은 청년 주체의 재능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으로 개별적인 노동경험에서의 ‘행복’ 추구가 가능해진다는 인식의 확산이다. 이는 2012년 이후 서울시가 청년문제를 바라보고 관리하는 제도적 시선 전반을 관통하는 지점으로서, 다음 절에서 살펴볼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의 작동 방식과 연결된다.

2. 서울시의 청년대책과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1) 청년 참여적 시정개혁과 청년고용대책의 재의미화

2011년 취임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단행해 온 시정개혁 조치의 핵심적인 축은 정책수립과정에서의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이영희, 2013: 107). 이는 '시민 말씀대로', '시민이 시장이다'와 같은 구호에서 출발하여 "시정의 주인인 시민의 소망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聽) 이를 서울시 정책(政策)에 반영하는 청책(聽策)"(2014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의 형태로 실행된다. 2011년 11월부터 실시된 '청책토론회'는 여성, 노숙인,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사회적기업, 평생교육, 관광진흥 등 특정 분야를 주제로 하여 문제당사자와 시장 및 주요 관계자가 참여하는 1~2시간 분량의 토론회이다. 2014년 5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87회의 청책토론회가 실시되었고, 이 중 네 번째로 진행되었던 '청년일자리정책 수립을 위한 청책워크숍: 청년, 가능성의 생태계를 찾아서'에서 나온 청년들의 의견은 이후 서울시의 청년정책 구상과 실행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대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3-4] 서울시 청년대책의 주요 추진경과(2011~2013 희망시정)

일시	주요 대책
2011.12.6.	청년일자리정책 수립을 위한 청책토론회(1차)
2012.1. ~ 2012.2.	청년일자리 대책회의/ 청년일자리허브 조성 TF 회의
2012.3. ~ 2012.8.	청년기획TF 결성 및 활동
2012.7.23.	청년 일 대토론회: 청년에게 굿잡이란 무엇인가?
2012.11.6.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책토론회(2차)
2012.12.14.	청년일자리허브 설치·운영
2013.1.28.	서울시-청년유니온 청년일자리 정책 협약 체결/ 청년문제 연석회의 개최
2013.4.11.	청년일자리허브 개관
2013.5.20.	2013 서울시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발표
2013.8.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2013.9.27.	서울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통과
2013.10.21.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책토론회(3차)

2011년 12월 6일 하자센터에서 개최된 이 토론회에는 박원순 시장과 관련 전문가, 청년구직자, 예비창업가, 제3섹터 종사자 등 2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발표와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취직이 로또"가 되어버린 현실과 청년이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없는 조건 하의 애환을 토로한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가슴이 무겁지만, 어려운 조건 하에서 고민하고 실제로 열정을 갖고 해나가는 당당함이 느껴져서 해결이 전혀 불가능하진 않겠다는 자신감 또한 얻었다"고 응답한다. 이 자리를 마무리하며 박원순 시장이 주의 깊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아이디어는 크게 서울시와 청년의 거버넌스, 일자리의 재의미화, 청년 지원 공간의 세 가지이다.

서울시와 청년의 거버넌스는 서울시-청년유니온 사이에서 체결된 사회적 협약과 서울시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현실화되었다. 국내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토론회에 참석하여 청년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을 요구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이를 예산 문제로 반려하는 한편 역으로 청년유니온이 왜 서울시에 노사협의를 제안하지 않는지 질문한다. 실제로 청년유니온은 이를 받아들여 이듬해부터 서울시와의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기 시작하고, 2013년 1월 청년 일자리 정책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는 청년 노동조합과 지방정부가 맺은 최초의 사회적 협약으로서 이후의 '청년일자리 권리선언' 발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정, 서울시 산하기관 청년의무고용제 등의 근거로 기능한다. 또한 토론회에서 서울청년의회의 수립이 제안되었는데, 서울시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청년명예부시장[32]을 위촉하고 2013년 1월 28일 담당공무원과 청년 당사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연석회의를 개최한다. 2013년 8월에는 청년명예부시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하여 서울시청년정책네트워크가 설립된다. 온라인으로 모집한 총 249명의 청년정책위원들은 주거, 문화, 복지, 생활안전망 등 일자리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13개의 의제별 정책테이블을 구성하였으며, 5개월에 걸친 정책위원들의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안된 20개의 청년정책 중 12개가 추진 수용되었다. 이는 2011

32) 첫 번째 청년명예부시장은 청년유니온 초대 위원장 김영경이며, 두 번째 청년명예부시장은 청년유니온 초대 사무국장이자 청년금융생활협동조합인 '토닥토닥협동조합' 대표인 조금득으로 선정되었다. 명예부시장은 1년 임기의 무보수 명예직이나, 이들은 임기 당시와 그 이후에도 서울시의 청년 관련 사업들에서 주요한 위치를 점하며 활동하게 된다.

년의 청책토론회와 2012년의 사회적 협약을 거쳐 '서울시와 청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지방정부 최초의 실험이었다.

위의 두 시책을 청년의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참여적 시정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서울시는 정책수립과정의 민주적 절차 마련을 넘어 청년의 전방위적 삶을 적극적으로 재구축하고자 하는 기획으로 나아간다. 그 핵심에 일자리의 재의미화가 자리 잡는다. 취업난의 고통을 호소하는 청년들에게 박원순 시장은 자신이 출간한 『세상을 바꾸는 천 개의 직업』을 언급하며 이미 경쟁으로 포화된 기존의 일자리로부터의 시각 전환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이러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많은 청년들에게 알려내고자 하는 목표는 서울시의 제안으로 시작된 프로젝트 '청년기획TF팀'을 통해 추진된다. 이 프로젝트는 김영경 청년명예부시장이 총괄책임을 맡고 서울시 일자리지원과, 함께일하는재단, 하자센터, 청년유니온, 사회적기업 모티브하우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대표자들의 참여 하에 2012년 3월부터 출범하였다. 이는 총 24팀의 청년당사자 그룹에서 70여 명의 청년취재단을 구성하여 새로운 일의 사례들을 발굴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진정한 일의 가치와 의미를 짚어줄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최종 발간된 책자인 『일, 청년을 만나다』는 일반적으로 유망한 직업들이 아니라 일상적인 분야 혹은 자신만의 재능과 관심에서 출발하는 대안적인 직업 사례 100가지[33]를 취재하여 소개하고 있다. 책자의 발간 이외에도 서울시는 2012년 7월 23일, 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청년 일 대토론회: 청년에게 굿잡(Good Job)이란 무엇인가?'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 책자의 발간사와 토론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박원순 시장은 자신이 어떠한 직업관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다.

> 이 책에서 소개하듯이 창조적인 눈으로 보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젊은 상상력과 도전 정신만 있다면 새로운 기회와 함께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직업이 먹고 사는 수단뿐 아니라 자신만의 역할을 찾고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희망의 길 아니겠습니까?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것이 '꿈의 격차'입니다. (『일, 청년을 만나다』, 박원순 시장 발간사 중)

---

33) 각 사례는 지역/공동체, 협동조합, 농업/유통, 환경/재활용, 예술/교육, 네트워크/기획, 미디어/콘텐츠, 생활/문화, 비영리/사회적기업 등 9개 범주로 분류되어 있다.

부모님이 판검사 되라고 하셔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도 합격했고, 검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저 역시 '권력', '돈 버는 일', 그런 것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까지 그만두고 시민운동 한 거 아시죠? … 서른일곱 살, 돈 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전념을 했죠. 그런데 오늘 막상 든 생각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기엔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현실이 이런데 그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어른인 거고요. 특히 서울시장이 그런 소리 했다가 여러분들의 꿈을 진짜 뒷받침하지 못하고 더 힘들게 만들면 안 되겠죠? … 책상머리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청년에게 굿잡(Good Job)이란 무엇인가?', 박원순 시장 발언 중)

여기서 직업의 의미는 "먹고 사는 수단"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찾고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확장된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조인의 삶을 벗어나,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 시민운동의 길로 접어든 자신의 생애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개인의 진정한 욕구로부터 출발하는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아실현은 "공무원, 대기업 직원, 교사 등의 이미 만들어진 획일화된 일자리"와 "스펙 쌓고, 취직 시험 보고, 면접 보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공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곧 기존의 포화된 노동시장은 청년 구직자들이 꿈을 실현할 수 없는 곳으로 의미화되며, 따라서 이들에게는 "젊은 상상력과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아낼 것이 장려된다. 그러나 시민운동가로서의 그가 청년들에게 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직업의 선택을 권하고자 한다면, 서울시장으로서의 그는 이러한 직업이 실현가능한 사회적 조건의 부재를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무를 인지한다. 일의 재해석을 통한 청년의 주체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의 마련이라는 이중적 요구는 서울시에서 청년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의 핵심이 된다.

2013년 5월 20일 발표된 '청년과 함께 만든 2013 서울시 청년일자리 종합계획'은 이전까지의 청책토론회, 청년연석회의 등 서울시와 청년의 거버넌스 흐름에서 정립된 방향성과 사업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종합계획의 정책목표는 "청년, 일을 통한 꿈의 실현"이며, 제1대 전략과제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기반'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기존의 청년 고용대책이 청년 취업·창업 지원과 직업훈련 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단

기적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2013년의 서울시의 종합계획은 청년일자리의 정책기반 및 안정적·지속적 지원을 위한 제도가 미비하고 일자리를 넘어 주거·복지·문화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적 청년대책이 부재하며, 건강한 청년 일자리 조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음을 중요하게 지적한다. 요컨대 이는 당장의 가시적인 고용률 제고를 넘어 일자리를 포함한 삶의 기반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 청년세대의 실존을 보장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따라서 정책의 제1대 추진전략은 "청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지속 참여"로 제시된다. 이는 세부적으로 청년활동에 대한 예산, 공간, 행정을 지원하되 그 과정에서 청년의 주도권을 보장하고, 기존의 청책토론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청년과의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청년단체와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청년들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홍보·강좌·세미나의 개최 등으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시화된다. 이제 청년은 지표상의 문제집단이 아니라 주체적인 행위자이자 삶의 자발적 기획자로서 관리되기 시작한다.

2) 청년관리장치의 형성: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1) 청년허브의 고안

2012년 12월 설립되어 2013년 4월 개관한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이하 청년허브)는 위에서 서술한 청년문제의 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장치이자 서울시 청년정책 전반의 물질적 구현물이다. 청년허브의 설치·운영은 2011년 청책워크숍에서 숙의된 네 번째 아이디어였던 청년을 위한 공간 요청에 의거한다. 이 자리에서 한 청소년인권활동가는 자신과 같이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이 "비빌 언덕"이 없음을 토로하며, 하자센터 센터장 조한혜정 교수(연세대 문화인류학)는 청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하자센터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설립된 사회적기업인 '유자살롱'의 대표는 청년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일을 발굴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의 건립을 제안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정말 해결하

려고 생각”한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는데, 이 때 “다양한 대안적 공간의 문제를 고민해볼”것이라는 맥락에서 영국의 더 허브(The HUB)가 언급되었다. 더 허브는 2005년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각지에 50개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사회 혁신 네트워크 공간이다. 영감을 주는 공간(inspiring spaces), 활기찬 커뮤니티(vibrant community), 의미있는 이벤트(meaningful events)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더 허브의 모티브는 박원순 시장이 청년을 위한 공간을 처음 구상하기 시작할 때 염두에 두었던 모델로 보인다.

서울시의 「2013년도 정책자료집 청년일자리허브 조성」에 따르면 청년허브라는 공간의 설립은 청책워크숍 이후 2012년 1월 6일에 열린 일자리 대책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하자센터의 전효관 센터장은 청년들의 주체화, 청년들의 의지화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아가 박원순 시장은 청년을 위한 공간이란 청년단체들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는 새로운 기업과 기업가적 정신을 길러줄 수 있는 창조적인 공간이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이후 전효관 센터장을 대표로 하여 청년일자리 허브센터 조성 TF가 가동된다. 2012년 1월 18일, 2월 1일, 2월 13일 등 3차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는 서울시 산하기관 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과 함께 하자센터, 함께일하는재단 등 관련 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청년허브의 구체적인 상을 논의하였다. 하자센터 임경진 대외협력팀장은 “R&D, Think Tank와 Do Tank”의 역할을 겸비한 공간을, 함께일하는재단 김창주 전략팀장은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 해소를 위해서 절실한 멘토와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한다.[34]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2012년 4월 4일 청년일자리허브 설치·운영계획이 수립된다. 여기서 청년허브는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을 제시하고 서울시 정책과 청년일자리를 연계하며 청년을 서울시 일자리 경제 활성화의 주체로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구상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일자리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교육 및 정책개발, 국내외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혁신적 신규 사업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

34) 청년허브 조성 TF에 참여한 하자센터 임경진 대외협력팀장과 함께일하는재단 전략팀장은 이후 2012년 3월에 결성된 청년기획TF팀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창조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현장의 요구를 읽으면서 혁신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목적 하에, 민간 위탁의 운영방법이 선택되었다.

[표 3-5] '청년일자리허브 조성' 정책추진과정 비망록

정책명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허브 조성	사업기간 및 예산액	2013년 3,026백만원
추진배경	청년실업이 지속됨에 따라 청년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일자리 역량 강화·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일과 삶'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전문 시설의 설치 운영 필요		
추진경과	•'11.12.6 : 청년일자리정책 청책워크숍-정책제안 •'12.1.~2 : 일자리대책회의(2회), TF회의(3회) •'12.10.12 :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원안가결 •'12.4. 4 : 청년일자리허브 설치·운영계획 수립 •'13.4.11 : 청년일자리허브 개관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일자리정책과 : 설치·운영 계획수립, 민간위탁 추진 •연세대학교 : 리모델링공사 및 위탁사업 운영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아름다운서당, 두꺼비하우징, 지구마을 청년대학, 열정대학,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씽크카페, (재)CBS, 청년유니온, 문화로놀이짱 등 40여개 단체		

서울시 「2013년도 정책자료집-청년일자리허브 조성」 중 발췌

설치·운영계획 수립 직후 서울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237회 시의회(2012.4.6.)에 상정하지만, 재경위 심의 결과 제237회 보류와 제238회 미상정을 거치며 제240회 시의회(2012.9.10.)에서 검토되게 된다. 그러나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임위 원안가결 후에도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형식 의원에 의해 관리·운영 주체의 공정성과 공공성 담보 곤란을 지적받으며 부결되었다. 시의회의 지적사항을 보완한 후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12.10.12.)에서야 동의안이 원안가결되고 이후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2012년 12월 연세대학교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다.[35] 이로써 2011년 말 청

35) 연세대학교는 1999년부터 하자센터 역시 서울시로부터 수탁 운영해왔으며, 청년허브의 초대 센터장은 일자리 대책회의와 청년허브 조성 TF에 참여했던 전 하자센터 센터장 전효관이 맡게 되었다. 2011년 하자센터에서 열렸던 청책토론회에서 박원순 시

책토론회에서 제안되고 2012년 초 서울시와 민간 전문가가 구상했던 청년을 위한 연구, 실행, 지원이 일체화된 청년 전담기관으로서의 청년허브는 예정보다 8개월 늦춰진 2013년 4월 정식으로 개소하게 된다.

(2) 청년허브의 작동

위에서 보았듯이 공적 문건 상으로 드러나는 청년허브란 요컨대 서울시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담당하기 위한 민간위탁기관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청년허브의 설립 이전에 박원순 시장이 보여 온 청년문제에 대한 입장과, 설립 이후 이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이 공간이 단순히 청년실업대책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공간적 측면을 중요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청년허브가 사업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기관인 동시에 일반 청년들이 자유롭게 방문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용 공간이기 때문이다. 현재 청년허브가 위치하고 있는 건물은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舊 질병관리본부를 리모델링한 곳으로 청년허브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같은 날 개관하여 부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 부지에는 2012년에 개관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2013년에 개관한 노년층 취·창업·사회공헌 지원기관인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및 창조인력 전문 양성기관인 서울크리에이티브랩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곧 청년과 노년이라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전담하는 기관과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창조인력의 활성화를 전담하는 기관을 근접한 위치에 배치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각 사업과 관련된 인력과 정보가 가장 집약적으로 모여드는 곳으로, 청년허브를 이용하는 청년들은 인접 기관들과의 교류 속에서 특정한 정보와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36]

장은 하자센터와 같은 기관들이 여럿 복제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데, 실제로 청년허브의 구상과 실행에는 하자센터와 그 네트워크의 유관 인물들이 주요 싱크탱크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36) 청년허브를 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 인접 배치하여 창업, 네트워크 기능 등을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는 청년허브 설치·운영 계획안에도 명시되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이 부지를 다양한 혁신기업과 단체를 유치·육성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혁신파크'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해왔고(2013.5. 기본계획안 발표, 2014.4. 조례(안) 공청회 개최), 2014년 4월 '경제비전 2030-서울형 창조경제 모델' 발표에서 상암 DMC와 함께 창조·문화산업 혁신기지로 제시한 바 있다.

청년허브의 공간 규모는 총 1,782.19㎡(539평)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보다 카페[37], 공동주방, 세미나실, 작업용 공작실, 다목적홀 등 공용 공간과 청년단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무실에 보다 넓은 면적을 할당하고 있다. 공용 공간들은 일반 시민, 단체 및 기관, 기업 등에게도 대여가 가능하지만, 주로 청년허브 자체 사업, 청년허브 입주 단체 또는 청년허브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단위의 사업에 활발하게 사용된다. 아래에서 인용하는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 개관식 당시 박원순 시장의 연설 내용은 청년허브가 청년들에게 어떠한 위상의 공간으로 의미화 되도록 기획되었는지 보여준다.

> 앞으로 이곳이 청년들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에게 신나는 일터, 재밌는 놀이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의 미래를 만드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청년의 일자리는, 내일 서울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꿈을 갖고 일하느냐가 10년, 20년 뒤 우리 사회, 우리 미래의 모습이지요. … 이곳은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먹고, 자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인 '무중력지대'를 만들어 청년들이 꿈꾸고, 꿈을 이루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신나는 일터, 재밌는 놀이터",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의 공간", "청년들이 꿈꾸고, 꿈을 이루면서 살기"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라는 표현들에서 청년허브는 청년고용촉진이라는 제도적 목표 이상의 의미를 담지하는 공간으로 확장된다. 청년허브의 고안 과정에서 설정되었던 청년 일자리 전담기관이라는 정체성은 민간위탁 이후 당사자들을 이 공간으로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언어로 번역되는 모습을 보인다. 청년허브는 붕괴된 학교-직장 이행을 원활하게 하거나 청년 실업자들에게 기존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대신, 이미 도처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한 데 모아내고 지원하는 역할을 자처한다. 이곳은 "청년이 만나고, 함께 배우며, 협력하고, 일을 찾아, 삶을 가꾸며, 공동체와 사회를 품어나가는 플랫폼"(2013 연차보고서)으로 표현된다. '일'의 이전에는 만남, 학습, 협력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삶, 공동체, 사회가 있다. 청년의 일자리란 경제적 노동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삶의 과정과

37) 청년허브에 위치한 '창문카페'는 카페 협동조합인 '우리마을카페오공'의 조합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 활동가 및 단체는 카페 이용 시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사회적 가치 속에서 맥락화된다.

이러한 전제는 청년허브가 실시하는 사업들[38]을 통해 명확해진다. 아래의 [표 7]은 청년허브 홈페이지의 사업소개란과 2013년도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중에서 청년 당사자들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주요 사업들의 사업명, 사업내용, 모집대상, 참여인원을 정리한 것이다.

[표 3-6] 청년허브 주요 사업 개요(2013)

사업 분야[39]	사업명	사업내용	모집대상	참여 인원
커뮤니티·네트워크	청년참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와 관계망 형성 지원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생태환경, 학습모임 등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사회의 변화를 위해 즐겁게 활동하는 모임을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움직이는 최소 3인 이상의 청년커뮤니티	112팀 (600여명)
	청년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시도하는 청년단체 프로젝트 지원	단체의 자체 사업 및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며 청년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	19팀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이 직접 서울시 청년정책을 만드는 거버넌스 프로젝트	서울에 살고 있거나 활동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249명
혁신적 일자리	청년학교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현장 기반의 청년 인재 양성 학교	공공영역과 사회적 문제에 관심과 의지를 갖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보려고 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	146명
	청년혁신 활동가 양성 사업	자기 관심과 적성에 따른 활동, 공공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더 많은 경험과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19~39세 서울거주의 청년	117명
	워킹그룹 프로젝트	청년문제 해결형의 혁신적 일자리를 구체적 실행으로 현실화하려는 청년그룹 지원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및 계획이 있는 단체, 또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청년단체	12팀

38) 2013년도 청년허브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르면 세출 합계 약 44억 원 중 18억 원 가량이 사업비로 지출되었다.

2013년도에 실시된 청년허브의 사업들은 크게 청년들의 공동체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사업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자 모색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나아가 각 분야의 사업들은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과 청년 개인을 양성하고 주체화하는 사업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다음은 이들 사업을 그 분야와 방향에 따라 유형화한 것이다.

[표 3-7] 청년허브 주요 사업 유형화

	커뮤니티・네트워크	혁신적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참, 청년활	워킹그룹
양성사업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학교, 청년혁신활동

우선 지원사업은 우선적으로 일정한 지원금을 청년단체에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단체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청년참’은 최소 3인 이상의 소규모 청년커뮤니티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청년활’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최소 3인 이상의 청년단체 프로젝트에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워킹그룹’은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적 실천을 통해 사업화하고자 하는 청년단체에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곧 청년허브의 지원사업은 각각 커뮤니티, 활동, 사업화를 인큐베이팅 하는 프로젝트로서 청년들의 자발적 공동체, 사회적 활동, 일자리 개발을 단계적으로 장려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양성사업은 청년들을 개별적으로 모집하여 특정한 교육과정과 활동 경험을 제공한다. 앞 절에서 보았듯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서울시와 청년의 거버넌스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실험이기도 하지만, 이는 단지 청

39) 개별 지원사업 이외에도 청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개최 사업으로서 ①세바시 청년: 청년의 감동적인 혁신 사례, 도전, 스토리를 알리는 강연 플랫폼(2,731명), ②국제컨퍼런스 ‘삶의 재구성’: 저성장 시대, 연대와 협력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청년단체 간 국제 교류 행사(약 700명), ③청년 포럼・열린 모임: 다양한 청년이슈를 논의하고 배움과 활동을 공유하는 열린 교류의 장(각 약 460명・800명) 등이 진행되었다.

년이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책위원 개개인이 사회적 문제 진단, 정책 구상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적극적 시민'으로 양성되는 과정을 수반한다.[40] 4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청년학교'를 통해서 청년들은 공공영역과 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한 현장에서 구체적인 일 경험을 익히게 된다. '청년혁신활동'은 일반적인 단기 인턴십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일자리 사업장에 제한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활동가 양성사업으로 기능한다.

청년허브라는 새로운 장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업들의 배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라는 명칭 하에 실시되는 서로 다른 결의 사업들은 현재 청년 전반의 '일자리'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각 사업의 실질적인 목표는 무엇이며, 이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추진되고 달성되는가? 위의 유형화를 바탕으로 다음 소절에서는 커뮤니티·네트워크-지원사업으로서의 '청년참'과 혁신적 일자리-양성사업으로서의 '청년혁신활동'을 대표적 사례로 들어,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과정의 특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3) 세부 사업 분석: '청년참'과 '청년혁신활동'[41]

'청년참'은 세 명 이상의 청년들로 구성된 커뮤니티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커뮤니티는 자신의 활동소개·구성원

---

40)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종료 후 발간된 최종자료집 『2013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이디어북』에 수록된 한 청년정책위원의 인터뷰는 이러한 지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 한편으로 삶을 나쁘게도 만들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이렇게 정책위원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시민의식, 권리와 의무의 측면에서 시민으로서의 의무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그 고민으로서 지금까지는 하나의 시민으로 소극적인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시민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책위원을 넘어서 시민으로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할 것이다." (35)

41) 이 소절에서 직접인용된 구절은 '청년참'의 경우 『2013 청년참 디렉토리북: 청년참은 사건이다』를, '청년혁신활동'의 경우 『청년혁신일자리 가이드북: 2013 혁신활동가 양성사업으로 본 청년의 내 '일'』을 출처로 한다. 이들은 각 사업의 종료 이후 청년허브의 기획으로 사업 참여자들이 활동 기록을 정리하여 발간한 책자이다.

소개·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 등을 골자로 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청년허브에서의 그룹인터뷰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2013년 청년참에서는 총 157팀 중 112팀(활동인원 약 600여 명)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지원금 100만원과 함께 청년허브 페이스북 그룹에 월 1회 이상 활동 내용을 올리고, 매월 열리는 '커뮤니티 반상회'에 총 5회 이상 참석하며, 활동을 정리하는 최종 결과물과 정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여기서 '청년커뮤니티'란 어떠한 성격의 모임을 지칭하는가?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자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사회의 변화를 위해 즐겁게 활동하는 모임을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움직이는" 공동체이다. 곧 청년들의 자생적 모임이면서도 사적 모임이지만은 않은 형태의 공동체가 요구되는데, 사업 담당자에 따르면 선발 기준은 "자발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의미의) 확장성"(5월 선정결과 발표 중)이라는 세 가지의 가치로 압축되었다. 얼마나 자발적으로 꾸려진 활동인가, 얼마나 일상 속에서 긴 호흡으로 고민하고 있는 활동인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커뮤니티의 경험을 나눌 의지가 있는가의 문제로 풀이되는 이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의 세련됨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열정과 의지, 고민의 정도, 배려심과 같은 내적인 부분"(6월 선정결과 발표 중)으로 판단된다.

기획 당시 청년참 사업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거대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작은 시도를 하는 청년들에게 새참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297)는 문제의식에서 구상되었다. 외부적 자원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아 활동의 지속이 어려운 청년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기획의도는 자신이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청년들을 자연스럽게 청년허브로 불러들이게 된다. 이들이 하고 있는 활동의 분야가 무엇인가, 활동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 내는가의 문제는 선정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모집 당시 예시되었던 활동분야는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생태환경, 학습모임 등이었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112팀의 커뮤니티들은 공예, 출판, 복지, 지역, 생태, 정치, 공연, 영상, 문화기획, 학습, 기행 등으로 다시 분류되었다. 사업 담당자는 청년참에 참여한 커뮤니티들의 경향성을 취미로 모인 커뮤니티, 대학생이 중심인 커뮤니티, 조직에서 파생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생

계유지를 고민하는 커뮤니티 등으로 구분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만큼 이질적인 성격의 집단들이 '활동하는 청년들의 커뮤니티'라는 느슨한 공통기반 위에서 묶일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매월 열리는 커뮤니티 반상회는 교류의 기회 없이 파편화되어있던 개별 커뮤니티들을 한 자리에 모아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하는 장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커뮤니티가 참여하도록 되어있는 반상회에서 이들은 자신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연락처를 교환하며, 함께 부스를 마련하여 장터를 열거나 오픈테이블에서 고민을 공유한다. 이러한 네트워킹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의 존재"를 앎으로써 "커뮤니티 관계에 지쳐도, 남과 다른 선택에 막막함이 밀려와도 버틸 힘이"(298) 생기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규모 청년 커뮤니티들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 존재의 유무조차 알지 못했던 다른 커뮤니티와 협력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경험과 성장은 사업 종료 후 각 커뮤니티에게 원고를 받아 발간한 최종자료집에서 정리된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 중 세 커뮤니티가 청년참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는 부분이다.

> 청년참, 청년허브라는 울타리를 만난 요즘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 같은 사회부적응자들도 마음 편히 비빌 자리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아현동쓰리룸', 151).

> 청년참 지원 선정으로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걸까?'하는 의심에서 '인정받았어! 뭔가 하고 있는 게 맞구나!'하는 확신과 희망을 얻을 수 있었던 것. … 친구들의 '잘한다'는 한 마디도 도움이 되었지만, 청년참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모임 한 번 잘 해봐, 밀어줄게!'하고 인정받은 느낌? 그 덕에 '기왕 인정받은 거 어디 한 번 뭐든 더 해보자!'하며 날개를 달고 모임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이꿈',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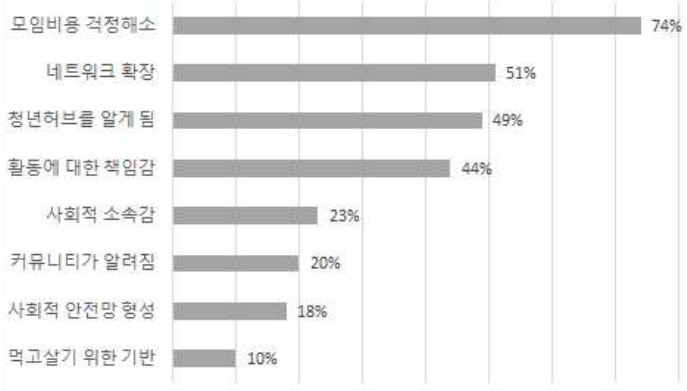
> 청년참으로 우리는 활동하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청년으로서의 활동과 권리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으며 다른 커뮤니티를 만나는 기회의 장도 마련되었다('참웹', 241).

위의 서술에서 청년참은 활동비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시책 이상의 가치를 부여받는다. 스스로를 '사회부적응자'로 표현하는 이들에게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울타리이며,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의 의미를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권위이다. 청년참 자체는 1억 원 규모의 작은 사업이지만, 사업담당자는 개별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 채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 시켜 줌으로써 발생할 것이라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에서 그 의의를 찾는다. 이들이 각자 "무슨 활동을 하느냐는 중요했지만 전부는 아니었"(297)으며, 활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개인의 내면적 열정과 진정한 자발성을 발견하는 일이 더 중대하게 평가되었다.

요컨대 청년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는 청년고용문제가 언급되지 않으며, 노동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소규모 공동체의 인큐베이팅과 그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그곳에 속해 활동하는 청년 주체를 발굴하는 과정이 핵심에 위치한다. 청년허브에서 청년참 커뮤니티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역시 이와 조응하는데, 청년참이 '먹고살기 위한 기반'에 영향을 주었다는 답변은 10%에 불과한 반면에 대다수의 답변은 네트워크 확장, 청년허브라는 공간의 인지, 활동에 대한 책임감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3-3] '청년참'이 개인(또는 커뮤니티)에 미친 영향



그렇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어떠한가? '청년혁신활동가 양성 사업'(이하 청년혁신활동)은 청년미취업자를 공공일자리 현장에서 9개월 동안 근무하게 하는 사업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기존의 정량적이고 제도 의존적인 해결책 대신 청년의 자발성과 동기에 주목”(5)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청년혁신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인턴이나 노동자가 아니라 활동가로 명명되며,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한다고 표현된다. 2013년도 1차 사업을 통해 청년허브를 포함하여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만들기 등 공공일자리로 분류된 총 21개 사업장에 117명의 청년들이 배치되었다. 경험을 통해 쓰는 자기소개, 자신의 장점 및 보완점, 지원동기 및 포부를 작성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 청년들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1일 39,000원, 주·연차수당 지급, 1일 8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하에 활동하였다.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정부 지원 인턴제와 동일한 청년혁신활동 사업이 차이점을 가지는 지점은 현장에서의 근무 경험 이외에 청년허브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서 나타난다. 혁신활동가들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공통교육을 수료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간에도 청년허브에서 커뮤니티형 교육과 1박 2일 공통 워크숍을 받으며, 활동 종료 이후에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세 명의 활동가가 대표 사례로 선정되어 9개월 간 자신이 경험한 활동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강단에 올라 자신이 겪은 청년혁신활동 과정의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활동에 부여하는 의미를 청중 앞에서 역설한다. 아래의 사례는 비영리단체 희망청이 운영하고 함께일하는재단과 사회적기업 노리단이 후원하는 지역 커뮤니티 대학인 ‘마포는대학’에 배치된 활동가의 발표 내용이다. 이 활동가는 마포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빈곤층 주민들과 화단 가꾸기, 뜨개질 등을 함께하는 일을 경험했으며, 이와 같은 ‘쓸모없는 일’이 ‘지구를 구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그래서 ‘너희가 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보통 생산성을 놓고 보잖아요. 어떤 필요가 있었고 그 필요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냈느냐인데, 만약 그 기준으로 봤다면 할 수 없었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잉여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과 일할 필요가 없는 주민들이 만나서 밥 같이 먹고 뜨개질하는 일들이 쓸모없는 일일수도 있지만, 이게 어쩌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인 것

같은 그런 단서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허브가 하는 일을 쭉 보시면 이건 완전 지구를 구하는 일이에요. 인류가 처한 대위기를 청년들이 호기롭게 보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쓸모없는 일과 자본주의에서 보여지는 잣대로만 보기에는 저희가 지구를 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48-49).

활동가 개개인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교육의 사례는 전체 활동을 매듭짓는 교육으로서의 '자기 정리 워크숍'이다. 이는 모든 참여자가 한 곳에 모여 '나'와 '일' 그리고 '우리'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를 가짐으로써 자신이 어떤 성장을 했는지 위치 짓는 일종의 의례였다. 1부에서 청년 활동가들은 "추상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벗어나 구체적인 나의 성장 이야기하기"(71)라는 주제 하에 활동을 통해 어떤 성장을 하였는지, 그 성장에 은인 혹은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이나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활동에서의 소통과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2부에서는 "자기경험과 자기감각을 믿고 붙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자기언어"(76)가 획득됨을 학습하고, 글쓰기 강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자기정리 글을 작성한 후 공유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며 활동가들은 자신의 경험을 복기하고 그 의미를 성찰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아래에 제시된 인용문은 이 워크숍에 참여한 두 명의 활동가가 작성한 자기정리 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사례 1)은 공공일자리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참여자의 극적인 변화를 묘사하며, 사례 2)는 주체적 삶의 현장을 찾아 청년혁신활동에 지원한 참여자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1) 처음 청년 혁신 활동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뭐지?', '내가 왜 이걸 듣고 있지?' 라는 엄청 삐딱한 생각들로만 가득했다. 난 단지 일하고, 돈 벌려고 온 건데… 당연히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NGO가 무엇인지, 민간단체가 무엇인지… 청년 혁신에서 말하는 활동가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 끝났다. 그 혼란은… 새로운 세상이었다. 항상 나는 빈곤, 기부, 봉사에 대해 내가 빈곤한데 누굴 돕고, 누구에게 기부해!!! 라는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다시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따뜻하게 바라 볼 수 있는 시각을 배우게 해 줬다. 청년 혁신 활동을 시작하면서 참 많은 불만으로

시작은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나에게 또 다른 세상을 가르쳐 준 청년 혁신에게 감사하다(80-81).

사례 2) 29살이 된 올해 초부터 어떻게 하면 삶을 기계적이고 소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체적이고 자신의 행복에 보다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청년혁신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과 단체들을 만나고 보고 대화를 나누고 상황들에 직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소통과 관계의 즐거움을 배웠으며, 선한 뜻을 품고 열정적으로 각 영역에서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내겐 모든 것들이 자극으로 다가왔고, 그런 상황 하나하나가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내면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 올해의 새로운 시도였던 청년혁신활동가로의 경험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값진 경험이었다(83-84).

흥미로운 지점은 혁신활동가들에 대한 기초현황조사[42]에 의할 때 사례 1)과 같은 단순 구직을 위한 참여자는 15%에 불과했으며, 사회혁신에 관련한 경험 및 관심도를 이유로 청년혁신활동에 참여한 청년들이 82.5%에 달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활동가들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86.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대학원 이상 졸업자 또한 13.1%에 달했다. 공공근로의 신청자격인 청년 미취업자 및 실업자라는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고학력 기취업자의 참여율이 46%로 높았다는 지적(92)은, 청년혁신활동 사업이 청년실업자들을 활동가로 명명하고 일자리에 배치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는 단기 대책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단순 근로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참여하기에 청년혁신활동의 노동조건은 객관적으로도 열악하며, 주관적으로도 참여자들 사이에서 불만을 야기한다. 그러나 월 100만원 미만의 최저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 고용승계 없는 9개월이라는 짧은 업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혁신활동가'라는 정체성을 통해 자신의 일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청년들은 혁신활동의 차별성으로 참여자가 일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지적한다(89).

42) 이 조사는 청년허브뿐 아니라 청년혁신활동가 사업 위탁기관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한 전체 참여자 19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사업 종료 후 청년허브가 총 28명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그룹인터뷰에서 한 참여자는 혁신활동 참여 경험이 “경력형성에는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활동가라는 타이틀 때문에 좋았다”(104)고 대답한다. 다른 참여자는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주체이면서 목적이 되는 활동”을 했고 “이 영역의 주체가 되었다”(107)고 말한다. 여기서 ‘이 영역’이란 사회적경제, “사회혁신이나 공적인 일, 소위 말하는 좋은 일”을 지시한다. 많은 참여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일반적인 청년”, 곧 사회적경제 영역에 관심이 없는 청년에게는 사업 참여를 권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데, 이 지적을 청년허브 측에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사회서비스를 청년의 힘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혁신활동가의 취지가 충실히 이해되고 수용된 측면”으로 해석한다. 일자리 사업으로 기획된 혁신활동가 프로그램은 여기서 “청년들이 사회적경제에 진입하는 과정의 징검다리”(96)로 재정의되며, 이는 청년이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자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으로 의미화된다.

3. 청년허브의 역할과 ‘활동’의 의미론

1) 청년 참여와 시민운동의 제도화

지금까지 살펴본 청년허브의 작동 방식은 청년 일자리 전담기관이라는 목적에서 연상되는 사업들의 구현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기존의 청년고용대책이 실업률·고용률이라는 지표상의 청년을 관리하고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청년허브는 개인으로서의 청년을 응시함으로써 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위기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물론 현재 청년이 처해 있는 구조적인 위기는 기정사실로 인지되지만, 이들은 제도의 일방적 지원대상이 아니라 이 위기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만 하는 개별적인 주체로 호명된다. 아래에 인용한 청년혁신활동 자료집의 제언은 청년허브의 이러한 입장을 집약하여 드러내고 있다.

>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오늘 청년이 겪는 어려움과 곤란함은 다른 누구도 아닌 청년 스스로 극복해야 할 조건과 상황입니다. 청년이 능동적인 해결주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양이 아닌 질,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물음을 놓쳐선 안 됩니다. (『청년혁신일자리 가이드북』, 91)

'취업하고 싶은 청년들은 눈높이를 낮추라'는 식의 일차원적 담론이 지배적이었던 국가적 시각에서, 청년의 자발적인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란 201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부각된 변화이다. 그러나 사실상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자의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적 흐름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영국과 호주를 비롯한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 뚜렷하게 관찰되어 온 바 있다(Bessant, 2003; 2004; Bragg, 2007; Black, 2011; Raby, 2014 등). 높은 청년실업, 청년빈곤 등 유사한 청년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의 청년정책에서 청년 참여(youth participation)라는 개념은 거의 필수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는 청년의 시민권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동시에, 청년을 공적 담론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스스로를 서사하고 '청년'이 표상되어 온 기존의 방식에 저항할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변화로 제시되었다(Bessant, 2003: 87).

그러나 일부 논자들에 의해 이러한 정책상의 관점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통치 방식이자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기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청년 참여라는 개념은 복잡한 논쟁의 장이 된다. 이에 따르면 청년 참여를 주장하는 공적 담화는 청년에 대한 관리를 확장하도록 고안된 전략, 곧 정부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로서의 청년 당사자를 사회에 재연결하거나 통합시킴으로써 통치하려는 전략이다(Bessant, 2003: 88-89). 이는 관리의 대상을 권력의 시선에 자발적으로 노출시키며, 억압이나 개입과 같은 직접적인 형식이 아니라 청년들의 규범, 선호, 역량과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거리를 두고 작동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사례가 된다(Bragg, 2007: 355). 이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 스스로 지는 기업가적 주체(enterpreneurial subject)로서의 청년이다.

참여를 둘러싼 논쟁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기획의 한 부분인지, 재유행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참여의 한 부분인지, 푸코식의 통치

성 발전의 한 부분인지, 이 모든 것의 혼합이거나 이 중 일부인지, 혹은 여타 담론과 분석틀이 현재 제공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게 명명되어야 할 상당히 다른 무언가인지" (Fielding, 2004: 198)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청년 참여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모호해지는데, 빈곤층·홈리스·마을주민 등 역량강화(empowerment)를 중심으로 참여가 촉진되는 다른 관리 집단들과는 달리 청년이라는 기표에는 본래 역사적으로 형성된 운동 주체이자 사회의 미래[43]로서의 기의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는 청년의 집합적 표상은, 청년실업이 하나의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시점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주체의 상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청년허브의 사업방향을 규정하는 발화는 청년이 능동적인 해결주체로서 스스로 지금의 조건과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서 제시한다. 해결주체로 나선다는 것은 특정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외부에 요구하는 것, 예컨대 효과적인 실업대책 마련과 청년 복지 개선책의 강구를 국가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안을 구상해내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4] 앞 절에서 검토한 공동체 사업과 일자리 사업의 의미는 '커뮤니티(관계)가 곧 복지다', '일자리가 곧 복지다'와 같은 프레임 속에 압축되며 청년은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복지를, 나아가 현재로서는 부재하는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창출해야 하는 주체가 된다.

---

43) '미래의 가능성'으로서의 청년에 대한 관념은 청년의 참여를 통해 국민국가 건설, 사회적·도덕적 규범 회복, 경제의 재활성화 등 일련의 결과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설명한다(Bessant, 2003: 91).

44) 이러한 의식은 실제 활동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일례로 본 연구의 면담자 중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바>단체의 구성원들은 집회와 시위 등의 권리 행사를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주체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물론 그 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고,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더 좋은 혜택 같은 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뭔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면 아 이거가 불만이니까 빨리 대책을 강구해 줘, 빨리 대책을 강구해 줘,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데, 빨리 대책을 강구해 줘 라기보다는 대책을 조금 생각해보고 그걸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영)

"불만 있으면, 정말 불만만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아니 불만이 있으면 좀 불만 있는 거에 대해 해결책도 갖고 올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남들에게 떠맡기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 못 하겠으니까, 나 혼자 못하겠으니까 니들도 같이 해줘, 이런 느낌만 받지, 사실 딱히 그런 해결책은 못 봤던 것 같아요." (재원)

요컨대 청년허브는 형식적으로 인큐베이팅 자금이나 인턴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기에 앞서, 특정한 방향의 학습과 성장의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을 그 주체로 호출하는 주체 생산 기제이다. 이곳에서 청년들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삶을 사회적 활동 내지 일자리와의 연관 속에서 성찰하는 주체가 된다. 그러나 이는 청년을 청년문제와 보다 광범위한 사회문제의 해결주체로 설정하고 스스로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자립성과 능동성을 이상적인 청년상으로 상정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신자유주의에 적합한 주체화 기획과도 공명할 위험을 가진다. 청년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청년 활동가들의 발명은, "사회적 권리의 주체들이 자신들 스스로를 사회적 책임의 담당자로 변형시키는"(김주환, 2012: 211) 역설적 현상을 야기한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지닌다.

그런데 청년의 참여를 통한 통치의 강화라는 해외의 이론적·경험적 사례는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서울시장 당선이라는 사건의 맥락 속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청년 주체를 참여시키는 청년허브의 작동을 박원순 시장이 단행해 온 참여적 시정개혁의 하위 범주로 위치시킨다면, 이는 거버넌스 개념의 유행 이후 제도화된 시민참여의 상당 부분이 관료적인 '말의 정치'(politics of talk)에 불과할 수 있다는 기존의 비판(Irwin, 2006: 299)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청년허브의 사업들에서 보다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은 참여 절차의 확보를 넘어 청년 개개인의 역능을 강화(empowerment)하려는 노력이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년참에서도, 공공일자리 인턴프로그램인 청년혁신활동에서도 청년허브의 서로 다른 사업 담당자들이 주시하는 것은 개인의 내적 성장과 당사자 간의 연대이다. 말하자면 청년허브가 관리하고자 하는 한국사회의 청년이란 통치 대상으로서의 청년 실업자이기보다는 의식화 대상으로서의 성찰적·실천적 청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년허브의 고안 과정에서 반영된 의견이 누구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현재 청년허브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이 누구인지와 무관하지 않다. 앞에서 보았듯 청책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년들은 청년유니온 활동가와 청소년인권활동가 등 대부분 청년운동의 당사자였으며, 청년허브 조

성 TF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자센터, 함께일하는재단 등 시민운동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었다. 청년허브의 현 센터장은 하자센터의 설립자이며, 민간위탁 기관은 하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이다. 청년허브가 시행한 청년의제 연구조사 사업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과 문화사회연구소에 위탁되었다. 아래는 2013년 발표된 청년허브 설치·운영계획의 운영 체계 항목 중에서 협력 대상인 민간 청년 일자리 관련 단체가 제시된 부분이다.

[표 3-8] 청년허브 설치·운영계획 운영 체계 중 청년 일자리 관련 단체

청년 당사자 단체	씽크탱크 및 사회혁신단체	중간지원단체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 신진다큐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빈집, 텀블벅, 골목바람, OO은대학, 헤드에이크	희망제작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씽크카페 (더체인지)	함께 일하는 재단

공식적으로 청년일자리 전담기관인 청년허브는 서울시 청년고용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곳은 시민운동의 주요 아이디어들이 작금의 청년문제를 중심으로 사업화되어 청년 당사자들을 통해 실현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오랜 딜레마는 제도화를 통해 자원, 공간과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대안적 삶을 갈망하고 있던 청년들에게 유력한 선택지로 재등장하게 된다.

(2) ‘활동’의 의미론

제도화된 시민운동으로서의 청년허브는 어떻게 효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 예컨대 사회적기업육성법 통과와 중앙정부 각 부처의 집중적 사업 실시 이후 사회적기업 열풍이 불었던 것과 같이 일차적으로는 제도화에 의한 재정 확보와 사회적 인정에 따른 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는데, 자발적 실천을 통해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조건을 새롭게 조직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의 경

우, 특히 기존의 이념적·조직적 운동방식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감정적으로 동화시킬 수 있는 의미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본 소절에서는 청년허브가 성공적으로 활용한 의미론이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이 용어가 어떻게 특정한 인간 행위를 의미화하는 하나의 새로운 개념으로 구축되고 있는지 추적하고자 한다.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인간이 육체를 움직이는 물리적인 행동 일반을 지칭하거나, 봉사활동·동아리활동 등 어떠한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힘쓰는 행위를 의미하는 일상적 용어이다. 그러나 한국의 의미론적 맥락에서 활동하는 사람, 즉 '활동가'는 activist의 역어로 '운동가'와 대체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9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시민단체·비영리단체의 상근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활동은 운동과 유사어로 간주된다.[45]

앞 절에서 검토한 청년허브의 사업들에서 드러나듯이, 이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청년고용이나 청년실업이 아니라 '활동'이다. 대표적인 예로 모든 지원·양성사업 공고의 모집대상은 '활동하는 청년'으로 압축된다.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활과 청년 활동가를 양성하는 청년혁신활동과 같이 사업명에서 명시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청년참은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생태환경, 학습모임 등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사회의 변화를 위해 즐겁게 활동하는 모임을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움직이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고 청년학교는 "공공영역과 사회적 문제에 관심과 의지를 갖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보려고 하는" 청년을 모집한다. 워킹그룹 프로젝트는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및 계획이 있는 단체"를 지원한다. 여기서의 활동은 운동과의 동의어이거나 시민단체 상근을 지칭하는 경우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청년허브가 명확한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며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

45) 청년허브에서 개최된 이슈포럼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청년의 일, 노동인가 활동인가?'에 참여한 한 청년유니온 활동가는 "활동 개념이 나온 것이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이 활동가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운동이라는 용어가 가지게 된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 사회운동과 구별되고자 하는 운동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이 포럼에 대해서는 이후에 상술하도록 한다.

지만, 몇 가지 용례들을 통해 청년 활동이라는 행위 형태의 의미론을 추출해볼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차례대로 청년허브, 청년학교, 청년활, 청년혁신활동, 청년참과 관련된 텍스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사례 1) 몇 년 전, 청년에게 **자신의 열정을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광장 같은 공간이 주어지면 어떨까? 상상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귀 기울일 수 있고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 **자신과 사회를 연결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공간. 그래서 저는 청년허브를 일, 삶, 활동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허브 소개 팜플렛 중 전효관 센터장의 글)

사례 2) 각 분야별 담임들은 지역자치, 협동경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길을 안내하고, 청년은 기존의 트랙과 스펙 쌓기에서 벗어나, 스스로 활동할 현장을 찾고 동료들과 멘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일과 삶이 어우러지는 도전과 실험의 학습과정,** 불안과 고립을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실습과정, 이 과정에 동참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복잡한 현실문제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대안과 변화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면**, 동료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 협동하면서 현실의 벽을 뚫고 나가보고 싶다면, 작은 현장에 몰입하면서 구체적인 일 경험을 익히고 싶다면 … 청년학교는 앞으로 **공공영역에서 활동할 새로운 청년 사회적 활동가, 공공활동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2013년 청년학교 모집공고문 중)

사례 3) 우리가 오랫동안 활동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청년활동활성화사업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더 오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활동생태계를 다양화하고 활성화합니다. (청년허브 홈페이지의 청년활동활성화 소개란 중)

사례 4) 청년혁신활동은, 좋은 일자리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공공의 일경험을 통해 역량을 배양하고, 공공일자리를 발굴**하는 디딤돌 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주도적인 일의 경험을 통해 주어진 환경을 능동적으로 극복**하는 디딤돌 일자리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청년혁신활동 상반기 모집공고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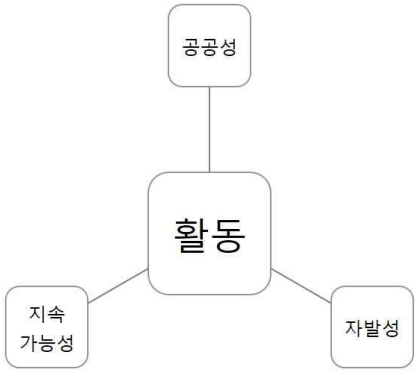
사례 5) 커뮤니티는 '관계'와 '활동' 두 바퀴로 굴러갑니다. 관계만 있으면 친목모임이고, 활동만 있으면 회사와 같은 딱딱한 구조가 됩니다. 딱딱해지면 빨리 그만두고 싶고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에서 **활동은 관계 속에서 함께 '놀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2013 청년참 디렉토리북: 청년참은 사건이다』, p.294)

위의 용례를 포함하여 청년허브의 담론 전반에서 첫 번째로 읽어낼 수 있는 활동의 속성은 공공성이다. 활동이란 “자신과 사회를 연결시킬 수 있”고 “복잡한 현실문제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대안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행위이다. 활동하는 청년이란 “청년 사회적 활동가”이자 “공공 활동가”로 명명되며, 이는 공공영역 또는 제3섹터에서 직업을 구하는 것 뿐 아니라, 수익성이 없는 행위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사회의 변화를 위해” 힘쓰는 일까지 포함한다.

세 번째 속성은 청년 주체의 자발성이다. 활동하는 청년에게는 “기존의 트랙과 스펙 쌓기에서 벗어나, 스스로 활동할 현장을 찾”을 것이 요구된다. 활동 과정에서 이들은 “주도적인 일의 경험을 통해 주어진 환경을 능동적으로 극복”하며,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행위라 할지라도 이에 참여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는 활동은 기각된다.

세 번째 속성은 경제적 지속가능성이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활동에 지속가능한 물적 기반이 요구됨을 의미하며, 활동을 노동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수익성이 있는 ‘일’의 형태로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추동한다. “청년들이 공공의 일경험을 통해 역량을 배양하”는 것, 협동경제와 사회적기업,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일하는 것이 활동으로 불릴 때, 이는 “일과 삶이 어우러지는” 장으로서의 활동이 기존의 사회운동과는 달리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는 속성으로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2] 청년 활동의 의미론적 구성 요소



요컨대 청년허브에서 생산되는 담론에서 읽어낼 수 있는 청년 활동이란, 청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기획하는 행위이면서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일시적인 에피소드가 아닌 지속가능한 기반을 갖춘 행위이다. 현대사회의 분화된 장 속에서 쉽게 공존할 수 없었던 이러한 가치들의 동시적 추구가 활동이라는 행위의 이념형을 구축한다. 이상적인 활동은 운동의 속성을 지니면서도 개인을 억압하거나 경제적 기반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노동의 속성을 지니면서도 공적인 의미를 탈각시키거나 개인을 소외시키지 않아야 한다. 현실세계 속에서 활동의 구체적인 형태는 제3섹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여, 이러한 가치들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대립을 조율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는 활동을 다루는 담론에서 선언되는 바와 같이 용이하게 달성되는 일은 아니다. 동일하게 활동이라는 용어로 규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전통적인 시민운동의 형태에 가깝게 간주하는 행위자와 일반적인 임금노동의 하위 범주로 인식하는 행위자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일례로 2014년 3월 26일 청년허브에서 개최한 이슈포럼인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청년의 일, 노동인가 활동인가?"는 이 과정에서 노출되는 딜레마를 직접적으로 다룬 바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이 포럼에서 제공했던 유인물에서 발췌한 것이다.

> 문제의식이 구체화된 계기는 '서울Job스 청년취재단'의 김영경 MD가 구인정보 인터뷰를 위해 NGO,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과 연락을 취하면서였습니다. 김영경 디렉터는 구직 청년들이 어떤 조건에서 '노동'을 하게 될지가 주로 궁금했던 반면, 구인 업체에서는 조직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활동'으로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청년들을 원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
> 그것은 단순화하면 임금 지급 수준에 대한 완곡한 표현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동과 활동이라는 두 개념 사이에는 더 큰 의미의 간극이 존재한다고 여겨지며,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현장에서는 더욱 혼재되어 있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세대 간 갈등으로, 활동을 중시하는 선배 세대와 자기 일이 노동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후배 세대 사이에 불편한 인식차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이는 사회적 가치 지향의 경제 영역을 넓히고 청년들의 진출을 독려하는 청년허브에도 풀어야 할 숙제로 다가옵니다.

기성 시민단체 활동가와 청년허브를 통해 배출된 청년 활동가, 유명 청년 논객들이 패널로 초청된 이 포럼에서는 활동이라는 명명 하에 공존하고 있는 운동과 노동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의 유인물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간극은 운동의 연장선 혹은 대체물로서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기성 활동가들과, 그러한 의미에 우선하여 자율적인 노동 경험으로서 활동을 대하는 청년 활동가들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청년층의 주거권 문제를 다루는 당사자 연대모임인 '민달팽이유니온'에 소속된 한 청년 활동가는 과거 비영리단체 상근자로 일했던 경험을 들어, 후배 활동가의 노동조건과 교육 시스템을 책임져주지 않으면서 조직과 개인을 동일시하려는 비영리단체의 문화를 비판했다. '청년유니온'에 소속된 활동가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활동가들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하며, 사회운동의 전위주의로 표현되는 기존 경험에 기초한 선배세대의 리더십에서 벗어나 이들이 자율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러나 기성 활동가의 입장에서 이는 활동의 이익뿐 아니라 손실에 대한 책임까지도 함께 감당하려고는 하지 않는 후배 세대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기성세대와 달리 최근 사회적 활동 영역에 유입된 청년들이 대부분 제도적 안전망 속에 있는 것에 대한 회의를 야기하고, 따라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없어졌을 때에도 과연 이들이 현장에 남아있을지에 대한 회의 섞인 의문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한 참여자가 포럼의 마무리 발언에서 언급하듯이, 결국 이는 청년허브에서 시행하는 사업들로 인해 "기존의 사회운동 영역이 누군가의 일자리로, 삶의 공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드러나게 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허브에서 적극적으로 공고화하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활동, 즉 공공성, 자발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실천적 삶이 지니고 있는 혼종성은 그 가능성에 대한 유혹과 함께 현실의 구현 과정에서 화해되기 어려운 균열을 불러온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청년 활동가들이 어떻게 이러한 긴장을 경험하며, 이를 극복하려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다.

Ⅳ. 청년 활동가의 실천과 서사

앞 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의 작동 방식이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이기보다 제도화된 시민운동의 형태에 가까우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활동이라는 삶의 형태는 당사자가 만들어나가는 지속가능한 운동과 공공적인 노동의 아직은 불안정한 공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청년 활동가로 호명되는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실천 양태와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서사적으로 의미화하는 방식을 살핀다. 청년의 삶, 자신에 대한 생각, 정체성은 그들을 상징할 것으로 간주되는 것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Cohen, 1980: xvii). 담론과 제도의 장에서 이들은 현 조건에서 불가능해진 것처럼 보이는 청년운동을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정치적 주체이거나, 심화되는 청년실업문제를 스스로 책임화하여 사회적경제라는 대안적 일자리시장에 뛰어드는 경제적 주체로 이해되어 왔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이해의 방식이 활동하는 청년들의 실천과 자기서사 과정에서 어떻게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수용되거나 전유되는지, 당사자들에게 활동이 왜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선택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1. 활동가의 문제의식과 실천적 지향

1) 활동의 계기: 창업에의 열정 또는 자본주의 비판

사회를 변혁하고자 분투하는 집합적 행위를 광의에서의 사회운동이라고 할 때, 청년 활동가들의 실천에서 새로운 형식의 사회적 운동성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이전 세대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가들이 “대학에 입학해 자연스럽게 학생운동을 시작하면서 사회문제, 사회운동에 눈을 뜨고, 그 연장선에서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에 함께하는 것이 보편적”[46]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시도는

46) 사회적경제센터 좌담, “청춘, 사회적경제를 말하다(1)”, 2013.8.28.

일견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보인다. 청년허브에서 씽크탱크이자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시민운동의 경력을 지니고 있다. 청년허브의 구상 당시부터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년단체들은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 당사자운동의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청년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자기계발에의 몰두를 오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한국사회의 담론적 맥락 위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등장과 청년허브를 통한 집결은 기실 고무적인 반응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이들은 누구인가? 학생운동의 연장선에서 사회적 활동의 영역으로 넘어온 청년들인가, 또는 운동의 영역과 전혀 무관했다가 우연히 청년허브를 발견한 청년들인가? 왜 활동의 길을 선택했으며, 어떠한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청년허브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총 7개 청년단체의 활동가 17명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후의 논의에서 드러나겠지만 활동하는 청년이라는 느슨한 범주로 묶인 이들은 매우 이질적인 삶의 경로와 가치관을 지닌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선적으로 지적해야 할 사실은, 면담을 진행한 모든 청년 활동가들에게 학생운동과 조직화된 운동의 경험이 전무했으며, 누구도 전통적인 운동 방식을 활동의 전거로 삼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대학 내 학생운동의 몰락과 문화적 전승의 단절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지만, 세대적 감수성의 차이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가령 30대 초반인 면담자 원주는 대학 시절 전혀 운동 경험이 없었으나 최근 들어서 '뉴스타파' 시청이나 동료들과의 철학 스터디를 통해 정치와 사회구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20대 초중반의 면담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통적 운동방식의 효과에 회의 내지 강력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일례로 면담자 정은(여, 20대 초)과 희경(여, 20대 초)은 집회 문화에 대한 정서적・미학적 반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앞에서 빨간 깃발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 장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거부감이 들거든요. 그리고 교통도 이거 때문에 불편해지고. 그리고 막 노동운동가를 부르고. … 일단 모르는 사람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집회라는 것은 딱 보기에 예쁘진 않잖아요.** (정은)

이상하게 그 맨날 빨간색이나 노란색 그렇게 강렬한 옷을 입고 (웃음) 확성기 쓰고 이렇게 되게 큰 목소리로 주장 말하시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이제 집회를 여시고 그런 거겠지만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들린다기보다는 **좀 시끄럽고 그런 거에 더 불쾌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희경)

흥미로운 것은 정은과 희경이 흔히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의제에 무관심한 대학생들이 아니며, 이들이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바>단체가 '사회문제를 청년들이 해결해보자' 라는 목적으로 모인 집단이라는 점이다.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현 세대의 활동이 기존과 같은 경험의 전승이 아니라 단절을 거친 전혀 다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인식하는 '사회문제' 와 '사회적 변화'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포착해야 한다.

<바>단체의 사례를 이어가면, 면담자 소영(여, 20대 초)이 대표를 맡고 있고 정은, 희경, 재원(남, 20대 후)이 참여하는 이 모임은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네 가지 영역에서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실행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가령 이들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책자를 발행하는 것이다. 소영은 대학의 유명 사회적기업가 동아리에 참여했던 경험에서 느꼈던 불만에서 <바>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던 과정을 서술한다.

사실 그 사회적기업가 동아리 들기 전까지도 저는 사회적기업이 뭔지도 잘 몰랐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사회문제에 별로 딱히 관심이 없는, 일단은 제 일을 하기 급급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 처음에는 너무 신기했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사회적기업이라는 건 이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인데 그걸 해결하면서도 이익을 얻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신기하다 싶은데 점점 활동할수록 느끼는 게 … 사회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짐작만으로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고 우리끼리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게 말이 되냐. …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제 뭔가 실천을 하자**. 뭔가 사회에, 우리가 물론 어리지만 사회에 영향을 분명 미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미쳐 볼 수 있지 않을까? (소영)

소영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지 창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로 우연히 사회적기업 동아리에 들어간 사례이며, 그전까지의 자신을 “사회문제에 별로 딱히 관심이 없는, 일단은 제 일을 하기 급급한 그런 학생”으로 설명한다. 소영의 권유로 활동에 참여하게 된 재원 역시 자신이 “청년이 모여서 사회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거에는 사실 관심이 하나도 없었”으며 “사회문제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저도 창조라는 게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고백한다. 이들은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의제를 대학생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창조적 행위의 대상으로서 사후적으로 발견한 경우이다.

청년들의 자립적인 일자리 시스템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가>단체에서 활동하는 세철(남, 20대 중) 역시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원래 “일반적인 직장은 들어가기 싫다, 나는 창업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세철은 군대 생활 중에 우연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쓴 책을 두 권 읽고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된다. 서울시민이 아니었던 그는 이때부터 가지게 된 열렬한 관심으로 주소지까지 바꾸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청년혁신활동가 사업에 지원하여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곳의 프로그램에서 <가>단체 구성원들을 만나 중간에 합류하게 된 사례이다. 청년들을 위한 문화기획사인 <다>단체에서 활동하는 은지(여, 20대 중)도 마찬가지로 대학 내의 창업교육센터에서 주최한 청년창업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우연히 한 사회적기업가의 강연을 듣고 흥미를 가지게 된 사례이다.

위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청년 활동가들은 기성 활동가에게 자연스러운 경로인 학생운동-사회운동-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창업-사회적기업의 경로를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된다. 사회적기업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의미화되고, 여기서의 사회문제는 반드시 타개해야 할 구조적 조건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에 가깝다. 이들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은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거나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일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동시에 면담자들 중에는 전혀 다른 기회를 통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경우들도 존재한다. 청년의 손으로 직접 물건을 생산하는 활동을 하는 <나>단체에 속한 원주(남, 30대 초), 하진(여, 30대 초), 미연(여, 20대 후)과 대학생의 대안적 놀이문화를 기획하는 <라>단체를 만든 태호(남, 20대 후)는 모두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인 노리단과의 만남을 그 기회로 들고 있다. 노리단은 2004년 설립된 하자센터의 문화예술 벤처 프로젝트로 국내 최초의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이며, 위의 네 면담자들은 노리단과 구로문화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중 '구로는예술대학'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구로 지역의 시민축제, 마을장터 등 커뮤니티형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청년 인력풀 구축을 목표로 한다(《오마이뉴스》, 2012.10.25.). 미술을 전공한 원주와 건축을 전공한 하진에 비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 없는 분야를 전공했던 미연과 태호는 특히 이 참여 경험에 대해 굉장히 강렬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인용되는 이들의 서술은 공통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과 이후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 전 되게, 대부분 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의 길만 보잖아요. 대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야되고, 그런 세계 속에 있다가 거기서 뚝 떨어져 나왔었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할 때 되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거길 통해서 발견했어요.** 어, 내가 알던 이 길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네, 그리고 되게 거기서 그런 루트에서 떨어진 또 다른 친구들이랑 재밌는 걸 하면서, 오 **진짜 살맛난다**, 이런 생각이 그때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나 뭐 마을, 아 마을만들기라는 것도 있구나, 거기서 그렇게 좀 넓혀 가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미연)

>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진짜 그냥 **저도 굉장히 다수의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아주 대학교도 저는 배치표 보고 고르고 전공도 담임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전공을 골랐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굉장히 회의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 그러다가 우연하게 알게 된 게 '구로는예술대학'이었는데, 그걸 굉장히 그냥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뭔가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규정지을 수 없는, 그냥 기존의 저, 제가 살던 삶에서는 뭔가 단어로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나중에 가서야 그냥 굳이 붙이자면 문화기획이었고, 마을공동체였고, 뭐 이런 걸로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소용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게 즐거웠고, 내가 하

는 일이 무엇이든지 상관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느낌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 나는 뭐든 이거를 해야겠다, 이게 뭐든. (태호)

미연은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다가 그만두고 나와 방과 후 교사, 문화센터 근무, 독서지도 등 다양한 계약직을 거쳐 우연히 '구로는예술대학'에 참여한 사례이다. 아직 대학생 신분인 태호는 정보시스템 전공자로, 군대 생활 중 우연히 노리단을 다루는 책을 읽고 홈페이지를 찾아보던 중 '구로는예술대학'을 발견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와 같은 개념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시점에서 활동이 이들을 이끌었던 이유는, "대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야되고" 하는 하나의 길, "대학교도 배치표 보고 고르고 전공도 담임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전공을 골랐"던 기존의 삶이자 다수의 삶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경험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들에게 활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전의 문제의식 하에 계획적으로 추구된 대안이라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통한 '다른 세계'와의 조우로 경험된다. 사회적 활동이라는 개념은 사후적으로 붙여지게 된다. 이들의 체험이란 기존의 삶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언어·사고체계로는 포착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연과 태호는 이 체험 이후에 원래의 삶, '다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미연은 '구로는예술대학'에서 만난 원주, 하진과 <나>단체를 만들어 청년허브에 입주하여 제작 활동을 하고 있다. 태호는 그 이후 희망제작소의 지원을 받아 문화기획 사회적기업을 창업했다가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바꿔 운영하고 있고, 대학 내에서 반소비주의적 놀이문화를 추구하기 위한 <라>단체를 만들어 청년참 지원을 받았다.

이상에서 청년창업의 준비단계이거나 대안적 삶의 방식과의 조우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두 가지 양상을 살펴보았다면, 처음부터 청년세대의 집합적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활동을 꾸려나가는 면담자들도 존재한다. 이는 주로 단체를 처음 만들었거나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구성원들에게서 발견되는 경험이다. <다>단체를 설립한 주형(남, 30대 초)은 군대에서 혼자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빈곤층 소년소녀가장들을 후원하거나 대학생 시

절 ‘아름다운가게’의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에서 대표를 맡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문제를 “타의든 자의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했다. 현재 주형은 <다>단체에서 그동안 자신이 고민해 온 사회문제들을 문화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일반적인 평범한 청춘들”이 꿈을 억압당하는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이들이 목소리를 낼 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몰두하고 있다. ‘평범한’ 청년들의 자기서사를 책으로 묶어내는 작업을 하는 <마>단체에 속한 세희(여, 20대 중) 역시 청년의 목소리가 억압되는 사회에 대해 유사한 문제의식을 보인다.

> 저는 개인적으로 청춘 담론 이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 청춘이라는 청춘팔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면 청춘 담론을 만드는 세대가 청춘이 아니라, 청춘이 아닌 기성세대가 청춘이라는 담론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불쾌했고,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해야 제대로 된 청춘 담론인데 그들이 우리 이야기를 하고 괜히 우리에게 멘토의 역할을 해주는 척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청춘이고 청년 담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20대를 타겟으로 잡았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 20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세희)

20대 대표 언론 ‘고함20’에서 기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세희는 특히 지난 몇 년 간 이루어진 청년 없는 청년 담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들은 사회적으로 대상화되고 수동화되는 청년들의 자발적 목소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면담자들이 활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또 다른 사회문제는 이들이 청년세대로서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문제들이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기업이 아닌 형태로 활동을 일자리화하고자 하는 <가>단체와 <나>단체의 면담자들에게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두드러진다. 이들에게 자본주의 사회는 추상적인 비판 대상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로 표현된다. <가>단체에서 활동하는 민해(여, 20대 중)의 생애사는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민해는 면담자들 중 유일하게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례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민해가 하자 작업

장 학교를 졸업하고 1년 정도 방황하다,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삼촌을 찾아가 캐셔로 일했던 경험에서 느낀 환멸을 드러낸다.

> 제가 일했던 그 직종 자체가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정말 그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국 투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패키지 상품 여행으로 왔을 때 그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 상품들을 사면 우리는 약간 인센티브 같은 것도 계산을 하고 여행사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약간 이런 **돈이 정말 정말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을 정말 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웃음) 그런 식의 시스템 안에서 7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전에 **대안학교에서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그런 배움을 많이 배웠는데 여기서 완전 비리들을 뒤에서 보게 되고 (웃음) 너무 자본주의적인 그런 시스템에 맞닥뜨리면서 너무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하다가 7개월 정도 지내고 이제 다시 거기를 그만두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때 당시가 내가 22살이었을 땐데 아직도 대학도 가지 않았고, 회사는 때려치웠고. (민해)

민해는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대신 자신이 원하던 문화기획 분야에서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다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낙인에 불안감을 느끼고 홍콩으로 떠나 겪은 7개월 동안의 회사 생활을 통해 “너무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을 맞닥뜨린다. 쇼핑센터 캐셔로 일을 하며 마주한 사회는 그 배움을 무참히 깨뜨리는, “돈이 정말 정말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을 정말 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체험되었다. 민해가 판단하기에 이러한 시스템은 문화 또는 가치관으로서 행위자를 의식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해는 한국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펙과 외모지상주의와 자본주의적인 것”에 대해 교육을 받음으로써 “괴물”로 자라나는 것 같다고 표현한다. <가>단체는 민해와 유사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하자 작업장 학교 동기들이 만든 것으로, 민해는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와 괴로워하던 시기에 그 친구가 “나를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해 주었”고 “중간에서 이렇게 꺼내줬”다고 말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세대의 한 분파로 분류되고는 하는 청년 활동가들은 개인의 복합적인 계기를 통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거칠게는 사회적기업 창업, 대안적 삶의 모색, 자본주의 시스템 비판 등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문

제를 탐구하기 위해 활동하는 소영과, 의미를 찾지 못한 대학생활 가운데 자신과 다른 삶의 존재를 깨닫고 활동하는 태호와, 회사생활을 통해 마주한 자본주의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활동하는 민해가 청년허브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소의 곤혹스러움을 야기한다. 동시에 이는 체계적인 진입 경로, 예컨대 과거의 학생운동-사회운동-사회적경제와 같은 경로가 붕괴한 현재의 조건에서 필연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들에게서 청년이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통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많은 경우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자센터나 노리단 등을 통해 유사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경험이 있는 면담자들을 제외하면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이질성이 발견된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모종의 유사성 또한 발견되는데, 이는 '어떠한 방식의 사회적 변화가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에 대한 입장에서 나타난다. 아래에서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2) 시스템 변혁의 불가능성과 문화적 변화의 가능성

본 연구의 면담자들은 각기 다른 사회적 문제에 주목하고 있지만,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만큼은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으로 돌아가면, 민해는 "자본주의적인 사회에서 개인들이 어느 하나의 시스템에 종속이 되어 자립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며, 원주는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대량화, 기계화 속에서는 그냥 돈만 있으면 다 하기" 때문에 "개인화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소외 현상을 문제시한다. 태호는 "효율성"이라거나 "쓸모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이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의식적으로 체득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는 이들로서는 바꾸어낼 수 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면담을 진행한 청년단체들 중 유일하게 사업자등록을 한 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다>단체를 운영하는 주형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는 방향에서 대안을 제시"

하면서도 “자본주의기 때문에 돈으로 거래되고 우리의 서비스를 팔아야 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의 긴장감을 언급한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사회의 속성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한다. 태호 역시 효율성 중심, 성과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가 지니는 문제점을 비판하다가도 금세 다음과 같이 자조하고는 한다.

>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거를 제가 바꿔낼 힘이나 그걸 바꿔내야 되겠다, 라는 어떤 큰 포부 같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전 아주 미약하거든요. (웃음) 저는 아주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꿔낼 정도의, 저한테는 그런 건 없어요. … **저는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벗어날 수 있으면 벌써 벗어났지. 벗어날 수 없어요. (태호)

사회구조가 변화해야 한다고 믿으면서도 그 실현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때, 이들에게서는 엄기호(2010)가 지적한 바 있는 이미 계몽된 청년세대의 냉소적 자각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대응 전략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각이 패배주의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시스템 변혁의 불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서도 현 시스템 내에서 적응하기 위해 뛰어들거나 사회적 삶 자체를 포기해버리지 않는다. 이들이 선택하는 대응 방식은 시스템 내의 행위자들이 개별적으로 변화하는 지난한 과정에 대한 소망이다. 태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차라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스템에 기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내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바꿔내는 거지만, 그 시스템 안의 구성요소인 사람들의 생각 수준을 고양시키는 게 (웃음) 그걸 **자본주의 사회에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판단할 수 있고 인본적인 판단들을 할 수 있는 사고를 길러주는 사람을 키우는 게 오히려 더 사회적인 일이지**, 그 사회적인 문제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해결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태호)

태호는 “자본주의 사회에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인본적인 판단들을 할 수 있는 사고를 길러주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 자본주의에 “금을 내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문화예술적 제작 활동에 사회적 의미를 담아내고자

하는 원주 역시 자신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이 시스템에 조금씩 균열을 만드는 하나의 활동일 수도 있다”고 표현한다. 민해는 〈가〉단체에서 청년들의 기술자립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목공이나 용접 등의 기술을 습득하고 각자의 기술을 통해 자립적인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자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 시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들이 소망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의 최대치는 시스템에 미약한 금을 내는 일, 조금씩 균열을 만드는 일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식이란 결과적으로 사회적 문제의식을 지닌 행위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만들어나가는 문화적인 변화이다. 〈가〉단체의 민해와 세철은 자본주의가 파급력이 높고 그래서 무서운 하나의 ‘문화’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스펙 쌓는 그 문화가 만들어졌듯이” 자신들도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일을 하는 문화”(세철)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자 작업장 학교에서 학습한 문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가〉단체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서는 유독 그러한 믿음이 두드러진다. 민해는 박원순 시장의 당선 이후 청년허브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등장 역시 문화의 전파를 통한 사회적 변화의 일환이라고 말한다.

> 조금씩 조금씩 이해를 시키고 그 문화들이 전파가 되고, 사실은 이제 저는 약간 이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문화들이 일차적으로는 하자센터에서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자센터에서 배우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배운 문화를 내가 전파시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전파하고 있는 이 문화가 또 다른 사람한테와 닿으면 그 사람은 또 다른 곳에서 뿌리를 이렇게 내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자를 다녔을 때 당시에는 그런 걸 하는 곳이 거의 하자센터 유일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20대가 되고 나서는 청년허브도 생기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생기고, 하자 안에서도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화가 조금씩 조금씩 전파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정책도 자연스럽게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가장 어떤 **좋은 방식**의, **건강한 방식**의? (웃음) **착한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해)

주체적인 개인들의 역량 강화와 이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변화는 이들에게 있어 기존의 사회운동 방식 내지 제도적인 변화의

단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제도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운동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세철은 “정책적으로 바꿔버리는” 방식이 모든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확 바꿔버리면” 청년들이 적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적응하지 못한 청년들이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 대답한다. 이 말에는 “차라리 이런 문화가 자리 잡으면 정책적으로는 당연히 그걸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라는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

요컨대 이들은 자신의 활동을 통해 타인이 변화하기를, 변화의 연쇄가 일어나 전체적인 문화가 변화하기를, 변화된 문화로 인해 사회가 변화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변화란 단기간에 성취될 수 없으며, 개별 행위자의 차원에서 쉽게 관찰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은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 자체를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대신 자신이 활동이 긴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획득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활동의 성과가 아니라,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자아의 의식과 타인의 인정이 된다. 가령 앞서 언급했듯이 대학생들의 사회문제 해결을 주제로 삼고 <바>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영은 자신들의 활동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서술한다.

> 우리가 과연 하는 일이 진짜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당장 보이는 게 없으니까. …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항상 불안해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맞나. 그런데 지금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우선은, 어쨌든 이게 정말로 사회문제에 도움을 주든 안 됐든, **그래도 단기적으로나마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것만 있었으면 아마 지속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막 투닥투닥하면서 저희끼리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인터뷰하시는 것처럼. (웃음) 그리고 친구들도 이야기 들으면 **어 되게 좋은 일 한다, 하면서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일을 하다가 되게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들도 많고**. (소영)

소영이 말하고 있듯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주변의 관심, 자신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은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다>단체 대표 주형 역시 유사하게 표현한다. 그가 자신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많은 청년들에게 연락이 오고”, 자신이 “뭔가 계속 해내는 것들”에 “사람들이 영감을 받거나 좋은 자극을 받는 것들을 이야기해줄 때”이다. 이러한 것들은 지극히 사소한 일이지만,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활동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다.

동시에 이 과정은 결코 타인을 설득하거나 강제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타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인 동시에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나>단체의 미연은 자신의 활동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소비적인 문화에 빠져 있는 동생이 안타까우면서도 그를 섣불리 설득하려 들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가치라도 본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자꾸 설득하는 것”이 미연에게는 폭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 정말 삶을 살리는 어떤 그런 공부나 이런 걸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게 또 걔한테는 지금 폭력적으로 되게 들릴 수도 있을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 살면** 내가 또 되게 재밌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걔도 뭐 **언젠가는 나 언니처럼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겠지, 라고 막연히, 막연히 기대**하며 잘 살려고 하고 있어요. (미연)

마찬가지로 같은 단체의 희진에게도 자신의 삶의 방식을 누군가에게 설득하는 일이 “지하철에서 전도 설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때문에 이들은 직접 설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타인이 자신의 삶을 보고 자발적으로 영향을 받아주기를 소망한다. <마>단체의 세희는 자신의 동생들이 “아, 진짜 내 누나가 정말 멋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이런 가치 있는 일을 나도 나중에 커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활동을 해나가고 싶다고 말한다. <다>단체

의 활동 내용과 자신의 감정을 성실하게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주형은 후배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나를, 내 청춘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아, 저 형처럼 뭔가 하고 싶다,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고 싶어 한다. 태호는 자신이 추구하는 활동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도 혹여나 조금이라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만큼 뿌듯한 일이 없을 것 같"다는 바람을 주저하며 내비친다.

활동하는 청년들이 소망하는 사회적 변화는 조심스럽고 소박하다. 대부분의 이들은 변화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면', '나는 힘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과 같은 단서를 끊임없이 붙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대신 '그렇지 않을까'라거나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주장과 결의보다는 기대와 소망의 언어적 습관을 보인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조건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하기보다는 포섭하며, 투쟁하기보다는 꿈꾸는 쪽을 택한다.[47] 이들의 활동을 운동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면, 이는 모두를 자연스럽게 바꾸고자 하는 운동이면서 바로 그 때문에 당장은 누구에게도 타격을 줄 수 없는 운동일 것이다.

2. 활동을 통한 노동의 재구성

1) 규범적 성인기 이행의 거부

47) 청년허브의 전효관 센터장은 청년참 참여 커뮤니티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기존의 시민운동과 비교하여 오늘날의 청년커뮤니티들이 드러내는 이러한 특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낯섦과 기대를 동시에 표현하였다. "청년커뮤니티 활동 기록은 매우 따뜻합니다. 강한 주장보다는 소박한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저처럼 항상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분리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해 온 사람에게는 상당히 낯설기도 합니다. 아마도 동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 아닌가 싶었습니다. 타인의 맥락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활동들에서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발견했다고 하면 너무 과장일까요?" (『청년참은 사건이다』 15),

청년의 활동이 가지는 공적인 의미와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활동이 면담자들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동아리' 내지 '부업'의 느낌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면담자들도 있지만, 활동을 통해 생애설계를, 특히 성인기 이행의 경로를 완전히 재조직한 면담자들 또한 존재한다.

면담을 진행한 청년단체들 중 일부는 수익성이 있는 일자리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익성이 없는 커뮤니티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단체, <나>단체, <다>단체는 성격은 다르지만 각자의 수익모델을 갖추고 청년허브로부터 지원금 또는 공간을 제공받았고, <라>단체, <마>단체, <바>단체, <사>단체는 '청년참' 커뮤니티 지원을 받고 있는 다소 느슨한 공동체이다.[48] 앞 절에서 단체를 불문하고 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식과 실천적 지향을 검토했다면, 이하에서는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활동을 어떻게 재구성된 노동으로서 실천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청년들이 분포되어있는 <가>단체, <나>단체, <다>단체의 활동가들은 모두 학생 신분이 아니며 현재의 활동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 면담자 민해(여, 20대 중)와 세철(남, 20대 중)을 포함하여 네 명의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 <가>단체는 청년들의 자립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실험해보는 창직 활동에 주력하는 청년단체이다. 연구자는 지난 2월 마포구 망원동에 문을 연 <가>단체의 자체 공간에서 이들을 만났다. 이들이 '커뮤니티 코워킹 스페이스'의 개념이라고 설명하는 이 공간은 <가>단체의 사무실이 아니라 지역 청년들을 위한 공유 공간이다. 부엌, 샤워실, 책상, 침대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월 25만원의 입주비를 지불하면 1년 내내 시간과 날짜에 관계없이 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살기에 도전"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활동이 "내일 행복하기 위해,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찾고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앞 절에서 보았듯이 이들에게는 "끝없는 스펙과 시험들, 타인에게 고용되지 못하면 잉여라고 취급받

48) 그러나 앞 장에서 활동이라는 행위에 수반되는 다중적 의미를 검토하였듯, 이들에게 있어서 노동과 노동 외적인 행위 사이의 경계는 불분명하다. 일자리 형태의 단체도 그 구성원들의 관계는 상호간의 긴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커뮤니티 형태의 단체도 대부분 현재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 수익모델 창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는 시대에 신물을 느낀” 삶의 경험들이 있다.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의 준비를 위해 현재 겪어야 하는 희생이 정당화되는 청년들이 처한 고용구조는 이들로 하여금 대안적인 삶을 모색하기 위한 독서토론 모임을 시작하게 했다. 이것이 실제로 일감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단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민해는 〈가〉단체가 “청년들을 위한 소셜 플랫폼”으로 기획되었으며, 작금의 “자본주의적인 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 자립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어떻게 청년이 주체가 되어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말한다.

청년들이 하나의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이들이 가장 주력하여 추진하는 활동은 ‘50만원 비즈니스 프로젝트’이다. 이는 이들이 독서토론 모임이었던 당시 함께 읽었던 후지무라 야스유키의 『3만엔 비즈니스, 적게 일하고 더 행복하기』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3만엔 비즈니스’란 한 달에 3만엔 정도를 벌 수 있는 일을 필요한 만큼 병행하여 적게 일하고 적게 소비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노동방식으로서 발명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조한혜정 교수(연세대 문화인류학과)의 추천사와 함께 2012년에 들어 소개되었다.[49] 〈가〉단체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국내에 도입하여, 약 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작은 일감을 여러 개 창직하여 겸업함으로써 청년 노동자가 특정한 회사에 속하거나 자신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자기주도적 노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시스템의 개발을 실험하고 있다. 민해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우리가 한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 종속이 되어가지고, 정말 막 야근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내 취미생활도 없이,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서 내가 내 일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주는 일을 계속 이렇게 받으면서 되게 바쁘게 일을 하지만, 한 달에 120에서 150 정도를 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5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작은 일감을 만들면, 그게 내 시스템이 되고 그 안에서 좀 여유도 생기고 내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

49) 조한혜정 교수는 추천사에서 “거시적 흐름에서 이 책의 철학은 우리보다 조금 일찍 난감함에 봉착한 서양의 ‘선진국 주민들’ 사이에서 DIY(do it yourself)이라고 불리던 삶의 방식, 그리고 지역화(localization),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허브 등 사회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움직임과 닿아 있다”고 지적하며, “때마침 시민운동가 시장이 선출된 서울시”에서 민관협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움직임과 연결시켜 볼 것을 권유하고 잇다(12-13).

면서 그걸 또 다른 일감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가고용의 형태, 일자리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가 있지 않을까. (민해)

이들은 이러한 작은 일감을 '착한 일감'이라고 표현한다. 현재 <가>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착한 일감'의 사례들로는 민해가 진행하는 '카고바이크 프로젝트'와 세철이 진행하는 '오늘의 식당'이 대표적이다. 카고바이크란 100kg 정도의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자전거로, <가>단체는 자전거 제작 워크숍을 통해 직접 제작한 이 카고바이크를 마포구 내에서 도시락 배달과 퀵서비스 등 각종 운송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오늘의 식당'은 조리학을 전공한 세철이 소셜 셰프[50]로서 간단한 '3000원짜리 밥상'을 판매하는 프로젝트로, "요리로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고 마을 청년들이 혼자 밥 먹는 것보다는 이야기하는 친구를 둘 수 있는"(세철) 형식의 식당이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이들은 이러한 작은 수익사업들이 안정화되면 충분히 생계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로서의 <가>단체는 개인이 창업하고자 할 때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일종의 공동체적 안전망으로 기능한다. 마찬가지로 사업이 확장되어 50만 원 이상의 이윤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그 사업을 다른 구성원들과 나눔으로써 "너무 한 쪽으로 독점되고 또 그 시스템에 내가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걸 순환할 수 있게"(민해) 하는 내규를 정해놓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겸업 프로젝트란 단순히 화폐를 버는 방식의 다각화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서 선택의 중심점을 자기 자신에게 둔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는 "시각디자인 일을 하면서 간간히 출장 요리를 나가고 번역 일까지 하는 사람"(『청년허브 워크북』, 64)의 삶을 의미한다. 겸업을 통해 이들은 한 가지 직업에 종속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일을 시도할 수 있게 되며, 노동의 주안점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높은 임금을 얻느냐의 문제에서 개개인이 얼마나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구축해나갈 것인가의 문제로 치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50만원 프로젝트'와 더불어 <가>단체가 진행하고 있

50) 지난 몇 년 사이에 싱글족의 새로운 식사 형태로 부각된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을 주관하는 요리사를 의미한다. 소셜 다이닝이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밥을 먹으며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여, 식사를 매개로 모르는 사람과도 친교를 맺는 자리이다(《한국일보》, 2012.6.8.).

는 다른 사업은 인간의 기술을 통한 제작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용접이나 목공 등의 기술을 배우는 자리인 ‘청년기술자립워크숍’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앞서 언급한 카고바이크 역시 이 워크숍을 통해 제작되었는데, 민해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기술을 배운다는 것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 좀 이 안에서 계속 시도하려고 하는 게, 자본의 가치를 좀 바꾸는 그런 좀 떨어뜨리는 그런 (웃음) 사회를 만들고 있는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을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사실 돈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하고 있는 어떤, 진짜 용접을 (웃음) 배우고 목공을 배우고 **이런 기술들을 배우니까 그걸 가지고 뭘 만들까 이걸 더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저걸 내가 사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벌까가 아니라**. (민해)

민해 외에도 많은 청년 활동가들이 직접적인 생산 활동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는 <나>단체의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면담자 중 원주(남, 30대 초), 하진(여, 30대 초), 미연(여, 20대 후)이 속해 있는 <나>단체는 ‘손으로 직접 만드는 일’을 주 활동으로 설명한다. 이들은 청년허브의 ‘미닫이사무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이곳의 청년단체 할당 공간에 입주해있다. 이들은 청년허브에 상주하면서 다른 입주 단체들이나 지원사업 대상자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작업에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청년허브로부터 직접 공간을 디자인하는 일감을 의뢰받기도 한다.

‘손으로 직접 만드는 일’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이지만 이들의 활동을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낸다. <나>단체는 외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마을 축제의 간판, 문패, 행사 부스, 나무로 된 소품 등을 제작하고, 자신들의 손기술을 통해 아이들이나 청년들과 함께 무언가를 제작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제작이란 자신의 시간을 가꾸는 활동이자 나아가 소비 과정에서의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원주는 물건을 그냥 사는 것이 편하기는 하지만, 직접 뭔가 만들고 그리는 일이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이 사회 구조에서 우리가, 좀 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삶의 방식”일 수 있다고 말한다. 미연에게 생산은 “어떻게 사는가를 고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이다.

사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났을 때 삶을 생각해보면 정말 되게 막막할 걸요? 아빠나 엄마의 삶을 보면서도 그렇듯이, 이제 그때 가서는 **돈 버는 거 말고는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시간을 또 다시 돈 쓰는 일로**, 돈으로 다 어딜 가서 돈으로 사서 구매하고, 여행 상품으로 가고, 다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사는가를 고민하게 되면 생산하는 걸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미연)

이들이 수익을 얻는 방식은 비교적 장기적으로 세 명이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일거리(교육프로그램)와 그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단기적인 제작건이나 워크숍 등을 병행하는 것이다. 미연에 따르면 이는 "넉넉하진 않아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돈은 벌 수 있는" 모델이다. 미연은 경제적 측면에서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일단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일단 그 순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 것이 미연의 선택이다.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활동 이전에 회사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는 하진의 경우 이러한 고민은 보다 현실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뭔가 긴 호흡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뭔가 이게 **일이면서도 우리 활동과 연계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있고, 뭐 부가적으로 들어오면 하고, 각자가 또 하고 싶은 또 활동들이 제작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게 있으니까, 이런 식의 구도가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이런 구도가 되려면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니까 **회사처럼 그냥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규칙하고,** 근데 그렇지만 쓰는 소비는 뭐 평균이 있고, 그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예전에 『3만엔 비즈니스』 책을 봤었어요. 처음엔 되게 허무맹랑하다, (웃음) 아 이건 우리나라에선 정말 힘든데, 엄청 그런 생각이 들다가 요즘 다시 한 번 책을 보고 있는데, 음, 그런 구도를 만들 수 있을까? 약간 좀 고민돼요. (하진)

하진은 앞서 <가>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모델인 '3만엔 비즈니스'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회의를 내비친다. 하진이 "되게 허무맹랑"하며 "우리나라에선 정말 힘든" 일이라고 표현하는 겸업 일자리 모델은, 그 실현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가>단체와 <나>단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일의

형태이다. 사실상 이는 ‘프리터(freeter)’의 삶, 자발적인 비정규직의 삶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수의 청년들이 불가피하게 처하게 되는 불안정한 고용조건, 소위 ‘88만원세대’로의 전락에 대한 불안은 이들에게 있어서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것으로 재의미화된다.

한편 <다>단체는 면담을 진행한 단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정식 회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사례이다. 이들 역시 <가>단체나 <나>단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지만, 설립자이자 대표인 주형(남, 30대 초)은 수익사업과 활동을 명확히 구분한다. 현재 <다>단체는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각종 청년 대상 문화행사의 기획과, 여기서의 지출을 메우고 직원인 은지(여, 20대 중)와 서윤(여, 20대 중)에게 월급을 줄 수 있으면서 자신들의 활동 철학에 어긋나지는 않는 마케팅 등의 수익사업 사이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 지금 저희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획을 통해서 저희가 바라보는 어떤 사회라던가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사를 통해 기획으로 풀어내는 거죠. …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쉬운 문제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좀 고쳤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으로 풀어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산만한 회사입니다. … 그래서 이런 균형들에 대해선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하고 싶은 것만 했을 때는 이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하고. 대신에 우리가 하려는 비즈니스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철학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 안에서만 무조건 움직이는 걸로.** (주형)

<가>단체, <나>단체, <다>단체는 활동 목표와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자신의 활동을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로 구축하고자 하거나 이미 구축했다는 점에서 청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동시에 사회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는 활동을 상상하고 실행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각각의 가치에 부여되는 비중은 단체들 사이에서도, 또한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다. 가령 <가>단체의 민해는 “돈을 못 벌어도 어떻게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면서 산다고 하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말하는 반면, 같은 단체의 세철은 “돈을 벌어야지 지속도 가능하고 그래야지 사회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엔 “영리기업이랑 비교하더라도 경쟁이 되면서 그런 (사회적)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비중의 차이를 차치하고 이와 같은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삶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인식하는 현재 한국사회의 학교-직장 이행과정의 반대항으로 표현된다. 정규 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한 후 결혼과 출산에 이르는 표준적이고 규범적인 성인기 이행 과정은 후기근대사회에 들어 많은 국가들에서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역시 성년기 이행의 지체와 청년기의 장기화가 이미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고(김영・황정미, 2013: 216), 이는 주로 청년층 고용률 저하와 함께 대학 졸업 후 구직에 실패한 청년실업자들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어왔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면담한 활동하는 청년들은 이러한 이행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진입경로로부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한다.

> 친구들 만났을 때 다들 막 뭐 토익 공부해야 된다, **막 뭐 해야 된다, 다 똑같이 말하거든요, 되게. 정말 똑같이 말해요.** 한 줄도 틀림없이 토익 공부하고 뭐 무슨 얘기하고 뭐 공모전 가고 뭐 해외, 해외 탐방 가고 이런 거를 다 말하더라고요. … 진짜 정말 딱 지금 앞만 보고서 **다른 사람도 하니까 그냥 해버리는** 그런, 그냥 똑같잖아요, 너무. 근데 대기업은 인원수가 한정되어있고 그걸 또 들어가겠다고 비집고 들어가는 걸 보면 좀 약간 저는 그게 좀 답답해 보였거든요. (세철)

세철은 “커다란 한 길”을 “모든 사람이 다 꾸역꾸역 막혀 갖고 가는 그런 경쟁시대”의 답답함을 토로한다. 마찬가지로 <다>단체의 서윤이 보기에 주위 친구들의 삶은 “그냥 너무 똑같”고,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진짜 스펙 쌓고 맨날 그냥 하”는 “재미없고 뻔한 스토리”로 받아들여진다. 만성적인 취업난 하에서 청년들에게 학점 관리, 각종 공모전, 높은 영어 점수, 인턴 경험, 해외봉사 등 “대학 이후의 취업과 삶을 조직하는 데 필수 항목이 돼버린 이른바 ‘스펙 쌓기’의 기본적 실천 의례들”(정민우, 2011: 153)의 목록은 점점 늘어가고 획일화되어왔다. 설령 안정적인 직장에 안착하게 되는 경우라도 면담자들은 그러한 직장 생활에서 자기실현적이거나 공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활동 이전에 설계사무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하진은 친구들을 만나면 모두 회사 스트레스, 상사 이야기, 연애 문제 등 자신의 생활세계에 대한 “반복되는 한탄의 주고받음”밖에 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활동하는 청년

들에게 있어서 노동방식의 재구성으로서의 활동은 “그런 게 싫어서”(세철), “그런 거랑 좀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서윤) 하는 것, 의미가 부재하는 노동세계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탈주하고자 하는 분투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2) 자율적 노동의 명암

일반적인 성인기 진입 경로를 거부한 면담자들은 여전히 그 길 위에 남아 있는 청년들을 향한 안타까운 감정을 표출한다. 이들이 보기에 오늘날 학교-직장 이행을 무사히 완주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필연적으로 ‘스펙의 괴물’이 되거나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청년’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단체의 은지는 자신이 특히 “여대를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엄청와 닿”는다고 말한다.

>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대보단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친구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압박감이랄까, 스펙을 잘 쌓아야 된다, 학교가 일단, 학교 커리어가 주는 그게 좀 약하다 보니까 자신의 커리어를 높여야 된다 라는 게 있어서, 스펙을 보면 오 장난이 아니고 스펙 쌓기에 진짜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 그러면서 **진짜 스펙의 괴물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면서도 거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거는, 결국 그런 거를 다 채우고 결국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그 안정적인 인생이 줄 것 같은 그 행복감, 그런 성공이라는 기준, 또 월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데서 헤어 나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보면 이런 새로운 길들도 있고 새로운 시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아직까지는 또 한쪽 방면으로는 그런 거 도전하기보다는 이렇게 스펙 쌓는 데 열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지)

그러나 은지의 현실 속에서는 바로 그 안타까운 친구들이 사실상 은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동정하는 입장이 된다. 친구들이 보기에 은지는 멀쩡한 대학을 졸업하고도 ‘제대로 된 회사’, ‘남들이 인정해주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 ‘방황’하는 20대에 불과하다.

> 친구들이 볼 때 저는 약간 또라이 취급 받거든요. 이상한 사람 취급 받고. 너는 취업 안 하냐 그래서, 나 취업했어 그러니까 그게 취업이냐, 그건 동아리다, 나와

> 가지고 좀 제대로 된 회사에 가자, 그래서 우리 회사다, 이러면 남들이 인정해주는 회사에 가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왜냐면 먼 친구들은 그냥 오 축하해 이러고 마는데, 진짜 친한 친구들은 **너 언제까지 그쪽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거냐, 나와서 제대로 된 직장 갖고 그래야 또 결혼도 하고 이러지**, 그럼 또 전 이러죠. 이 길에선 결혼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은지)

은지를 비롯하여 많은 면담자들이 주위로부터의 이러한 우려 섞인 시선을 감내하고 있다. 중학생 때부터 사회복지 분야의 꿈을 키워오다가 실제 NGO 실습 과정에서 실망하고 <다>단체에 들어오게 된 서윤 역시 "주변 친구들은 맨 처음에 되게 많이 말렸"으며 "집에서도 반대를, 걱정을 좀 많이 하셨"다고 말한다.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이들에 비해 20대 후반인 미연과 30대 초반인 하진은 가족으로부터의 압박을 더 강하게 받고 있다. 하진은 건축을 전공하고 설계사무소에서 일하다가 회사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그만둔 사례이다. 그 이후 희망제작소의 봉사활동, 함께하는재단에서 지원하는 희망청, 노리단 활동을 거쳐 현재 <나>단체 활동에 이르기까지, 부모로부터 "너 뭐 하고 사니? 대체 뭐 하고 지내니?" 같은 질문을 거듭 받아야 했다. 대학원을 중간에 그만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 미연은 부모와 2년 가까이 격렬한 다툼을 거친 끝에 집으로부터의 모든 지원을 포기했다.

미연과 하진의 주변 사람들 중에는 이들의 활동을 인정해주고 "그렇게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주는 친구들이 있다. 그럼에도 미연은 그 친구들이 "그래도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한다. 면담 전날 만났던 친구가 "애 생기면 뭐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물었을 때 미연은 할 말이 없었다고 말한다. 하진의 표현대로, "그런 현실의 어떤 문제를 딱 이야기했을 때,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언어를 이들은 아직 갖추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도 이들의 경제적 조건은 아직 막막한 상태이다. <나>단체는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제작 의뢰를 통해 수입을 얻는데, 2013년 하반기부터는 이들은 거의 <나>단체의 일만으로 자신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넉넉하진 않아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돈은 벌 수 있는"(미연) 정도이고, 부족한 부분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충

당한다. 하진 역시 “뭐 굶어 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지만 직장인이었던 시기와 비교할 때 현재의 생활이 가지는 불안한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당장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을지라도 지금과 같이 저축이 없는 상황에서는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의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잠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조금, 저축이라는 게. (웃음) 왜냐하면 도시에 살기 때문에 또 그, 이렇게 뭐, 하여튼 드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약간 불안감? 지금 제가 활동을 충분히, 지금 충분히 이 정도의 금액으로도 살 수 있는데, 정말 **저축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향후 어떤 일이 생기면, 또 갑자기 부모님이 어떻게 아프시거나,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긴 해요.** (하진)

불규칙한 수입은 저축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현재의 소비 수준 역시 최소화시키도록 한다. 원주는 “아무래도 그렇게 수입이 없다 보니까 좀 돈을 최대한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미연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인간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나>단체에서 생산 작업을 한다고 고백한다. 자신이 “삶의 구조를 유지하려면 어딘가에서 계속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게 돈에 매이는 삶을 원치 않지만, 금욕주의자가 아닌 이상 “나도 나를 꾸미고 싶고, 내 방도 가꾸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진짜 예쁘게 선물도 해 주고 싶”은 소박한 욕망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럴 때 미연은 “돈이 없다고 해서 비참해지긴 싫”다고, 그래서 자신의 손기술을 통해 옷을 만들고, 소품을 만들고는 한다고 말한다.

다른 단체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가>단체는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작은 일감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자기주도적 겸업 일자리 모델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정도의 수입이 유지되지 않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민해는 영어 과외 등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면담자들 중에서 가장 수익모델이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는 <다>단체의 경우에도 수입은 아직까지 지출과 비슷한 정도이고, 두 명의 직원들에게는 고정 월급을 지급할 수 있지만 대표인 주형

은 아직 수입이 없을 뿐 아니라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에게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안정적인 기반이 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정서적인 불안감 또한 존재한다. 회사생활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활동을 통해 삶을 재조직한다는 것은 하진에게 "정말 내가 내 삶을 살고 있고 자유롭게 내 삶을 조정한다는 느낌"으로 인한 행복을 충분히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작단계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활동이란 "맨 땅에 헤딩"하는 일이자 "핑퐁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미연도 마찬가지로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드니까 내가 좀 주도적이 된 것 같아서 좋"지만 동시에 늘어나는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고, 어, 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살아지진 않잖아요, 그니까 무작정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계획, 무에서 다 계획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약간 어디로, **매 순간순간 내가 잘 가고 있나, 어디로 가야 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획, 계획하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나 어려움, 이런 건 또 생겼어요. (미연)

자율적 노동이라는 낭만적인 표현 이면에는 면담자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겪게 되는 여러 종류의 고난들이 있다. 이들은 사회적 인정투쟁에서 열위에 놓여 있고, 경제적 수입에서 자신의 계층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정서적 측면에서도 끊임없이 불안감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활동을 포기하고 기존의 삶, 다수의 삶으로 돌아가는 대신 어떻게든 현재의 조건 위에서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무엇이 이들을 추동하는가? 다음 절에서는 활동하는 청년들이 이러한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왜 삶의 방식으로서 활동을 선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3. 활동가의 대응 전략과 자아정체성

1) 자기성찰적 주체들의 진정성 추구

위에서 살펴본 수많은 역경들에도 불구하고 면담자들은 활동하는 삶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지속의 의미란 면담자들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활동을 노동의 형태로 추구하고자 하는 면담자들은 경제적으로 불안한 현재의 조건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갖추게 될 시기를 기대하면서 지금의 활동이 지속되기를 꿈꾼다. 50만 원짜리 작은 일감을 만들고 있는 <가>단체의 구성원들이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하다보면 50만원에서 점점 불 거 아니에요, 이익이?" (민해)라고 예상하며, 수익이 100만 원 정도 되면 이를 다른 동료들과 나누겠다는 약속을 하는 순간이 그렇다. 활동을 완전한 직업으로 삼을 계획이 없는 면담자들은 미래에 일반적인 취직이나 창업을 통해 경제적 수입을 충당하게 되더라도 그때는 그러한 조건에 적합한 다른 형태의 활동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청년허브에서 '청년참' 사업 지원을 받는 활동 중에는 구성원이 모두 직장인인 봉사 모임이 있다. 면담자 중 아직 대학생인 세희는 자신이 장녀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는 취직을 해서 집으로부터 독립해야 하지만 "제 생계를 꾸려 나가면서 <마>단체에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해 말할 때 '활동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표현한다는 것이다. 활동을 하는 이유는 외부적인 근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들은 활동하는 '자신'을 중심으로 서사하고, 활동 과정에서 결코 '나'를 놓치지 않으며 행위하고자 한다. 가령 미연은 면담의 말미에서 "일단은 나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나를 저버리고 하는 활동은 진짜 좋은 활동도 어떤 것도 의미 없"다고 말한다. 하진은 자신의 활동이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며, 태호 역시 "그게 아무리 사회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힘들어하는 일을 사회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언급한다. 면담자들 중 한국사회의 정치적 이슈에 가장 민감한 관심을 보였던 원주는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 운동을 하시거나 이런 활동가 분들의 역할도 되게 필요하지만, 저도 이제 밀양이나 이런 데를 몇 번 가보면서 느낀 건데, 진짜 지금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엄청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분들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그니까 **모두가 다 나와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다, 그게 우리를 위한 거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원주)

이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이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기를 분명히 소망하지만, 이러한 소망이 사회적 의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의지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앞 장에서 보았던 청년허브 이슈포럼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기성세대 활동가와 청년세대 활동가 사이에 일어나게 마련인 마찰 역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젊은 세대의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로 치부할 수 있을까? 여기서 면담자들이 강조하는 '나'란 이기적이거나 속물적인 개인이 아니라 성찰적이고 진정한 자아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스스로에게 부과한다. 민해는 대안학교 졸업 후 방황하며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미연은 면담 중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라는 이야기 이후에 한참 동안 침묵한다. 사실상 현재 한국사회는 표준화된 '잘 사는 법'의 과잉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 간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자기계발서, 힐링 에세이, 성공한 멘토의 강연, 토크콘서트 등은 상품화된 형태로 범람하는 중이다. 면담자들의 주위 친구들 역시 대부분 이미 '잘 사는 법'을 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잘 산다는 것에 회의를 표하고 다른 대안을 갈구한다.

이들에게 있어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찾아헤매는 끝없는 여정의 한 단계이다. 이 좋은 삶의 기준이란 외부에서 주어질 수 없으며, 개인이 스스로 성찰과 실천을 통해 정립했을 때에만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면담자들은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예컨대 주형은 <다>단체가 "그냥 제가 재밌게 놀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고 말한다. 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정의감을 가져야 된다",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는 방향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은 물

론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주형에게 현재의 활동은 “사실은 제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끄집어내는 과정인 것 같”다고 표현된다.

태호는 자신의 선호와 무관하게 배치표에 맞춰서 담임선생님이 추천해준 대로 대학에 진학했고, 그 때문에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소위 ‘대학 부적응자’의 삶을 살았던 사례이다. 수업 시간표를 짜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선택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태호는 “나는 주어진 걸 잘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전공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내가 나중에 뭘 하고 살게 될까”라는 고민과 처음 마주하게 되었다. 활동을 시작하면서 태호가 느꼈던 엄청난 해방감과 쾌감은 그로 하여금 개인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가지는 각별함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가 현재 하고 있는 청년들의 대안놀이문화 기획이 어떻게 사회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태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 저는 사회적인 의미와 개인은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해서 논다고 해도 그건 아주 사회적인 활동이에요. 저는 **개개인이 자신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 아주 사회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20대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저도, 저도 그런 사람 중의 한 명이었고. 저는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게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문화예술이고, 인문학이고.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삶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고민을 시작하게 해 주는 게 저는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문화예술 활동을 하다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삶의, 그러니까 진짜 호불호, 그냥 기호, 자기 삶의 기호에 대한 문제만 고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주 그 개인한테는 소중한 일이고 그 소중한 그 개인의 일이 아주 사회적인 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삶의 의미를 찾은 개인들이 모인 사회는 아주 좋은 사회죠.** (웃음) 근데 그게 잘 안되잖아요. (태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 그럼으로써 삶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할 수 있는 것에 활동가들이 천착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인적

인 욕망을 금기시하며 대의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당연했던, 또는 개인의 소망과 활동의 목표가 일치했던 예전의 운동 방식과 확연히 구분된다. 특정한 직업군에 속해 일과 삶, 노동과 여가를 구분해야 하는 오늘날 대부분의 노동조건에서도 이들은 낯선 주체들이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분투하는 행위는 이미 현대사회의 수많은 개인들이 당면해있는 과제이지만, 이러한 분투 자체를 삶의 중심이자 물질적 토대로 삼는다는 것은 '자아의 보존'을 제외한 다른 많은 조건들을 포기하도록 하는 결단이다.

이러한 진정성의 추구는 면담자들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자본인 동시에 그로 인해 결핍되는 다른 조건들을 정당화하는 족쇄로 작동하는 측면 역시 지니고 있다. 면담자들은 지금의 삶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져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예컨대 미연은 자신이 이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조건도 갖추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꾸 사람인지라 이것도 갖고 싶기는" 하지만, "내가 선택했으면, 그냥 과감히 어쩔 수 없지, 라고 마음을 다독여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미연이 갖고 싶기도 하다고 말하는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 먹고 자고 입을 수 있는 조건을 지칭한다.

그런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본적 조건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이러한 논리는 최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열정 노동'(한윤형 외, 2011)의 논리와 맞닿는 지점이 있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사회적 권리의 주체가 스스로를 책임의 주체로 자임하게 하는 신자유주의적 책임화의 기획(김주환, 2012) 역시 이와 조응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할 수도 있다. 이는 일부 면담자들이 활동을 대하는 태도에 반영되어 있는 자기계발의 욕망에 의해 뒷받침된다.

> 어쨌든 뭐 기술들을 배우고 있고 다양한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재능 부분에서도.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스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만의.** (민해)

> 취업을 하고 싶다면 굳이 그 취업을 위해서 기업이 원하는 그런 스펙을 쌓는 것보다도 **내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의 성과를 내면, 똑같은 성과를 냈는데 그건 이제 주어진 루트대로 한 것보**

다 훨씬 더 좋은 스펙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만약에 스펙을 쌓고 싶다면. 그래서 그냥 저는 일단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면 그냥 그거 자체가 내 스펙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소영)

활동을 일종의 '스펙'이라고 표현하는, 그것도 표준적인 스펙보다 "훨씬 더 좋은" 자기만의 스펙일 수 있다고 강조하는 이러한 언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서동진(2009)의 비판과 같이 이 역시 1990년대의 '신세대 혁명'을 정점으로 개인들이 스스로를 자기계발하는 주체로 주조하게 했던 "자기실현과 자기표현의 문화"(25)의 또 다른 형태인 것인가? 혹은 조문영(2013)이 대학생들의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분석하며 이러한 활동이 어떻게 의미 추구를 위한 에피소드로서 '공공이라는 이름의 치유'가 되고 결국 다시 스펙의 일환으로 사용되거나 일시적 봉합에 멈추는지 지적했던 바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인가?

사회적 변화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던 이들이 불현듯 자기계발하는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내비칠 때, 이를 진정성의 도구화이자 활동의 도구화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날 모든 청년세대가 자유로울 수 없는 '생존'에의 의지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2) 생존 전략으로서의 활동

면담자 하진과 미연은 <나>단체의 활동을 두고 '나를 살리는' 일이라고 거듭 표현한다. 청년세대의 생존과 자립 자체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송수연, 2013: 145) 시대에서, '살린다'는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오늘날 한국사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산업국가에서 청년세대는 낮은 청년 고용률, 성년기 이행의 불확실성, 안정적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치의 인플레이션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한다. 사회는 모든 것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음을 담론적으로 강조하지만, 실제로 청년이 선택 가능한 범위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일본의 '사토리세대', 한국의 '삼포세대'는 이러한 현실적 조건을 간파하고 최대한 자신의 삶을 축소하여 사회구조의 압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선택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이 어떻게 개인을 살리는 길, 곧 생존을 위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는가? 먼저 이들에게 생존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수용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김홍중(2009a)은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추구하는 생존을 경제적 생존, 사회적 생존, 생물학적 생존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환경에 놓인 행위자들은 실업의 공포와 무한경쟁의 시장에서, 과시적인 인정투쟁의 속물적 공간 속에서, 육체적·정신적 질병을 넘어서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한다(182). 이는 200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사회의 청년세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 온 수식어들이다.

활동하는 청년들 역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유형의 생존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특히 경제적 생존의 경우, '평범한 삶'을 위한 비용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오늘날 청년의 자립이 얼마나 요원한 일로 탈바꿈했는지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들은 끝없는 경쟁을 거듭하지 않으면서도 생존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분투한다. 이들은 자신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획일적인 스펙 수집에서 빠져나오기를 선택하며, 안정적인 미래를 포기하는 대신 "넉넉하진 않아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미연) 돈만 벌면서 "돈을 최대한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원주)을 고민한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생존해야 하지만, 이 역시 속물성을 과시하는 인정투쟁의 장과는 다른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좋은' 일, "사회에 배반되지 않는 일"(하진)이거나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는"(주형) 일을 함으로써 윤리적인 자본을 획득하고자 한다. 이를 놓지 않는 동시에 진정한 의미를 찾아나갈 수 없는 삶이라면 이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앞서 지적한 하진과 미연의 표현은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의 삶에서 이들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스펙이란 이러한 생존 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뜻한다.

하고 싶은 일을 통해 이윤을 얻으면서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행위, 대표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장려 과정에서 확산되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개념적으로는 매끄럽지만 현실적으로는 균형을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이상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면담자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가령 세

철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청년혁신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기업에 대한 환상이 무너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면담자들 중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가장 장기간 활동했던 태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기고 있는, 아주 최고로 여겨지는 가치들을 기본적으로 아주 우리가 사회적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과는 되게 상반된 가치, 그걸 중간에서 융합해 내는 시도가 저는 사회적기업이고 사회적경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융합이라는 게 아주 어려워서**, 조금만 비뚤어지면, **조금만 기업논리를 조금만 더 갖다 대게 되면 타협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 타협은 아주 사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어딘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태호)

태호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현재 활발히 유포되는 제3섹터의 삶의 방식이 완벽한 대안이라거나 쉽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패배주의적인 결론인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그걸 융합하는 과정을 멈췄으면 좋겠"다고 고백한다. 그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청년허브와 같이 제도적 영역에 속해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름답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며 "비판할 거리, 숨기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호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했고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으며, 현재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대안적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이성적으로 그 어려움과 불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활동의 지속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객관적으로 불안한 조건에서도 대부분의 면담자들이 미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낙관적인 전망과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다. 아래에 인용된 것은 두 면담자의 사례이다.

> **저는 이것에 삶을 던졌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 중의 하나는 70세 때 불꽃쇼(<다> 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행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 … 그래서 **이제 나이가 서른이 되는데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들을 가져가고 싶고.** 3~40대에도 내가 상상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20대가 상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 더 많은 것들을 접하다 보면 더 다양한 상상들로 갈 수 있는 거고. … 그래서 **저는 계속 지속이 되고 싶고. 근데 이건 제가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할 수 있을까 보다는 그냥 내가 내년에도 하면 하는 거죠.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주형)

불안감은 좀 있는데요, 옛날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 저를 규명할 때 저는 직업으로 규명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제 스스로가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 실마리들은 문화예술, 인문학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거. (태호)

주형과 태호를 비롯하여 많은 면담자들은 활동하는 삶의 지속에 대하여 시쳇말로 '근자감'이라고 부르는, '근거 없는 자신감'의 에토스를 지니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주체들의 에토스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언제 무심히 짓밟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자신감이다. 이들은 청년세대의 불안을 구조적으로 양산하고 다른 방식의 삶을 안전하게 허용하지 않는 한국사회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음에도, 유사한 환멸을 느끼는 요즘의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탈주의 욕망, 이를테면 '이민가야겠다'는 습관적인 말로 표현되는 욕망을 한 번도 표출하지 않는다. 환언하면 이들은 외부에서 탈출구를 찾지 않는다. 불가능한 유토피아를 선언하지도 않는다. 이들의 꿈은 하나의 시공간에 발을 딛고 있는 '나'를 경유해서만 성립한다. 이는 이전 시대에 꿈꾸어졌던 범위와의 비교에서 승리할 수 없지만, 현 시대 꿈의 한계치를 제약하는 사회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것이다.

지금 발 딛고 있는 자본주의사회를 바꾸어내기에 스스로가 너무 미약하다는 자조, 활동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합리화는 사실상 변혁불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인지와 변혁에 대한 합정적(김홍중, 2013) 소망 사이에서 이루어진 타협의 산물일지 모른다. 현실적 조건과 불화하는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 윤리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집합적 꿈은 이들의 활동을 추동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Ⅴ. 결론: 활동하는 삶의 지속가능성

본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문제적 집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세대에 주목하여, 이들의 삶을 둘러싼 실존적 긴장이 첨예하게 발견되는 장으로서의 '청년 활동'을 담론적·제도적·실천적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청년이 표상되어온 방식과 활동 개념의 관련성, 청년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이하 청년허브)의 특수성, 활동하는 청년 당사자가 지니고 있는 실천적 지향성을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견된 지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담론적 차원에서 활동은 정치적 운동 주체로서의 청년상이 몰락하고 문제적 노동인구로서의 청년상이 대두되면서 청년세대가 처하게 된 이중적 위기를 토대로 등장했다. 단순한 연령코호트가 아니라 진보, 혁신, 창조와 같은 상징을 수반해 온 청년이라는 기표는 특히 한국의 근대에서 국민국가 건설의 요체이자 자립적인 계몽 주체로 개념화되었다. 4·19혁명과 80년대 민주화투쟁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공고화된 청년의 원형적 상징은, 90년대 학생운동의 위기와 2000년대 탈정치화 담론을 거치며 서서히 붕괴한다. 한편 1997년 IMF 사태 이후 한국사회에서 청년실업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며 청년백수층의 문제가 조명되기 시작하고, 10년 후 『88만원세대』의 출간은 청년의 열악한 경제적 조건을 다루는 담론의 폭발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청년 활동은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간주되면서도 경제적 생존이 가능한 삶의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고, 변혁적인 정치-운동의 주체로서도, 정상적인 경제-노동의 주체로서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청년은 사회-활동의 의미론을 통해 이중적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로 재등장하였다. 각종 매체를 통해 새롭게 영웅화된 활동하는 청년들은 더 이상 국가 권력이나 자본주의 구조를 타격함으로써가 아니라 청년의 고유한 창조력과 열정을 통해 새롭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신적 모델로 재현되었다.

둘째, 제도적 차원에서 활동은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서울시장 당선 이후 변화된 청년대책과 청년관리장치로서의 청년허브의 작동에 의해 구체화·

확장되었다. 2000년 이후 청년실업률이 6~7%대로 고착화되자 정부는 이를 국가적인 문제상황으로 인식하여 2003년부터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법령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다. 2008년부터는 청년 기업가 육성과 미래 산업 청년리더 양성과 같이 청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실업대책이 등장한다. 취업에서 창업·창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청년이 스스로 창출하는 일자리로 변화된 정책적 프레임은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지속 및 확산된다. 한편 2012년 이후 서울시는 창조적 노동력으로서의 청년 예비기업가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신, 청년 참여적 시정개혁을 기반으로 하여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청년대책을 지향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2013년 4월, 서울시 청년문제 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장치로서 청년허브가 설립되었다. 공적 문건 상으로 드러나는 청년허브란 청년일자리 시책을 담당하기 위한 민간위탁기관이지만, 실제 사업들을 살펴보면 이곳은 일자리 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사회적 활동과 자발적 공동체를 지원하고 청년 개개인을 적극적 시민이자 혁신적 활동가로 양성하는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허브는 하자센터, 함께일하는재단 등의 씽크탱크와 함께 제도화된 시민운동으로서 학습과 성장의 경험을 제공하는 주체 생산 기제가 된다. 청년의 주체화 기획은 공공적이고 자발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활동이라는 이상적인 삶의 형태를 구체화시키고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가능했다.

셋째, 실천적 차원에서 청년 활동의 당사자들은 담론적 재현과 제도적 주체화의 논리를 일부 투영하면서도, 이로는 해소될 수 없는 현장에서의 긴장을 보여주었다. 우선 청년허브의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학생운동-사회운동-사회적경제와 같은 기성의 진입 경로가 아니라 다채로운 계기와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담자 중 일부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창업에 대한 관심을 통해, 일부는 의미가 결핍되었던 기존의 삶과 전혀 다른 세계와의 충격적인 조우로 인해, 다른 일부는 생활 속에서 경험한 자본주의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스템 변혁의 불가능성을 인지하고 문화적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실천적 지향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이들의 활동은 성과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행위자 개개인이 시스템에 조

금씩 균열을 만듦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가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해 추동된다. 한편 어떤 면담자들은 활동을 이미 일자리에 근접한 형태로 구현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규범적 성인기 이행의 경로를 거부하고 생애설계를 재조직하려는 실험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기술 습득, 수제작 등을 통해 생산과정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거나, 겸업 일자리 모델의 개발을 통해 자립적인 노동 방식을 구축함으로써 청년세대가 빠져 있는 스펙경쟁의 이행기로부터 탈피하고자 한다. 물론 자립의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자율적 노동이란 명암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들은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대신 사회적 인정투쟁에서의 열위와 경제적 조건의 불안을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로 하여금 활동하는 삶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부과하는 성찰적 자아의 존재이다.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아 실천하는 일, 그럼으로써 삶의 진정한 의미를 획득하는 일에 천착하는 이들에게 활동이란 현재 가장 구체화된 형태로 제공된 공간이다. 낮은 청년 고용률, 성인기 이행의 붕괴, 안정적 미래 설계의 불가능성으로 점철된 오늘날의 사회적 조건은 청년들에게 치열한 생존이 아니면 처참한 도태를 종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은 객관적으로 불안한 조건 위에서도 지속가능한 삶과 집합적 미래를 주관적으로 꿈꾸게 허락하는 유일한 생존 전략으로서 선택된다.

연구를 마무리하며 명확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활동이라는 전략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전략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Ⅰ장의 연구참여자 특성에 제시되어 있듯이, 면담을 진행한 청년들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민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다. 실제로 만나본 이들은 문화예술적 재능을 습득했거나 최소한 언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요컨대 상당한 문화자본을 가진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당장으로서는 가족을 부양해야할 압박이 없는 청년들이기도 했다. 애초부터 '유예된 청춘'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하층계급 청년들에 대한 정수남 등(2012)의 연구가 지적하듯이, 현재 문제시되는 청년층의 계급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이는 청년허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역시 일정 정도의 문화자본을 갖추지 않은 청년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로 이어진다. 실제로 청년실업자, 청년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혁신활동'의 경우 참여자의 86.9%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참여자의 역량과 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고용률 저하의 중대한 요인인 '고학력 니트'층을 타겟으로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전담기관의 위치에서 특정 계층의 청년집단, 래쉬가 지적한 바 있는 '성찰성의 승자들'(reflexivity winners)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비판 역시 제기될 수 있다. 문화적인 학습과 성장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을 주체화하고자 하는 청년허브의 기획이 또 다른 배제의 경계를 비의도적으로 긋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를테면 최소한의 노동조건 그 자체에 대한 절박한 필요가 있는 청년들의 삶에 자기실현에의 강조나 사회적 의미 추구가 어떻게 유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위의 지점과 연결되는 본 연구의 첫 번째 한계는 청년허브의 지원으로 활동했던 청년들 전반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던 질적 연구 자체의 한계이다. 2013년도 사업 종료와 2014년도 사업 시작 사이의 공백기에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연구가 불가능했고, 따라서 참여자들의 정보는 공개된 텍스트와 면담자 17명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었다. 또 다른 한계는 동시대적인 연구대상을 다루는 데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현장감을 줄 수 있으나 그 중요도와 의미에 대한 학술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문제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일종의 탐색적 연구인 바, 통시적 시각과 대상의 세밀한 유형화를 수반하는 후속 연구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청년 활동이라는 유형을 통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선택하는 하나의 삶의 방식에서 발생하는 실존적 딜레마를 주시하였다. 활동은 경제적 노동도 정치적 운동도 아니지만, 노동의 영역에서 상실된 의미와 운동의 영역에서 상실된 지속가능성을 함께 복권하려는 시도이다. 서울시의 경우 그 시도는 주체화-시키기로서의 통치성 기획과 주체-되기로서의 성찰성 기획이 맞물리며 긴장을 빚어내는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성찰적 자기통치 기획이라고 부를 수 있

다면, 그 전망은 어떠한가? 현실의 땅에 발을 딛고도 진정한 삶을 수복할 수 있다는 활동의 집합적 상상이 붕괴하거나, 현재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졌을 때에도 활동은 지속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제한된 실천적 역량 속에서 활동이 운동과, 생활정치가 해방정치와 병행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청년 연구의 이론적·실천적 맥락에서 이러한 질문과 논의가 가능한 하나의 공간을 열어내고자 한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경제적 활동을 해도 너무 사회에 배반되는 일이 아니라
도움이 되면서도 그게 나의 즐거움이 되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지?"
- 면담자 하진(여, 30대 초)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1) 신문기사

《한겨레》, <‘오렌지족’ 신풍속도 진단>, 1992.11.7.
《동아일보》, <한국사회 ‘탈정치화’하려면>, 1999.2.8.
《한국일보》, <청년을 위한 변명>, 2000.11.13.
《한겨레》, <탈정치 세대여! 저항하라>, 2002.12.10.
《연합뉴스》, <촛불시위, 새 참여문화 시발>, 2003.6.10.
《문화일보》, <20대의 탈정치화를 막는 길>, 2003.7.30.
《오마이뉴스》, <대학생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 2002.12.13.
《한겨레》, <2030의 ‘중도’는 ‘진보’>, 2007.3.27.
《국민일보》, <脫정치 대학가 현실주의 강풍>, 2005.12.2.
《경향신문》, <대학가 ‘탈(脫)정치’의 빛과 그림자>, 2006.5.11.
《문화일보》, <서울대 한총련 탈퇴 논란 확산>, 2006.5.26. 등.
《한국일보》, <청장년 실업이 문제다>, 2000.12.26.
《매일경제》, <실업을 극복한다>, 2001.2.22.
《한국일보》, <청년실업, 전문교육이 해법>, 2001.4.22.
《동아일보》, <청년실업자 105만>, 2001.4.22.
《문화일보》, <청년 4명중 1명 ‘백수’>, 2002.12.18.
《동아일보》, <“大卒백수…졸업장이 되레 짐” 끝 안보이는 청년실업>, 2003.4.10.
《동아일보》, <니트 族>, 2005.3.23.
《서울신문》, <신빈곤층 형성 우려되는 니트족>, 2006.2.3.
《경향신문》, <우석훈 교수 “20대 변화 없어… 88만원 세대 절판”>, 2012.3.26.
《시사인》,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2007.10.1.
《시사인》, <‘대학 5학년’ 대한민국의 슬픈 초상>, 2009.1.12.

《경향신문》, 〈[복지국가를 말한다](1부)② 과부하 걸린 한국의 가족〉, 2011.5.11.
《한국일보》, 〈소셜 벤처에 뛰어드는 젊은이들〉, 2009.1.28.
《한겨레》, 〈“개인 행복·기업 이윤·공동체 복리 다 잡고파”〉, 2007.9.27.
《머니투데이》, 〈지금과 다른 삶을 꿈꾸는 이를 위한 인생설계법〉, 2008.6.25.
《경향신문》,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는 대학생들〉, 2009.2.8.
《한국일보》, 〈답답한 20代 '소셜 벤처'에 길을 묻다〉, 2009.1.28.
《경향신문》, 〈한·일 청년세대의 '사회적 기업'〉, 2009.4.20.
《경향신문》,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정, 사회적 기업〉, 2009.11.5.
《경향신문》, 〈청년 사회적기업가, 다른 삶을 꿈꾸다〉, 2010.11.10.
《한겨레》, 〈새 사업가상 만드는 소셜벤처 창업청년들〉, 2012.8.17.
《경향신문》, 〈서울시 “청년 CEO 1천명 육성”〉, 2009.5.11.
《아시아경제》, 〈“박원순 시장, '청책워크숍'으로 청년 일자리 해법 모색”〉, 2011.12.6.
《동아일보》, 〈사장 꿈꾸는 청년 지원… '창업 인턴제' 이달 시행〉, 2010.2.2.
《한국일보》, 〈맛집 탐방하고 채식 함께하고… 밥상 사교 '소셜 다이닝' 새바람〉, 2012.6.8.
《오마이뉴스》, 〈2030 청년들의 마을 프로젝트 '구로는예술대학'〉, 2012.10.25.

2) 서울시 정책 문건

서울시. 2011. 「2011년도 정책자료집-청년창업100프로젝트」.
_____. 2012. 「2012년도 정책자료집-창조적 청년기업 10,000개 육성」.
_____. 2013. 「청년, 일을 통한 꿈의 실현-2013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_____. 2013. 「2013년도 정책자료집-청년일자리허브 조성」.
_____. 2013. 「2013년도 정책자료집-일자리창출 종합대책」.

_____. 2013. 「시민 말씀대로-시민과 함께한 희망시정 2년」.
_____. 2013. 「새로운 변화 시민과 함께, 613일의 발자국-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연설문집」.
_____. 2014. 「2014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3) 청년허브 발간물

청년허브. 2013. 『2013 청년참 디렉토리북: 청년참은 사건이다』.
_____. 2014. 『2013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이디어북』.
_____. 2014. 『2013 청년허브 워크북: 청년과 사회의 새로운 접점을 만드는 10개의 일자리 이야기』.
_____. 2014. 『청년혁신일자리 가이드북: 2013 혁신활동가 양성사업으로 본 청년의 내 '일' 』.
_____. 2014. 『2013 청년허브 ANNUAL REPORT』.

2. 국내저자 문헌

강내희 외. 1992. 『압구정동: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현실문화연구.
김기완. 2012. 「'제2의 벤처 붐'을 맞고 있는가?: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장에 대한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김삼웅. 2001. 『민족・민주・민중선언: 한국 근현대사 100년 자료집』. 한국학술정보.
김성훈. 2005. 『만화 속 백수 이야기』. 살림.
김애순. 2010. 『혼돈의 20대, 자신을 말하다』. 시그마북스.
김영・황정미. 2013. 「"요요 이행" 과 "DIY 일대기":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14(1), 215-260.
김원. 2011.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이매진.
김정한. 2006. 「민주화 세대의 역사적 좌표」. 『황해문화』. 96-109.

김주환. 2012.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계보학」. 『경제와사회』 96, 210-251.
김지영. 2011. 「식민지 대중문화와 '청춘' 표상」. 『정신문화연구』 34(3), 145-182.
김현민. 2012. 「사회적기업에서 종사하는 청년들의 일 경험에 관한 연구: (주)노리단 사례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김홍중. 2009a. 「육화된 신자유주의의 윤리적 해체」. 『사회와이론』 14, 173-212.
_____. 2009b.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_____. 2013. 「사회적인 것의 합정성(合情性)을 찾아서」. 『사회와이론』 23, 7-48.
남재량. 2006. 「청년 니트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넥스터스. 2008. 『아름다운 거짓말: 대한민국 20대, 세계의 사회적 기업을 만나다』. 북노마드.
단편선 외. 2010. 『발칙한 반란을 꿈꾸는 요새 젊은 것들-88만원세대 자력갱생 프로젝트』. 자리.
박길성. 2002. 「왜 세대인가」. 사회과학원: 8-27.
박원순. 2011. 『세상을 바꾸는 천개의 직업』. 문학동네.
박재흥. 1992. 「한국 사회의 세대 문제: 질적 접근」. 『사회와역사』 38, 11-66.
_____. 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29, 651-683.
_____. 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10-34.
박주연. 2010. 「대안적 일터로서의 사회적기업: 문화예술분야기업 청년종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박해광. 2007. 「문화 연구와 담론 분석」. 『문화와 사회』 2, 83-116.
박해긍. 2011.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

회적기업연구』 4(2), 137-147.
서동진. 2004. 「백수, 탈근대 자본주의의 무능력자들」. 『당대비평』 23, 100-112.
_____. 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_____. 2011. 「혁신, 자율, 민주화… 그리고 경영」. 『경제와사회』 89, 71-104.
소영현. 2005. 「청년과 근대」. 『한국근대문학연구』 6(1), 42-70.
_____. 2012. 「한국사회와 청년들」. 『한국근대문학연구』 26, 387-416.
신광영. 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사회』 81, 35-60.
송수연. 2013. 「새로운 문화정치의 장, 자립문화 운동: 문화귀촌, 청년의 소셜 네트워크, 메이커문화를 중심으로」. 『문화과학』 73, 145-159.
송재희 외. 1993.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 현실문화연구.
송호근 외. 2010. 『위기의 청년세대-출구를 찾다』. 나남.
송화준・한솔. 2014. 『우리에게는 또다른 영토가 있다』. 알렙.
엄기호. 2010.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푸른숲.
우석훈. 2007. 『88만원 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레디앙.
이기형. 2006.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14(3), 106-145.
_____. 2010. 「세대와 세대론의 문화정치: “신세대”와 “촛불세대”의 주체형성과 특성을 다룬 세대담론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7-38.
이기훈. 2005. 「日帝下 靑年談論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이동연. 2004. 「세대문화의 구별짓기와 주체형성-세대담론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문화과학』, 135-153.
이신모. 2009. 「사회적 기업 창업을 통한 청년실업해소」.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1-24.
이영희. 2013. 「서울시의 참여적 시정개혁 평가」. 『경제와사회』, 106-133.

이회수 외. 2013. 『청춘, 착한기업 시작했습니다』. 부키.
이희영. 2011. 「텍스트의 ‘세계’해석과 비판사회과학적 함의: 구술자료의 채록에서 텍스트의 해석으로」. 『경제와사회』 91, 103-142.
임지선. 2012. 『현시창-대한민국은 청춘을 위로할 자격이 없다』. 알마.
전상진・정주훈. 2006. 「한국 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한국사회학』 40(6), 261-285.
전상진. 2009. 「2008년 촛불 현상에 대한 세대사회학적 고찰」. 『현대정치연구』 2(1), 5-31.
_____. 2010. 「세대경쟁과 정치적 세대: 독일 세대논쟁의 88만원 세대론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0, 127-150.
정민우. 2011. 『자기만의 방: 고시원으로 보는 청년 세대와 주거의 사회학』. 이매진.
정상근. 2011.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청춘이다』. 시대의창.
정수남 외. 2012. 「‘청춘’ 밖의 청춘, 그들의 성인기 이행과 자아정체성」. 『문화와사회』 12, 35-103.
정연순. 2011. 「사회적 기업과 청년진로개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평생교육학연구』 17(2), 123-144.
정인수・김기민. 2005.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정혜경. 2005. 「백수들의 위험한 수다-박민규・정이현・이기호의 소설」. 『문학과사회』 18(2), 173-191.
조문영. 2013. 「공공이라는 이름의 치유: 한 대기업의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본 한국 사회」. 『한국문화인류학』 46(2), 45-91.
조성주. 2009.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 시대의창.
주덕한. 2009. 「전국백수연대, 11년의 활동」. 『황해문화』, 215-232.
주은우. 2004. 「4・19 시대 청년과 오늘의 청년」. 『문화과학』, 86-117.
최성민. 2012. 「“청년” 개념과 청년 담론 서사의 변화 양상」. 『현대문학이론연구』 50, 227-248.
최승훈. 2011. 「사회적 경제와 청년: 소셜벤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상진. 2007. 「탈인습 세대의 형성과 분화」. 『사회와이론』 11, 7-48.
한윤형 외. 2011.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웅진지식하우스.
현실문화. 1994.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 현실문화연구.

3. 국외저자 문헌

기든스. 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권기돈 역. 새물결.
기든스・벡・래쉬. 1998. 『성찰적 근대화』. 임현진 역. 한울.
다르니・르 루. 2006. 『세상을 바꾸는 대안기업가 80인』. 마고북스.
바커・갈리신스키. 2009.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백선기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벡. 2006.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역. 새물결.
__. 2013. 『자기만의 신』. 홍찬숙 역. 도서출판 길.
페어클럽. 2012. 『담화 분석 방법』. 김지홍 역. 경진.
푸코. 2010[1990].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이규현 역. 나남출판.
____. 2011.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역. 난장.
____. 2012.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오트르망 역. 난장.
후지무라 야스유키. 『3만엔 비즈니스, 적게 일하고 더 행복하기』. 김유익 역. 북센스.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
_____. 2007. “Suffering, selfish, slackers? Myths and reality about emerging adul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1): 23-29.
Beck, U., & Beck-Gernsheim, E. 2002. *Individualization: individu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Sage.
Bennett, T. 1998. *Culture: A reformer’s science.* Sage.

Bessant, J. 2003. "Youth participation: a new mode of government." Policy studies 24(2-3): 87-100.

_____. 2004. "Mixed messages: Youth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practice."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2): 387-404.

Black, R. 2011. "Student participation and disadvantage: Limitations in policy and practice." Journal of Youth Studies, 14(4), 463-474.

Bragg, S. 2007. " 'Student Voice' and Governmentality: The production of enterprising subjects?" Discourse: studies in the cultural politics of education 28(3): 343-358.

Brubaker, R., & Cooper, F. 2000. "Beyond 'identity'." Theory and society, 29, 1-47.

Buckingham, D. 2008. "Introducing identity." in *Youth, identity, and digital media.* the MIT Press.

Butler, J. 1999.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Chouliaraki, L., & Fairclough, N. 1999. *Discourse in late modernity: Rethinking critical discourse analysis.* Edinburgh University Press.

Cohen, S. 1980. "Symbols of trouble: introduction to the new edition." in S. Cohen, *Folk Devils and Moral Panics: The Creation of the Mods and Rockers.* London: Martin Robertson.

Denzin, N. & Lincoln, Y. (Eds.). 2005.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Fairclough, N. 1995.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Longman.

_____. 2003.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London: Routledge.

Fielding, M. 2004. " 'New wave' student voice and the renewal of civic society." London Review of Education, 2(3), 197-217.

Foucault, M. 1982. "The subject and power", in H. Dreyfus and P. Rabinow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Brighton: Harvester.

_____. 1986. *The Care of the Self*; trans. R. Hurley, New York: Pantheon.

_____. 1988. "Technologies of the self", in L. H. Martin, H. Gutman and P. H. Hutton (eds) *Technologies of the Self: A Seminar mith Michel foucault*, London: Tavistock.

_____. 1991. "Governmentality", in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C. Gordon, P. Miller, & G. Burchell (Eds.). Harvester-Wheatsheaf.

_____. 1993. "About the beginning of the hermeneutics of the self" (transcription of two lectures in Dartmouth on 17 and 24 November 1980), ed. Mark Blasius, Political Theory 21(2): 198.227.

France, A. 2000. "Towards a sociological understanding of youth and their risk-taking." Journal of youth studies 3(3): 317-331.

_____. 2007. *Understanding youth in late modernity.* McGraw-Hill International.

Furlong, A. 2009. *Handbook of youth and young adulthood: new perspectives and agendas.* Routledge.

Furlong, A. and F. Cartmel 2006[1997]. *Young people and social change.* McGraw-Hill International.

Gale, T. 1999. "Policy trajectories: Treading the discursive path of policy analysis." Discourse: studies in the cultural politics of education, 20(3), 393-407.

Gane, N. 2004. *The future of social theory.* Continuum.

Gillis, J. R. 1974. "Youth and history: Tradition and change in European age relations, 1770-Present." New York: Academic Press.

Hall, S. 1996. "Who needs 'identity?'" Intro. to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ed. Stuart Hall and Paul du Gay. Sage.

Harvey, D. 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Blackwell.

Irwin, A. 2006. "The Politics of Talk Coming to Terms with the 'New' Scientific Governance." Social studies of science, 36(2), 299-320.

Jenkins, R. 2008[1996]. *Social Identity.* Routledge.

Kelly, P. 2001. "Youth at risk: Processes of individualisation and responsibilisation in the risk society." Discourse 22(1): 23-33.

_____. 2006. "The entrepreneurial self and 'youth at-risk': Exploring the horizons of ident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Journal of youth studies 9(1): 17-32.

Lasch, C. 1979. *The culture of narcissism: American life in an age of diminishing expectations*. WW Norton & Company.

Lemke, T. 2001. " 'The birth of bio-politics': Michel Foucault's lecture at the College de France on neo-liberal governmentality." Economy and society, 30(2), 190-207.

Mitterauer, M. 1992. *A history of youth*. Oxford: Blackwell.

Raby, R. 2014. "Children's participation as neo-liberal governance?" Discourse: Studies in the Cultural Politics of Education, 35(1), 77-89.

Rose, N. 1996. "The death of the social? Re-figuring the territory of gover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5(3), 327-356.

Sennett, R. 2002[1977]. *The fall of public man.* The Blackwell city reader.

Wodak, R. 2002. "What CDA is about-a summary of its history, important concepts and its developments" in Wodak, R., & Meyer, M. (Eds.). (2002). *Methods for critical discourse analysis.* Sage.

Wyn, J. and White, R. 1996. *Rethinking youth.* Sage.

Abstract

Activity as Sustainable Life

: A Study of ‘Seoul Youth Hub’ and Practices of Youth Activists

Ryu, Yeunmee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existential tension surrounding lives of Korean youth generation by focusing on youth ‘activity’. It investigates how youth activity as a new way of life is being constituted from discursiv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dimensions. By discourse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 I examined representations of youth generation, Seoul Youth Hub as youth managing institution and practical orientation of youth activists.

Chapter II discusses the discursive moment of youth activity, arguing that the concept of activity has appeared on a double crisis of youth caused by the fall of youth representation as subjects of political movement and the rise of youth representation as problematized workforce. Youth activity, suggested as a way of life ensuring both economic survival and social influence, has been interpellating new subjects of youth overcoming political and economic failure.

Chapter III focuses on the institutional moment by explaining the role

of Seoul Youth Hub in materializing and diffusing youth activity as an alternative lifestyle. After the election of civic activist Park, Won Soon as the mayor, Seoul has been promoting youth participation in proposing and performing its youth policy. Seoul Youth Hub, established in 2013 by suggestion from civic activists and youth themselves, is formally designed as an institution managing youth job policies. However, in actuality it is operating as an open space for youth supporting their social activities and voluntary communities, while educating youth individuals as active citizens and innovative activists. The subjectification project of youth in Seoul Youth Hub was made possible by materializing an ideal way of life called activity, that is at the same time socially meaningful, voluntary and economically sustainable.

Chapter Ⅳ demonstrates how youth activists from Seoul Youth Hub partially reflect the logic of discursive representation and institutional subjectification, but also express unsolvable tension of the actual site. They were heterogeneous individuals having different reasons for beginning activity and different focus of social issues. Nevertheless, they had similar practical orientation—being aware of the impossibility of systemic revolution and therefore pursuing cultural change. Youth activists who were realizing activity as their job showed a rejection toward normative transition to adulthood and an experiment to reorganize their life plans. Even though they were bearing social recognition struggle and unstable economic condition, they tried to sustain their activities in reflexive struggle to discover authentic meanings of life. Youth activity is chosen as an only strategy of survival for those who dream of sustaining socially-individually meaningful life in today's Korean society.

Though it has its limits occuring from dealing with ongoing case and

using qualitative methods, this study tried to observe a specific type of youth made in specific time and space—youth activity—to overcome social projects that seek to generalize and evaluate this heterogeneous group. Conceptually, youth activity is a hybrid practice to recover lost meanings in economic labor and lost sustainability in political movement. In Seoul city in particular, it is taking place in dilemmatic field of governmentality project of institution and reflexivity project of subject. How can we interpret this dilemmatic way of life that youth activists choose, and how bright is their prospect? This study attempted to open up a space to discuss these new problems of youth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ext.

Keywords: youth, activity, discourse, Seoul Youth Hub, governmentality, reflextivity
Student Number: 2012-20082